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snuua.org
website : http://www.snuu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 총무 : 具璟會
편집인 : 金正守

冠岳의 和音과 精氣를 美洲大陸에

母校 音大 연주단 순회 공연

母校 23대 總長에

鄭雲燦 교수

(상대 70년졸)



김형배교수 (단장) 김휘곤 대금 조환희 오보에 박선영 피아노



문주원 첼로 송윤신 바이올린 김윤경 피아노 정호연 성악



손지혜 성악 이자람 판소리 김형십 거문고 정호 박사 연주회 주관자

10명의 동문 음악도와 단장 김형배 교수와 모교 학생처의 권기씨로 구성된 모교 음대 순회 연주단(연주단 사진참조)이 미주 8개 도시에서 9번의 연주회를 갖고(연의 연주 일정 참조, 필라와 남가주의 연주 일정이 변경되었음) 그간 연마한 서양과 전통음악의 和音을 冠岳의 精氣와 함께 미주 대륙의 동문들에게 선사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임광수, 공대 52년졸)와 모교의 재정 지원으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미주 각 지역 동창회가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각 지역 동창회의 특별사업(장학 기금모금 및 한인 사회 자선사업단

체 지원)의 성격도 겸한 것이므로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라고 있다(이에대한 상세한 보도는 각 지역 소식란과 회보 다음호에). <4면에 계속>

◇모교 음대연주단 공연 일정

8월 15일(목)	- 연주단 시카고 도착
8월 16일(금)	- 시카고 공연 (1회)
8월 17일(토)	- 캔ساس 공연 (2회)
8월 19일(월)	- 뉴욕 공연 (3회)
8월 22일(목)	- 필라델피아 공연 (4회)
8월 23일(금)	- 워싱턴 1차 공연 (5회)
8월 24일(토)	- 워싱턴 2차 공연 (6회)
8월 27일(화)	- 이틀라타 공연 (7회)
8월 28일(수)	- 미네아폴리스 공연 (8회)
8월 29일(목)	- 로스앤젤레스 공연 (9회)
8월 31일(토)	- 연주단 귀국

母校는 지난 6월 20일 전체 교수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한 鄭雲燦 교수(상대 70년졸)와 2위를 한 법학부 宋相現(63년 法大卒) 교수를 제23대 총장 후보로 선출,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추천했으며, 지난 7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鄭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鄭교수는 전체 교수 1천3백91명 가운데 1천2백10명이 참가한 연거푸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6백67표를 얻어 최다득표자가 됐다(정총장의 7월 20일자 서울총동창회보와의 인터뷰 기사 12 및 13면 참조).

또 신임 정운찬 총장은 취임 직후인 7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학교는 지금 지성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고, 재정 뒷받침이 부족했으며,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원칙과 명예를 지키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며, 재정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신이 개혁성향이라는 질문에 대해 "개혁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함을 극복하고 수월성과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기 퇴진한 이기준 전 총장은 특별채용 형식으로 공대 응용화학부 교수로 총장직 사임한달여 만인 6월 18일(화) 공대 응용화학부 교수로 복귀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5월 퇴진 후 공대에 교수 복직을 희망한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공대는 6월 18일부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총장은 정년인 내년 8월까지 강의하게 된다 <자료원: 大學新聞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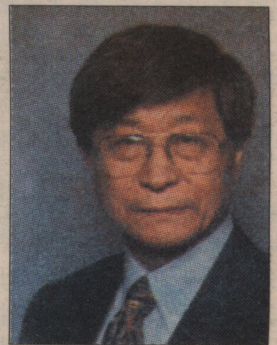
재미 동창회 12년차 年度를 시작하며

李龍洛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공대 53년졸)

序言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무더운 盛夏之節에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이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재미 총동창회가 발족한지 어언 12차 연도를 맞게 되는 이때에 전미주의 동문여러분들의 참여와 전대 회장님들(박윤수, 강수상, 이병준, 오인석)의 헌신적인 봉사에 힘입어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여 이제 19개 지부와 7천여 동문들을 회원으로 가진 재미 총동창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동문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당면과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재미 총동창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인 評議員會 제11차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66명의 評議員중 36명이 직접 또는 서면으로 위임 참석하여 母校를 高揚하고 우리 同門들의 상호 발전을 聲援하는 牽引庫로서의 재미 총동창회가 당면한 조직과 재정의 문제를 점검하였으며, 이 평의회 前夜에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미래를 위한 동문들의 衆智를 모으는 토론의 廣場을 마련하여 31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동창회의 새로운 航路모색을 위한 論壇인 "재미총동창회 창설 10주년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평의회 기간 중에 고병철 동문(법대 59년 졸, UIC 명예교수)이 남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관악후원회 초청만찬에 특별연사로 초빙하여 100여명의 동문들과 한국민족의 宿願 과제인 남북통일의 전망을 점검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평의회는 지난 회기의 사업성과를 결산하고 새로운 회기의 사업안과 예산안



을 결정하였으며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6대 집행부 1차 年度의 評價

제 6대 집행부는 그 1차 연도에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첫째는 재미총동창회의 기간 사업인 회보의 발전을 통하여 동문독자들의 참여와 지원의 증가로 회보 발간의 재정기반의 自立이란 목표추구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회계 연도(6월 30일 까지)에 1,382명의 동문들께서 회보 구독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셨고, 또 2년 내지 4년 분의 구독료를 선불하신 동문들의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34명의 동문들과 시카고 지역 동창회, 하트랜드지역 동창회, 뉴욕 약대 동창회, 뉴잉글랜드 지역 동창회 등으로부터 재미총동창회는 \$78,490의 특별성금인 관악 후원회비를 접수한 바 있고 또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에 23명의 동문들이 \$24,190의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2면에서 계속>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5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9면

이용락 회장 모교와 총동창회 방문

7월 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한민족 세계 과학기술자 학술대회" (7/8-7/13/02)에 참가한 이용락 회장은 7월 10일 종로에 있는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된 모국의 "총동창회 동창회보 편집회의 겸 동창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7월 16일에는 모교의 새 총장에 선출된 정운찬 총장을 모교로 예방하여 재미총동창회의 관심사들을 논의하였다. 서울의 총동창회보 편집회의에는, 임광수 총동창회장을 비롯 27명이 참석하였는데 이자리에는 이용락

회장과 재미동창회의 강경식 평의원 및 김재순 명예회장이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김 회장과 총동창회 순방단 일행이 재미총동창회 11차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총동창회와 재미 총동창회가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뜻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 순방단이 재미 동창회를 위하여 관악후원회비를 출연하는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순방단의 명태현(공대 50년졸) 선배님께서 Golf 대회에서 hole-in-one의 진기록을 수립한데 대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7월 16일에는 이 회장은 모교의 23대 총장으로 선출된 정운찬(사회과학대학 학장)교수를 김기선 학생부처장의 안내로 정교수의 연구실로 방문하여 모교와 재미 동창회의 공동 관

심사에 대하여 협의하고, 모교와 특히 재미 동문들의 유대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지난 1년여의 준비 과정 끝에 8월 15일부터 미주지역 8개 도시에서 9번의 공연을 갖게되는 母校音大 演奏團의 음악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鄭 총장선출자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李회장 12년차 年頭辭 1면에서 계속>
두번째는 母校와 재미 동문들의 유대를 강화하며 동문들간의 친목을 증진하기 위한 연례사업인 母校 음악대학 동문 음악도들의 미주순방 공연이 일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제 8월 16일 시카고 공연을 시작으로 8개 도시에서 9회의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방향중 귀한 시간을 내어 出演하는 10명의 동문음악도의 노력을 우리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모든 공연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 우리 母校 서울大學校를 미주사회에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母校를 위한 知的 奉仕團의 활동입니다. 이는 재미 동문들의 교육 및 교수 경험과 산업현장의 지식 등을 母校를 한국의 最高 대학으로부터 세계적인 선진 고등연구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재미 총동창회와 서울의 총동창회와 母校를 연결하는 三者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아직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뜻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助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동창회의 모임 또는 동창회보 2부의 文筆과 論考, 특히 이번에 시작된 "國費 유학생의 報恩의 논단"(최경홍 동문주관, 회보 100호 18면 참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노력들을 점검해 볼 때 이 사업의 추진에는 母校 현직 교수진들의 大乘의인 발상과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뜻있는 재미 동문들과 총동창회의 실제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이끄는 책임있는 봉사정신에 투철한 서울대인들의 새로운 知性人像의 구현을 촉구하는 林光洙 신임 총동창회장의 "人格, 校格, 國格을 高揚하자"는 취임사의 목표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만약 母校를 위한 지적봉사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재미 총동창회는 현재 구축된 회원들의 자료은행을 활용하여 母國의 발전을 위하여 재미 동문들의 경험과 지식을 母國의 교육계와 산업계에 연결하는 "대한민국을 위

한 지적 봉사단"도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문들의 활발한 제안을 기다립니다.

2차 年度 사업 목표

제 1차 연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집행부는 제2차 연도에 당면하는 과제와 장기적인 사업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회원조직의 확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미 총동창회가 그간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변에 발족된 Carolina 지부를 포함하여 19개 지역동창회에 7000여명 이상의 동문들이 소속된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테네시와 오하이오 지역에서도 동창회 지부 발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소변동 및 동문들의 별세에 따라 현재 지령 100호를 넘긴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가 4,200여부(부부동문의 경우는 회보가 1부씩만 발송됨)만 발송되고 있어 신규 동문회원들의 영입으로 동창회 조직의 새로운 활력소의 輸血이 소망됩니다. 이를 위하여 총동창회와 지역동창회는 노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동문 여러분께서 이웃에 온 새로운 동문 선배들을 찾아내어 동창회와 회보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총동창회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 기반의 확충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개별 동문들이 납입하는 별도의 동문회비가 없는 가운데 재미 총동창회는 그 기간 사업인 회보발행을 위하여 동문들이 내는 "회보 구독료"와 이를 補填하기 위하여 재미 총동창회의 특별 사업을 위한 財源으로 동문 독자들이께서 出捐하는 특별 誠金인 관악후원회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집행부는 제 1차 연도에 회보 발행의 自助自立이란 목표를 세우고 전체 동문들의 회보 구독료 납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 달성에는 동창회보의 내용과 수준의 향상으로 동문 독자들이 기다리는 회보가 되는 것이 선결과제이므로 그간 이를 위하여 회보 편집진의 부단한 노력과 일부 지역동창회의 취재 및 투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미 동창회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1인의 회보편집인과 1인의 편집 보조인력으로

는 그 수준 향상이 한계점에 이르러 내용있고 격조있는 회보의 定期的인 발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보 편집진용의 인력 보강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회보 구독료 납부는 1,382명에 금액으로는 \$ 71,098.96으로 이는 회보발간 소요 예산의 54%에 불과하여 그 부족 분은 모금된 관악후원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회보발간의 장기적인 안정기반 확보를 위하여 적립되는 종신이사회비를 작년도의 모금액 \$13,500을 추가하여 전체 \$57,000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평의원회는 장시간의 토론 끝에 회보 구독료를 현행 \$ 50에서 \$60로 인상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문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惠諒하시어 재미 동창회보의 유일한 발간 재원인 회보 구독료의 납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악후원회비는 본래의 목적대로 재미 총동창회의 특별사업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재미 총동창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지난번 심포지움의 論단은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제기하였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현 총동창회원들의 자연적인 老齡化 추세를 상쇄하기 위하여 신규동문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고, 미주에서 자라난 자녀 세대를 우리 동창회의 조직속에 접목하여 어떻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재미 동창회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의 再定立이라는 과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미주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동문들의 삶의 여건을 감안할 때,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母校를 高揚하는 牽引車"라는 기존 목표 외에 미주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위의 두 과제들을 총동창회의 새로운 사업 목표로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동창회의 조직과 재정능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고유목표와 새로운 목표의 추진을 위한 조직의 정비와 소요 재원의 확보 및 확보된 재원 사용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각 지역동창회의 모임과 우리동문들의 토론의 광장인 회보를 통하여 동문들의 뜻이 모아질 때에 力勳의인 조직으로 재미 총동창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당면 과제와 장기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인은 몇 가지 구상 안을 여러 동문들의 토론의 과제로 여기에 제기하며 또한 내년도 평의원회의 심의과제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재미 총동창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평의원회의 구성상의 문제입니다. 현재 평의원회는 총원 66명으로 당면직 평의원으로 집행부의 전,현직 임원 6명 및 18개 지역동창회의 회장과 선출직 42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年 1회인 정기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분이 재적 과반수에 미달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평의원회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현재의 당면직 평의원 외에, 재미 총동창회를 이끈 전임 총동창회장님들의 경륜과 지도력,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위원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과 대학 동창회의 전미주 동창회장(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간호대 등)과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는 재미 과학기술자협회와 재미 한인교수협회의 현임회장(우리 동문일 경우)에게도 당면직 평의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40대 이하의 젊은 동문들의 추진력과 열성을 총동창회의 활동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선출직 평의원의 구성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재정기반의 확충과 관련하여 지역동창회와는 달리 회비제도가 결여된, 총동창회의 재원 확보를 위한 종신 이사회에 많은 동문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심포지움에서 김호원 평의원이 제기한 동창회관 건립안과 뉴욕의 한창섭 회장이 제안한 SNTU House案(회보 100호 21면 참조)을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회보 발행처의 정착뿐만 아니라 동문

여행자들의 편의와 친목을 도모하게 되며 재미총동창회의 주요 수익사업으로서도 의미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적립된 종신 이사회비와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의 활용 방안으로서 연구할 만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母校를 세계적인 선진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人才를 기르고 미주 교민사회의 지도자가 될 우수한 인재를 우리 재미 동문들의 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미 총동창회 장학기금"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 과제나 박사후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정예인재들을 우리 재미 동문들이 키운다면 이는 母校와 祖國, 미주 교민사회와 전세계를 위한 창의적인 학문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는 현재의 재정 여건 하에서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보 발간비용의 補填이라는 제한된 용도에 消盡되는 미주 관악후원기금이 본연의 뜻을 구현하는 한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회보발간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회보 지면을 통한 광고 활동 사업의 신장문제입니다. 우리 재미 동창회보는 현재에도 유효 실질 배포부수가 5000여부를 넘어 북미주 및 본국에도 독자들 가진 월간 매체임을 감안할 때 회보 지면의 잠재 광고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활용을 위하여 우선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외부로부터의 광고 확보 노력에도 동문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이상과 같은 본인의 제안은 母校와 조국과 미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조직으로서 재미 총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상이오니 이의 구체화를 위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 제안을 기다립니다.

어느덧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동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마다 모두 번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8일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 龍 洛 배상

제 11차 재미동창회 평의원회 續報

재미서울대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신 有功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功勞牌



吳仁錫(법대 62년졸)

귀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4대 및 5대 회장으로 재임 중 재미 총동창회의 회원 자료은행의 확충, 정관개정, 재정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관악후원회 창설 및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위원회 창설 등으로 母校를 고양하기 위한 역동적인 조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력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재미 동문 전체를 대표하여 공로패를 증정합니다.

2002년 6월 15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龍洛

功勞牌



金基泰(법대 74년졸)

귀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4대 및 5대 집행부의 관악후원회 부회장으로 재임 중 본 동창회 운영 및 회보발간에 필요한 재정을 뒷받침하고 미래의 자립을 위한 기초를 닦는데 큰공을 세우셨습니다. 이에 재미 동문 전체를 대표하여 공로패를 증정합니다.

2002년 6월 15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龍洛

功勞牌



金容學(법대 75년졸)

귀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5대 집행부의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 본 동창회 운영을 위하여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제반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총괄 관장하였으며 본 동창회의 회칙 개정안의 기초에 지대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미 동문 전체를 대표하여 공로패를 증정합니다.

2002년 6월 15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龍洛

功勞牌



李慶林(상대 64년입)

귀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4대 및 5대 집행부의 재무국장으로서 재임 중 본 동창회의 재정관리 업무와 母校와 後進을 돕기 위한 백민불 基金의 발안자 및 그 기금 운영의 관리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이에 재미 동문 전체를 대표하여 공로패를 증정합니다.

2002년 6월 15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龍洛

일곱분의 동문들 평의원회에서 功勞牌 수상

지난 6월 14일 부터 16일까지 열린 재미 총동창회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는 재미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한 일곱분의 동문들께 다음과 같은 공로패를 증정한바 있다.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공로패를 받은 유공동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吳仁錫(법대 62년졸, 재미 총동창회 명예회장)
金基泰(법대 74년졸, 제 5대 관악후원 부회장)
金容學(법대 75년졸, 제 5대 사무총장)
李慶林(상대 63년입, 제 4, 5대 재무국장)
金好元(치대 56년졸, 전 하트랜드 지역회장)
文成吉(의대 70년졸, 전 워싱턴 DC 지역회장)
李清光(상대 68년졸, 전 남가주 지역회장)

功勞牌



金好元(치대 56년졸)

귀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장으로서 재임 중 헌신적인 노력으로써 7개 주의 광활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동문들을 찾아내시고 동문들간의 돈독한 유대를 발휘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셨습니다. 이에 재미 총동창회는 공로패를 증정합니다.

2002년 6월 15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龍洛

功勞牌




文成吉(의대 70년졸)

귀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워싱턴 DC지역 동창회장으로서 재임 중 헌신적인 노력으로써 지역동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시고 특히 母校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초청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동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셨습니다. 이에 재미 총동창회는 공로패를 증정합니다.

2002년 6월 15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龍洛

功勞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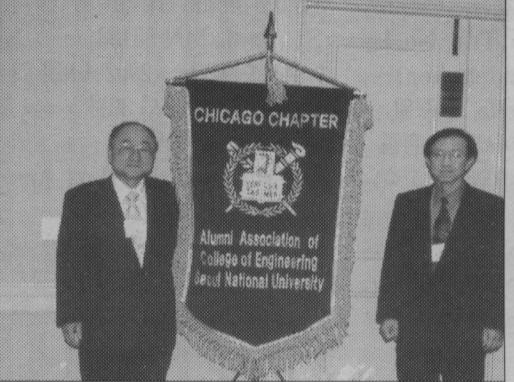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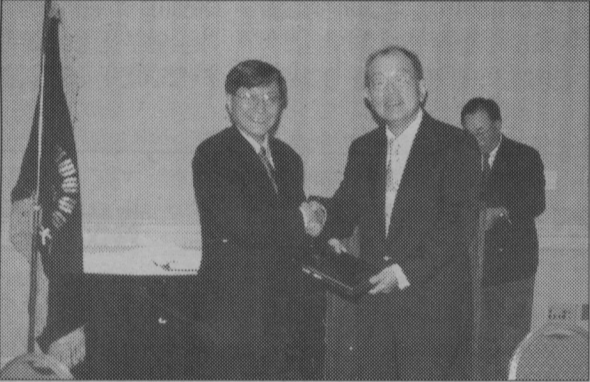
李清光(상대 68년졸)

귀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남가주 지역 동창회장으로서 재임 중 헌신적인 노력으로써 지역 동창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많은 남가주 동문들의 참여로써 재미 동창회보의 지속적인 발간에 큰 힘이 되셨습니다. 이에 재미 총동창회는 공로패를 증정합니다.

2002년 6월 15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李龍洛

<각 수상자의 공적사항은 위 공로패 참조>

이용락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이 오인석 명예회장(사진 중앙)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있다 (2002년 6월 15일). →



임광수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시카고 공대 동창회 박홍근 회장(공대 68졸)에게 공대 동창회기 기증후 기념촬영

평의원회 書報



평의원회장에서 동문들 交歡, 오인석, 서영석, 박경민, 한재은, 김익훈, 송순영동문 부군, 송재현(사진 왼쪽 왼쪽부터) 강수상, 임광수, 한두진동문(사진 아래쪽 왼쪽부터)



평의원회장에서 동문들 交歡, 정후, 조대현, 공대식, 우인성(사진 뒷줄) 최임주, 명태현동문(사진 아래쪽)이 보인다.



관악후원회 만찬장에서 남북한 관계에 대한 특별강연을 한 재미총동창회 제1회 특별강연 연사 고병철동문(법대 59졸) 부부

<1면 모교음대 연주단에서 계속>

이번에 출연하는 동문 음악도들은 성악(정호원, 손지혜), 피아노(김윤경, 박선영) 바이올린(송윤신), 첼로(문주원), 오보에(조환희), 관소리(이자람), 대금(김휘곤) 및 거문고(김형섭) 등의 技倆을 미주 동문 선배들께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단에 선발된 동문 음악도들은 모두 국내외의 저명 음악경연대회에서 탁월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 연주단의 공연 프로그램은 국악과 서양 가곡으로 구성되었는데, 1. 청성곡(대금 김휘곤) 2. Adagio and allegro for Oboe and Piano Op. 70(원작 : R. Schumann) Oboe 조환희, Piano 박선영, 3. Concerto in g minor Op. 49 1악장 (D. Kabalevsky) Cello 문주원, Piano 박선영, 4. Caprice After Saint-Saens 'Etude en forme de valse, No. 6, Op. 52' (E. A. Ysaye) violin 송윤신, Piano 박선영, 5. Les jeu d'eau a la villa d'Este (F. Liszt) Piano 김윤경 6. 최옥산 류 가야금 산조 (1950년에 타계한 여류명인 최옥산의 남성적이고 호방한 연주법) (가야금-김형섭, 고수(장구반주)-김휘곤) 7. 동심초 (김성태)와 Ah! fors'e lui, La Traviata (G. Verdi)-Soprano 손지혜, Piano 김윤경 8. 가고파 (김동진)와 Che gelida manina, La Boheme (G. Puccini)-Tenor 정호원, Piano 김윤경 9. Libiamo ne'lieti calici... (G. Verdi)-Soprano 손지혜, Tenor 정호원, Piano 김윤경 10. Piano Trio No.1 49 1악장 (F. Mendelsshon)-Violin 송윤신, Cello 문주원, Piano 박선영 11. 어사또와 춘香的 상봉대목-관소리 이자람, 고수(북반주) 김형섭

<공연일정 및 장소>

▶시카고: 2002년 8월 16일(금요일) 오후7시 30분-오후10시 Anderson Hall North Park University

□Chicago, IL

▶캔사스: 2002년 8월 17일(일요일) 오후7시 30분-오후10시

The Performing Art Center-White Hall

The Conservatory of Music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4949 Cherry Street Kansas City, MO 64110

▶뉴 욕: 2002년 8월 19일(월요일) 오후8시- 오후 10시

Korean Community Church of New JerseyEnglewood, NJ (New Jersey Yonhap Gamli Gyohoi)

▶필리델피아: 2002년 8월 22일(목요일) 오후 8시-오후 10시

Korean United Church of Philadelphia

12 Street and Cheltenham Philadelphia, PA

▶워싱턴 D.C.: 2002년 8월 23일 오후 7시 30분

Mt. Sinai Baptist Church 1615 3rd Street NW Washington, DC 20001

2002년 8월 24일 오후 7시 30분

Ernst Community Cultural Center Northern Virginia Community College 8333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 22003

▶아틀랜타: 2002년 8월 27일(화요일) 오후 8시

Korean Church of Atlanta, UMC 2197 Peeler Rd., Dunwoody, GA 30338

▶미네폴리스: 2002년 8월 28일(수요일)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30분

OC Chapel of the Incarnation Luther Seminary 1490 Fulham Street St. Paul, MN 55108

▶로스 엔젤레스: 2002년 8월 29일(목요일) 오후 7시 30분

한국 종합 교육관 680 Wilshire Pl., Los Angeles, CA90005

각 지역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창회보 31면에 있는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 회계년도(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새회계년도에도 재미동창회를 지원하시는 동문들의 성금출연에 감사드립니다.

<母校와 後進을 위한 백만원 기금>

- 이용락(공대 53년졸)-\$1,000
정정수(의대 56입)-\$500
이소정(음대 84입)-\$200
변만식(사범대 49입)-\$100

<관악 후원금>

- 이용락(공대 53년졸)-\$5,000 (종신이사비 포함)
정유석(의대 58입)-\$200
정정수(의대 56입)-\$200

□

- <금년도 회보구독료 \$60납부자>
오태요(의대 56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유효명(\$100, 의대 58입)
김정수(문리대 69년입)
홍혜례(사대 76년졸)
도상탁(\$100, 의대 56년졸)
하계현(\$50, 공대 68년졸)
허선행(의대 58입)

재미총동창회 제 7차 상임 임원회 회의록

2002년 6월 20일(목)

재미총동창회의 제 7차 상임 임원회가 6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총동창회 본부 이웃에 있는 갯마을 식당에서 李龍洛(공대 53년졸) 회장, 宋舜英(문리대 56년졸) 관악후원 부회장, 具瓊會(의대 65년졸) 사무총장, 全鉉一(농대 66년졸) 재무국장, 張基南(문리대 62년입) 섭외국장, 회보 편집인 金正守(문리대 69년입) 동문이 배석하고, 金正周(문리대 64년입) 총무국장, 丁浩(공대 66년졸) 출판국장이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가운데 열려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임원회의는 재미총동창회 창설 10주년 심포지움,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 관악 후원 만찬의 밤의 남북한 관계에 관한 특별강연, 동문 음악회 및 친선골프 대회 등의 전체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평가하고 임원회의는 평의원회의 결과를 시행할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였다. 재무총장은 평의원회의 회의자료의 준비가 미흡하였음을 감안하여 5시간의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정비하고 예산 결산이 완결되는 대로 평의원회 자료집을 빠른 시일내 다시 작성하여 전체 평의원들에게 발송하여 재미 총동창회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려 내년 평의원회가 (2003년 5월 31일-6월 2일까지

Los Angeles에서 열릴) 금년 보다 많은 평의원들이 참석하여 내용있게 진행되도록 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具총장은 일부 지역 동창회에서는 아직도 재미 총동창회 평의원회의 존재와 성격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각 지역 동창회로부터 평의원 명단을 조기에 파악하여 내년도 회의를 대비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具총장은 평의원회 행사 진행을 위하여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 의대 65년졸)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는데 특히 모교 순방단을 환영하는 Golf와 오찬등을 한재은, 임현재, 구경희, 및 송순영 동문 등이 부담하였고 또 장기간 동문이 순방단의 NY출발전에 조찬등을 대접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회보를 통하여 이번 평의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한 시카고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로 하였다.

이어 全鉉一 재무국장은 이번 평의원회 기간중 특별 후원금이 출연되었는데, 서울총동창회 순방단의 임광수 회장(\$5,000), 본국 순방단일동(\$2,000) 및 Golf 대회에서 hole-in-one을 기록한 명태현 동문(\$500) 및 관악후원 만찬에 참석한 일부 동문들로부터 특별찬조(\$520)가 있었음을 보고하였

다. 임원회의는 장 섭외국장이 명태현 동문의 Golf 진기록 수업을 축하하기 위하여 기념패를 제작하여 증정하기로 하고 성공적인 음악회를 위하여 출연한 세 동문 음악도(김영석, 이소정, 이수정)들에게 이용락 회장의 감사편지와 함께 격려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全 재무는 지난해에 모금된 종신이사비(\$13,500)를 포함한 NY본부에서 이송된 이사비(\$43,500)를 통합하여 빠른시일 내에 CD구좌에 적립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난 일년간 총동창회에서 접수된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이 기금위원회에서 별도 접수한 방은호 동문의 약정금 \$10,000을 포함하면 전체 모금액은 \$24,190이며 총동창회 사무국에서 직접 접수한 금액 \$14,190을 기금관리위원회 (오인석 위원장)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全재무는 총동창회의 연방 조세청의 면세지위유지에 필요한 통합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표준 양식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동창회에 보내어 회계자료를 받아 8월 31일까지의 Federal Tax Return Report를 자문 회계사를 통하여 완결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평의원회 행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신속히 정산하여 미연방 회계보고서의 작성에 대비하기로 하고 산화하였다.

조수미 워싱턴

공연 음반

인기계속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4천5백불 확보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동문이 지난해 8월 25일의 Washington DC 공연에서 열창한 동서양 가곡을 담은 CD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이 CD의 판매금은 모두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과 재미 총동창회를 위한 관악후원금으로 납입되며, 잔여분 120개는 선착순 우편주문 판매하며 31면의 주문서를 수표와 함께 보내시면 된다.



청포도

李陸士(1904-1944)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憲法개정과 政界개편

金哲洙(법대 56졸, 모교 법대 명예교수)

정권말기가 되면 의례 헌법 개정론이 등장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헌법개정론이 등장하고 있다.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이다. 처방은 논자에 따라 다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며, 일부에서는 프랑스식대통령제, 분권적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제왕적대통령제를 결과하며 권력형 부정부패, 친인척비리, 레임덕현상의 온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헌법만 개정하면 이런 부조리가 말끔히 씻겨질 것인가 의문이다. 헌법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개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국민의 여론형성을 위한 개헌논의 자체를 금기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헌을 주장하기 전에 헌법을 준수하여 제왕적대통령제의 병폐를 제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사실이지 현재의 독재적 운영은 헌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운영주체의 잘못이라고 하겠다. 대통령과 여당이 헌법정신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요, 정 필요하다면 법률과 관행만 그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보다는 프랑스식대통령제에 가깝다. 미국헌법은 국회와 정부간에 엄격한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지지가 국회에서 소수일 때에는 행정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를 완전 분립시키지 아니하고 내각을 두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식의원정부제와 비슷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는 경우 국회의 우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소아대인 경우 동거정부를 운영하면 된다.

이제까지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을 무시해 독단적인 임면을 해왔

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제정권과 국무위원해임건의권을 무시하여 독자적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했고, 국무회의를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운영한 관례때문에 제왕적대통령제로 비난받았던 것이다.

정치권에서 위험적 관행을 고치면 될 것을 기본법인 헌법개정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다분히 전략적으로 보인다. 8.8 보궐선거 후, 정치정세는 예측하기 힘들다. 현재의 대선 후보들이 계속 12월까지 갈 것인지, 제 3후보가 등장할 것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대선에 불리한 세력이 헌법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은 개헌을 단행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다. 그러나 개헌은 헌법절차에 따라야 하며 정당간의 합의가 없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개헌론자들은 개헌추진을 위한 정당을 결성해 대선에 임하고 대선 후에 그 공약을 실천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정계개편이 필요하더라도 합헌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정계개편이 단행되어야 한다. 대선을 앞둔 현재 헌법개정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헌법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더라도 늦지않다. (서울동창회보 293호 2면에서 전제)

서울대 동창회 해체하라고?

-강준만 교수에 답하여-

장동만(문리대 63년 졸)

그동안 서울대 위기론, 서울대 해체론, 서울대 망국론등 서울대 때리기가 심심찮게 거론되더니, 이번에는 국내의 진보적 학자인 강준만 교수가 난데없이 서울대 동창회 해체하라는 기치를 들고나섰다. 한국일보 칼럼 강준만의 쓴 소리 (02년 5월 8일 자)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서울대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게 만드는 살벌한 대학 입시 전쟁과 학벌주의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이어 말한다. 무슨 비리 사건이 터졌다 하면, 어떤 인사 잡음이 있다 하면, 모두가 학연 커넥션이 등장한다. 그런데, 서울대 동창회의 부회장과 고문단 56명의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 총국민회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사회 각계의 모든 지도자 급 인사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러니 각종 부정부패, 인사 비리의 주역들은 모두가 서울대 출신들이 아니겠느냐는 반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 : 오죽해야 일부기업들이 기업 내에서 동창회를 금지시켜줬는가?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충고한다. 서울대 장애인 동문회의 경우처럼, 공공적 이슈 중심의 동창회로 바꿔 나가야 한다. 전국의 모든 동창회들이 공적인 목표를 표방하면서 친목 도모를 하게끔 서울대 사람들이 선두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동창회라는 조직은 다른 모든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면과 부정적면이 함께 지닌다. 같은 창(窓)이, 같은 환경에서 학습을 했다는 공통분모에서 오는 인간적인 친밀감, 이 친밀감을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 나누려는 활동을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친밀감이 공적조직, 공공생활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는 우리가 타기해야 할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이기주의는 다른 집단의 반발과 거부감을 촉발한다. 너의 동창, 나의 동창끼리 끼리 놀고, 또 서로 감

싸고 돌봐 준다면 알력과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는 화합과 통합이 아닌 너 따로 나 따로 분열을 가져올 뿐이다. 이것이 지성인이 취할 태도일 것인가? 그러면 동창회가 같길어 어디인가? 김 교수는 공공적인 이슈 중심의 동창회를 제시한다. 연구 중심, 토론 중심, 봉사 및 장학활동 중심 등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적으론 더 할 수 없이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론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가?

어찌되었건 유독 서울대학만을 지목, 동창회 해체하라는 말을 듣게된 이제, 서울대 동창들로서는 이를 반박 성토하기에 앞서, 왜 이같은 말이 나오는가를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쓴말이 약(苦言藥也)이라고 하지 않는가? 참고로, 필자가 그동안 동창회보에 쓴 글 중에서 몇 토막을 여기에 인용한다. 국가의 요직에 많이 있는 서울대 출신 엘리트들이라니게 모조리 부패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어느 육사 출신 장교의 말) ~군사 정권에 앞장서 그 불가피성, 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타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가? 이는 것이 힘이라고 한다. 서울대 출신들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 아는 것이 많다. 따라서 그 아는 것에 비례해 힘도 세다. 그런데 이때 힘이란 것이 무엇인가? 삶의 조건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리틀스가 아닌가? 이제 참 신지식인은 IQ가 높아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그들의 지식과 힘을, 나보다 덜 배운 그래서 삶의 경쟁에 있어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만큼 할애해야 한다. 이는 마치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위해 그들이 가진 부를 어느만큼 사회 환원해야 하는 이치와 같다. 이 같은 지식인을 나는 참 신지식인이라고 부르고 싶는데, 우리 서울대 출신들이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 아닌가?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1. 청포도/이육사詩 5
2. 헌법개정과 정계개편/김철수 5
3. 모교 23대 총장 기자회견/정운찬, 남중구 12
4. 문화와 교육/김연서 13
5. 고등교육평정기로서의 서울대학교 총장 (독자투고요청) 25
6. 재미동창회 12년차를 시작하며/이용락 1
7. 서울대 동창회 해체하라고?/장동만 5
8. 나의 화려한 外出/이인선 8
9. 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장 취임사/정정수 11
10. 필승축구의 집념을 민족사 변혁의 원동력으로/육길원 18
11. 21세기 東아시아 平和와 安定을 위한 韓中協力/김계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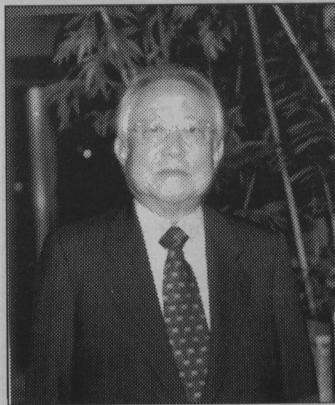
冠岳의 和音과 精氣를 美洲大陸에

두달째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의 간행과 배달이 지체되었음을 독자 여러분께 우선 사과드립니다. 이 중에서도 遼報로 말씀드리면 자랑스런 10명의 新進氣銳의 동문 음악인들의 미주 순회 공연이 예정대로 시카고, 캔자스,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중임을 보고 드리며 동창회보 간행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은 많은 사람들을 신과 바다가 부르지만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文筆과 論考는 붓을 놓지 않습니다. 이번 호에는 우리 동문들이 제천절과 미국 독립기념의 달을 맞아 오욕으로 점철된 한국의 헌정사와 18세기 신대륙에 세운 자유의 땅 미국의 그 휘황거리는 세계정체과 자본주의의 건강문제를 다루고 우리 동창회의 나이갈 방향에 대한 신중하고도 도전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離合集數의 파행적 책략으로 이전인수격으로 제기되는 憲法改正論에 대한 검토(김철수), 미국 독립기념일에 부치는 동문들과 미국 시민들의 글(이태상, 이재국, 미국시론 1, 2), 동아시아의 새 強者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논의(노재원, 김계순)는 우리 민족의 숙제로 남아있는 남북 통일의 앞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의 단서를 던지고 있다. 또 母校의 23대 신임 총장 취임과 더불어 동창회의 활동 방향에 대한 글(정운찬, 남중구, 김연서, 장동만, 이용락, 정정수, 이인선)은 세계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모교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 동문들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自然이 가르치는 知識의 秘法을 각자 나름대로 (노인규, 박경민, 김일훈, 다섯분의 老老동문 음악도들) 보여주어 문필과 노고란은 깨어 있습니다. 동문 독자들이여, 지성인의 우정의 가교인 재미 동창회보의 정기적인 간행은 우리 동문들의 풍요로운 육고의 끊임없는 도래가 그 관건입니다. 필승 축구의 집념을 민족사 변혁의 원동력(육길원)이 될 우리 동문들의 창의적인 글을 편집자는 언제나 기다립니다. 휴가철에도 우리 모두 친구들과 소식과 글을 나누는 동창회보의 취재기자와 필자가 되십시오.

21世紀 東아시아 平和와 安定을 위한 韓中協力

金在淳(상대 51년졸, 서울대 총동창회 명예회장)

[편집자주: 이 글은 필자가 사단법인 신아세아 질서 연구회(회장 이상우 서강대 교수, 법대 61년졸) 주관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수교 10주년 기념 제 10차 한중 토론회에서 한국 대표단장으로 참석, 기조 연설을 한 전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정세의 중국의 역할, 한중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중국 공산당 對外연락부의 제의에 따라 비공개리에 정치, 언론, 기업 학계에서 24명이 참가하였는데 중국 민주화에 대한 미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한다. 이 연구회의 연락처는 전화는 서울 547-7161이다.]



中國과 美國이라고 하는 두 힘의 틈바구니에서 두 개의 자기確信에 찬 價値를 내세우는 나라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美國은 많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 내의 이질적 집단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도 미국은 共同理念을 強하게 내세우는 體質을 가지고 있습니다. 政治的으로는 自由民主主義를, 經濟的으로는 市場經濟原理를 社會統合의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계속 온 세계에 發信하고 있습니다.

한편 中國은 '人類文明文化의 中心'이라는 中華思想의 自尊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中國은 中國의 전통가치와 文化의 확산으로 世界平和秩序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간에는 외형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서로 尊敬과 愛情에 가까운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美國에서 본다면 中國은 '속이 깊은 아시아 文明의 中心'이며, 한편 中國에서 본 美國은 力을 갖춘 '憧憬과 羨望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中國과 美國關係는 冷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으나 두 나라 사이에는 決定的 對立을 避해 가는 力學이 作用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重要한 存在'로 받아들이는 深層心理가 存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近來 美國과 中國 間의 次世代 交流를 위한 布石을 注目합니다. 本人이 中國을 방문할 때마다 實感하는 것은 政界, 產業界, 官界의 指導層이 젊어졌다는 것입니다. 中國의 실리곤벨리라고 불리는 北京의 中關村, 하이테크 파크의 지도급 인사들의 殆半은 40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大部分이 美國 留學生 즉 留美派라고들 하더군요. '優秀한 學生 일수록 美國에 간다'는 것이 中國의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主體性을 가지고 未來에의 씨를 뿌리는 努力' - 그 연장선상에서 '偉大한 中國復興'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음을 實感합니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交易의 重要성입니다.

국가간 交易은 平和를 가져오며 經濟交流를 증대시켜나가면 국가간 紛爭은 줄어듭니다.

貿易과 투자는 교역당사국 雙方

의 經濟成長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民主化를 촉진합니다. 中國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民主國家로 발전해 갈 때 他民主國에 武力 威脅을 行使하지 않게 되리라 - 이것이 美國을 비롯한 中國 周邊 民主國家들의 期待입니다.

力動的인 아시아 國際政治를 결정하는 큰 變數로 美中 關係 외에도 美日東盟의 方向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美國과 日本의 經濟力과 軍事力을 합친다면, 아시아에서 壓倒的인 優位을 占하게 됩니다. 그러나 過연 美日 關係가 現在처럼 앞으로 계속 장밋빛 東盟關係를 유지 발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美日 두 나라가 긴밀한 經濟協力 關係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에 걸맞게 文化的인 親近感까지도 구축해가며 太平洋 兩岸을 잇는 다리를 놓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때 "이 地球上에서 日本이 사라질 때까지 日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美國人의 情緒가 눈 녹듯이 다 녹아 없어졌을까? 戰爭이 政治의 또 다른 手段이라 했지만, 21世紀는 經濟야 말로 政治의 또 다른 手段이라고 하는데 美日 蜜月關係가 21世紀에도 이어져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日本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獨自의 政治의 指導力을 追求해 갈 가능성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日本의 태도변화가 일어날 경우 中國과 러시아, 韓國에게는 어떤 모양의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며, 美中關係가 世界의 새로운 軸으로 형성되어 가려는 마당에 變化되어 가는 日本의 姿勢 앞으로 國際政治舞臺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럴 때 日本을 바라보는 우리 韓國人의 눈도 더 冷徹히 더 分明한 곳에 焦點을 맞출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方向입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강대국으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이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분명해진 것은 冷戰後, 舊 소련 안에 새로 獨立한 共和國이 여러 개 생겼기 때문에 러시아가 과거의 소련처럼 새로운 霸權主義 국가로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우리라 예상됩니다. 다만 러시아의 관심이 앞으로는 유럽 보다는 아시아로 향하게 되리라고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러시아와 中國, 러시아와 日本關係가 어떤 양상으로 展開되어갈 것인가? 中러, 日러 간의 關係가 깊어진다면 러시아와 美國과의 균형關係에 어떤 變化를 가져올 것인가 - 이러한 문제들에 注目이 갑니다.

中國側 先生님들께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中國 밖에서

보는 눈, 특히 韓國처럼 좋거나 나쁘거나 中國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中國 國內의 狀況, 發展추세가 21世紀 아시아의 平和와 繁榮에 아주 중요한 決定變數로 비집니다.

무슨 일이나 陽地가 있으면 陰地가 있듯이 中國의 未來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을 수 없지요. 人口 13億의 中國經濟가 過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高度成長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경우, 食糧, 에너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韓國도 익히 經驗한 과정이지만 이른바 開發獨裁 단계를 지나면서 거의 예외 없이 噴出하는 人民들의 自由와 政治民主化에 대한 욕구, 특히 젊은 세대들의 改革要求를 어떻게 진정시켜 나갈 것인가? 山積한 그리고 물밑듯이 밀어닥치는 새로운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要求와 不滿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中國內에 언제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政治的인 安定과 社會的인 均衡이 이루어 질 것이며, 均衡이 실현되기까지 있을 수 있는 混亂의 幅은 어느 정도일까? 등등의 의문점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눈을 밖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東北아시아의 安定, 특히 中國 周邊國의 平和유지를 생각할 때, 臺灣과 北韓문제가 가장 눈에 띄는 不安定 要素가 되고 있음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多少 餘談이 될지는 몰라도 臺灣에 관해서 저의 經驗談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2년에 韓國의 盧泰愚 政府가 中國과 國交를 맺을 때, 매우 고통스런 역할을 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國交를 맺고 있었던 臺灣政府와 斷交를 하게 되어 臺灣에 陳謝 使節團長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臺灣의 指導者들에게 드린 저의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謝罪의 뜻으로 '肉口負荊'의 心情을 吐露하는 말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찍이 蔣經國 씨가 한 말의 引用이었습니다. "時代가 바뀌고 환경이 變하면 새로운 變化를 追求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變化無雙한 오늘의 時運이 당신들과 우리들을 헤어지게 했지만 앞으로 變化하고 또 變하는 것이 人間의 歷史가 아니겠소... 우리 두 나라의 長期的인 國益이 무엇인지를 冷靜, 沈着하게 찾아내는 것이 우리 두 나라 政治人들에게 주어진 責務가 아니겠소.... 아무쪼록 크고 넓고 깊은 中國의 傳統文化를 간직해오는 貴國의 政治家와 國民들의 寬大한 包容심을 바랍니다.

<7면에 계속>

먼저 中國의 共產黨 對外 聯絡部 산하의 中國國際交流協會의 高名하신 先生님들과 우리 韓國의 多士濟濟들로 構成된 新亞細亞秩序 研究會가 共同으로 主催하는 第1次 中韓, 韓中 討論會에서 淺學非才한 本人이 敢히 基調演說을 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면서 同參하신 여러분에게 敬意를 표합니다.

今年은 우리 韓國이 中國과 修交한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면서 여러 분야에 걸친 兩國의 協力關係에 대하여 深度있는 論議를 交換한다는 것은 時宜適切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會晤를 거듭해 나갈수록 21世紀에는 中國과 韓國 兩國이 共同發展의 場을 열어가는데 크게 寄與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未來學者들은 물론 모든 世界의 知性들은 同결같이 21世紀는 아시아·태평양의 世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아시아는 世界에서 가장 力動的인 地域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의 奇蹟은 2次大戰의 敗戰의 상흔을 딛고 일어나 오늘날의 經濟大國으로 成長한 日本과, 6·25 戰爭의 廢墟에서 漢江의 奇蹟을 이루어 낸 韓國, 그리고 江澤民主席의 말처럼 '中華民族의 偉大한 復興을 目標로 改革, 開放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오늘날의 中國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특히 歐美의 여러 나라와 民族들이 200여년 걸려 이루어졌던 經濟基盤을 아시아인들은 불과 30년 안팎의 短時日에 이루어 냈었기에 더욱 世人을 놀라게 했습니다.

敬愛하는 紳士淑女 여러분! 이러한 아시아의 奇蹟은 아시아인의 歷史와 傳統, 文化의 所產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繁榮은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이 地域의 安定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安定은 美國에 의해서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安定은 결코 自然攝理에 의한 것이

아니고, 美國의 힘이 뒷받침된 아시아 各國 間의 힘의 均衡의 결과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本來 아시아인들은 歐美諸國 사람들과는 달리 集團安全保障이라는 概念에 친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아 각국은 自由民主主義니 하고 있지만 한꺼풀 벗겨서 各國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價値觀을 위해 목숨과 國運을 걸고 協力해야겠다는 共通된 意識이 없거나 弱합니다. 아시아에서 重要視되어 온 것은 나라마다의 國家利益이었으며, 獨立自尊만이 最高의 價値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世界次元의 冷戰은 종식되었지만 아직 까지도 아시아에서는 冷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軍事費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冷戰 後의 情勢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는 歐美 各國과, 日本 中國을 포함한 東아시아와의 사이에 커다란 格差가 있습니다. 歐美에 있어서의 冷戰의 終焉은 緊張의 劇的인 緩和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아시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本人은 여러분께서 이번 회의에서 世界의 次元의 冷戰의 종식이 왜 아시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萬若에 냉전이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각 나라는 그렇게 認識하고 있지 아니한가에 대하여 가르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本人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東아시아에 있어서 緊張의 주된 原因은 軍비경쟁, 대량살상 武器의 비축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理解의 不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討論會의 주제인 '東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을 위한 방법'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간의 相互理解를 높이는 方法을 찾는 일, 그리고 그 組織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1世紀의 國際秩序는 美國과 中國의 關係를 軸으로 새롭게 構築될 것이라는 認識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韓國은

<6면 김재순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계속'>

이렇게 臺灣을 다녀오면서 한 말은 오늘날 中國의 지도자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臺灣문제로 인해서 東北아시아의 安定과 平和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속이 깊은 아시아 文明의 中心國家'답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 초에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을 처음 만난 毛澤東主席의 말은 이러했지요. "우리들은 그들(臺灣)없이도 당분간 해 나갈 수가 있다. 臺灣 문제는 100年後에 해결해도 괜찮다"고 했지요.

키신저(Henry Kissinger)는 中國 指導者들은 "些少한 점보다는 信賴 關係를 만들어 내는데 더 큰 관심을 보인다"고 했는데 참으로 깊은 뜻을 담은 말이라고 여깁니다.

끝으로 우리 韓半島의 統一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韓國이 東아시아의 強大國들의 틈

바구니에서 살아남아 번영의 길을 찾아가는 데는 지난날 못지 않게 앞으로도 멀고도 險한 길이 이어질 것이라 예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韓半島의 統一에 관하여 생각할 때 多年間 西獨의 外相으로 東西진영과 美 蘇를 끊임없이 드나들며, 獨逸統一을 이루어 내는데 공헌했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 D. Genscher)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독일은 주변 국가들에게 罪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무 나라든 우리의 統一을 원하지 않았습니. 특히 蘇聯은 우리가 統一되어 다시 強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統一을 서두르지 않고 周邊 國家들의 信賴를 회복하는데 모든 努力을 기울였습니다. 罪값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努力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독일이 世界平和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周邊 國家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統一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韓國은 周邊 國家들에게 罪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周邊 國

家들의 合意를 끌어내기가 보다 쉬울 것이고, 주변 국가들이 合意하면 南北統一은 可能하다고 봅니다. 독일은 너무 強해서 分斷되었고, 韓國은 너무 弱해서 侵略과 分斷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南北이 統一되어 한 나라가 되면 결코 弱한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분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변국가들이 合意하면 南北統一이 可能하다. 그러니까 모든 外交努力을 기울여, 주변 국가들의 合意를 이끌어 내도록 하라"는 겐셔 長官의 충고가 항상 귀에 쫄쫄합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는 주변 국가들에게는 罪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歷史앞에 罪를 지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反省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의 統一을 생각할 때 제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人類 歷史를 되돌아보면 歷史的 轉換은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가깝게는 舊蘇聯의 붕

괴가 그러했고, 伯林障壁의 붕괴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豫想할 수 없을 만큼 급작스러운 속도로 붕괴했습니다. 물론 오랜 준비 기간이 전제됩니다만 우리의 통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눈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經驗을 통해서 저는 歷史에 介入하는 어떤 超越的인 存在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超越的인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運命 또는 世界精神, 歷史의 意志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矛盾이 쌓이면 그 矛盾을 解消하려는 어떤 힘이 마치 地震처럼 급작스럽게 強하게 作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南北統一의 새아침도 때가 오면 어느 날 갑자기 환히 밝아지리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未來를 말하지 않는 나라가 發展한 예가 없습니다. 날로 빨라지는 통신, 교통속도로 세계는 상대적으로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

다. 太平洋 멀리서 水平線 넘어 우리의 祖國, 韓半島를 바라볼 때, 中國과 日本, 그리고 統一 韓國. 이 세 나라가 사이좋게 이웃으로 共存共榮하지 못할 까닭이 없어 보입니다.

本人은 東아시아에서 緊張완화를 圖謀하는 일은 實現possible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東아시아에서의 緊張은 서로 對峙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武器의 質이나 量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갖고 있는 認識의 문제와 將來에 대한 不確實性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關係各國의 努力如何에 따라 緊張 解消의 可能性이 크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문제'는 서로간의 信賴라는 말입니다. 이런 信賴와 理解를 쌓아가는데 내일 있을 韓中, 中韓兩國의 知性 人들간의 討論이 크게 공헌하는 바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맺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002. 6. 25).

美國時論

미국독립기념일의 한 시민의 미국의 神話의 재평가

Time to re-examine America's role in the world



On July 4 we once again celebrate the birth of our nation. The question is, which nation? Are we the scattered but visionary nation of the founding fathers? Or the nation of Lincoln, who fought to preserve the union as the Earth's "last best hope"? Or the nation that entered two world wars to help make the world safe for democracy?

With our vast accumulation of economic and geopolitical power in the la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something our forefathers would hardly recognize. Perhaps, hardly approve.

We are told by our leaders that America is a good country and we want to believe them. But we are told by much of the world that, al-

though they like Americans, they don't always like America.

So perhaps this first 4th of July of the first war of the 21st Century is an opportune moment to re-examine the great national myths by which our people have lived and grown for the last 300 years.

Myths are those collected beliefs that a nation and its people have about themselves that help explain and guide that they do. Without understanding its myths, a nation cannot understand its history(or its legends, which are the great stories we build around our national myths). National Myths may exaggerate reality. In many ways, though, they are actually greater than reality, because they help shape our national behavior. three in particular come to mind. It is these three and their aggressive global expansion in our times that may help us better understand why so many cultures in the world like us as a people but not as a

country:

■ The myth of the Old West and America's spirit of rugged individualism. From the first arrival of Europeans, there has always been this sense in America that there is a frontier that we could somehow cross, in order to leave failures behind and begin again. This belief spoke to our hearts about always having another chance if we just have the true grit needed to seize it. Every hero has reinforced this self-image that Americans possess the bravado that wins against all odds. When you see yourself this way, it's hard to accept second best. Sometimes that's good. But sometimes, when we encounter other cultures that claim the same role, we trigger an enormous backlash of resentment. The question becomes: Does this make us the world super power or the world bully?

■ The myth of the American dream, this probably began with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s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Millions of human beings before us lived and died without ever assuming such a bold right. Americans, how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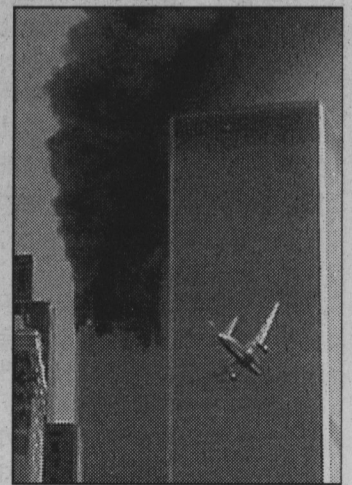
do. When you see yourself in this way, it's difficult to be satisfied with anything less than everything. The question becomes: How long can the globalization of our economic greatness continue before the world's hungry masses pressing their face against the candy store window break in the glass?

■ The myth of America's peace-loving mission. The earliest settlers considered the "pagan Indians" as a culture we were obliged to "civilize." Throughout the 19th and 20th Centuries, America viewed neighbors like Canada and Mexico, along with distant lands like Panama and the Philippines, as places in which we had a manifest destiny to take charge. And so we did. And so we continue to do throughout the world in economic markets we deem essentials. Surely America has brought these societies enormous wealth (at least their ruling classes) by our consumption of their resources. At the same time, though, we have often imposed our geopolitical Yankee will on them to enrich our economy and to spread our vibrant capitalist

system to the four corners of the globe, always claiming we are a peaceful country wishing to conquer on one. When you see yourself this way, it's not easy to retreat back into your own part of the world. The question becomes: Will our international presence systematically breed more and more anti-American terrorism, and is it worth the cost?

If the great myths of our history have helped sweep us to the pinnacle of historic greatness, how do we interpret or reinterpret these mythic forces in today's highly charged, anti-America world?

<이글의 필자는 Jack Spatafora이며 시카고 트리뷴 2002년 7월4일자에서 전제>



造物主의 暗示

노인규(의대 52입)

조물주께서는 우주를 만드시는 가운데 이 지구도 만드셨다. 이 지상에서 인간들이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신 다음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조물주께서는 인간들에게 고차적 지능을 주셨고, 각종 재주를 부릴 수 있는 신체적 구조도 주셨으며, 또한 부딪힌 문제들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 이와 같은 지능과 몸과 지혜를 각 사람에게 주셨으며 또한 그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허락하시는 것 같이 생각된다. 사람들은 그 지능과 몸과 지혜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일들도 하고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다. 서로 힘을 합쳐 잘해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기도 한다. 어떤 좋은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활동들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즐거운 사회생활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침을 조물주로부터 얻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것이다.

지상에서 사는 인간들의 즐거운 사회생활을 위하여 조물주께서 내려 주시는 그 지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조물주의 창조원리에 따라 지음을 받았을 것이고, 그 속에는 조물주의 뜻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를 향한 조물주의 암시적인 뜻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조물주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의 다섯 감각기관을 통하

여 느껴보자. 자연의 아름다운 모양을 눈으로 보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개인 날의 하늘은 푸르게 보이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하며 움직이는 구름, 무지개를 앞세우고 그 배경을 장식하는 구름등의 모양은 아름답다. 밤하늘의 크고 작은 빛나는 별들, 손살같이 달리는 별, 움직이는 옅은 구름에 살짝살짝 그 얼굴을 가리는 달 등의 모양은 아름답다.

눈에 덮인 산봉우리, 갖가지 모양의 바위들과 나무들이 함께 뒤섞여 조화를 이룬 산, 들에 핀 꽃들과 호수면에 비친 나무 그림자, 계절 따라 다른 모양을 나타내는 나무들, 작은 가지들에 내린 눈으로 피어난 눈꽃, 맑은 개울물,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관의 폭포수, 유유히 흐르는 강, 넓고 풍부한 바다, 높고 낮은 파도와 물보라 등의 모양은 아름답다.

자연의 좋은 소리를 귀로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천둥소리, 소낙비가 내리며 땅이나 바닷물에 떨어지는 소리, 강하거나 약한 바람이 크고 작은 나뭇잎들을 스쳐 지나가며 내는 소리, 개울물의 흐르는 소리, 폭포수의 떨어지는 소리, 파도소리, 하늘을 날아가는 철새들이 서로 대화하며 지저귀는 소리, 저녁이 되어 모여든 새들이 재재거리는 소리, 짝을 찾는 듯 부르짖는 곤충들의 노래같은 소리들은 듣기 좋다. 그 소리들을 한데 모아 그 화음을 들어본다면 더 좋을 것이다.

자연의 좋은 냄새를 코로 맡으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산에서 심호흡을 하면 신선한 공기와 함께 나무와 풀냄새가 호흡기를 드나들며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여러가지



종류의 꽃들이 풍기는 갖가지 향내들은 참으로 좋다. 바닷가에 서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면 바다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자연이 주는 좋은 맛을 혀로 맛보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여러가지 종류의 과일들과 야채들의 맛은 참으로 좋다. 깨끗한 샘물의 맛은 좋고, 깨끗한 바닷물의 맛은 짭짤하다.

자연이 주는 좋은 촉각을 피부로 느끼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따뜻한 햇빛을 쬐이면 기분이 좋다. 따뜻한 바람이나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피부를 스쳐가면 기분이 좋다. 여름에 깨끗한 개울물에 발을 담그거나 깨끗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면 시원한 맛에 기분이 좋다.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어깨나 등에 맞을 때의 촉감, 귀여운 동물들의 털을 손으로 만져볼 때의 촉감 등도 좋다.

조물주께서는 자연의 아름다운 모양,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맛, 좋은 촉각 등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사회생활도 우리의 다섯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극들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향으로 살아갈 것을 암시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둘째로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섯가지 필수요소, 즉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땅, 물, 공기, 중력과 태양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땅은 우리 인류에게 식량을 제공하여 주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온갖 자재들을 제공하여 주며, 또한 그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여 준다. 물은 우리 인류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바닷물은 우리에게 각종 해산물을 제공하여 주고 강물과 더불어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 주기도 한다. 공기는 우리 인류에게 호흡하며 받아들여야 할 산소를 제공하여 주고, 시원한 바람이나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 준다.

중력은 우리 인류가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생활에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용품, 그리고 땅 자체 등이 지상에 머무르게 하여준다. 태양은 그 광선을 지구에 비추어 주어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주며, 또한 인류의 생활에 필요한 농산물과 식물이 땅 위에서 자랄 수 있게 하여준다.

조물주께서는 이 다섯가지 필수요소의 은총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종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종교의 유무나 종류에 관계없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필수요소의 은총을 공평하게 받으면서 살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물주께서는 이와 같은 공평의 원칙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 주시면서,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생활에 공평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암시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세째로 조물주께서 인류의 남녀수의 구성비를 어떻게 조정하시는지 살펴보자.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하여 잡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질 속에 남게 된다. 이 정액 속에는 아주 많은 수의 정자가 들어있는데, 이들 정자는 남성정자와 여성정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수는 서로 비슷하다. 질 속의 정

자들은 꼬리를 흔들면서 이동하게 되는데, 우선 자궁경부를 통과하여 자궁내로 들어가고, 다시 자궁내벽을 기어올라가 수란관 속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 시기가 마침 그 여자의 배란기에 해당된다면 그 수란관 속에는 살아있는 난자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난자와 정자는 만날 수 있게 된다.

많은 정자들 중에서 단 하나의 정자만 난자 속으로 들어가 서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난자가 하나의 정자를 받아들일 때면 곧 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일으켜 더 이상의 정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수정란이 된다. 이때 난자가 남성정자와 결합하게 되면 남성 수정란이 되고, 여성 정자와 결합하게 되면 여성 수정란이 된다. 난자가 남성정자와 결합하느냐 또는 여성정자와 결합하느냐 하는 기회의 확률은 양쪽이 각각 반반으로 같다.

수정란은 이동하여 자궁 속으로 들어가 착상하여 자라게 되며, 일정기간의 임신기를 지나 아기로 태어나게 된다. 남성수정란으로부터 자란 경우에는 남아로 태어나고, 여성수정란으로부터 자란 경우에는 여아로 태어나게 된다. 난자가 정자와 결합하여 남성 수정란이 되느냐 또는 여성수정란이 되느냐의 확률이 같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 또는 세계의 전체 인구의 남자 수와 여자수의 구성비를 보면 거의 같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의 조화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일대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물주께서는 이와같은 남녀 수의 조화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면서, 한여자에 한 남자, 한남자에 한 여자의 원칙을 잘 준수하여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라는 암시를 주시는 것같이 느껴진다.

健康 음악회

方恩鎬(약대 45년졸), 明泰鉉(공대 50년졸) 동문 熱演

평의원회 기간중 있는 관악후원의 밤 만찬장에서 노익장을 자랑하는 두 동문이 평소 연마한 음악실력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을 동문들에게 전수하였다. 이날 만찬회의 일정이 끝날무렵 작은 餘興 순서를 특별히 요청한 워싱턴 DC의 方恩鎬(약대 45년졸, 사진 1의 왼쪽서 3번째) 동문의 치매 예방 비법인 피아노 독주가 있었다. 方 동문은 80수를 바라보는 지금도 "바이에그라"가 필요없는 정력

유지의 비법으로 매일 50회의 팔굽혀펴기와 50회의 Back Bending을 하고 있다고 자랑한 후 그는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피아노를 매일 10분씩 연습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연마한 실력으로 쇼팽의 Fantasia Impromptu (Op. 66)을 약 2분간 연주하여 청중들로부터 열렬한 갈채를 받았다. 또 앵글로 로렐라이를 악보 없이 연주하여 참석 동문들을 감탄케 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온 순방단원 중 최고참 선배인 明泰鉉(공대 50년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사진 2)은 평소 노래방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과거를 묻지 마세요"(황금심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았다(사진 3).

사진 1



사진 2



사진 3



就任辭

정정수 미주외대 동창회장
(의대 62년졸)

한분 한분 존경하는 동문님
지난 1월 Palm Spring 우리 동창회 Winter Convention 참석하는 비행기 안에서 도을 김용욱 선생 중용 강문책 읽는 중에 다음 글을 보고 인용합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지 못한 놈들은 평생 이등국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못 들어가면 평생 이등이지요. 나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회복될 길이 없어요. 창의력과 서울대의 문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입니다."

전쟁 후 황무지 같이 열악했던 교육환경의 모교, 지금도 경직된 국립대학으로 세계 우수 대학과의 비교 평가 등으로 각성논란이 일고 있지만 주어진 환경, 주어진 시점에서 우리 동문들에게 한국 일등국민, 일등 지성인으로서의 기초 훈련과 훈장을 평생 지니게 해준 서울대의 동창임을 여러분과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확신합니다.

동창회의 중요기능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발전도모, 모교 발전과 훌륭한 후배육성으로 사회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재미 의대 동창회는 앞으로 대다수의 회원들이 은퇴를 하고 노령기에 접어들고 극소수 젊은 후배들이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변신 대처해야 동창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가까운 훗날 동창회가 꼭 퇴직을 해야 할 운명이 온다면 어떻게 명예롭게, 보람있게 값진 무엇을 남기겠는가 하는 문제로 동창 여러분의 중지를 모을 때가 왔습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노력으로 모교를 도울 수 있는 분, 훌륭히 된 우리 2세들의 부모님, 모교,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봉사 등을 원활히 중계해 주는 역할 등을 전 동창회 회장님이 본국 학장님과 동창회장 간에 상의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계획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 이미 은퇴를 하신 동문들과의 정보 교환을 좀더 시계잡이나 동창회 사무실, Website를 통해서 활발히 교환해서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유쾌한 은퇴생활이 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학술 대회에 방문하신 모교의대 학장님 말씀에 지금 모교의 등록금은 사립대학 수준과 비슷하고 장학금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후배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껏 도와주도록 해야겠습니다.

나는 많은 다른 학교의 신문들과



책들을 읽지만 우리 서울대 동창회보 시계잡처럼 반갑게 읽고 유익한 내용들은 드물게 봅니다.

편집부의 부당한 수고, 모두 명석한 두뇌의 동창들이 세계제일의 다양한 사회환경에서 얻은 경험들을 서로 솔직히 나누고 있으니 공감 가는 주옥같은 글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문 여러분들의 더 좋은 글들을 나누어 가지기 바랍니다. 목향회비등 여러 수습가지 회비를 내다보니 동창회를 잊어 버렸다고 하시는 동문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왼손 오른손이 서로 모르게 살면 더욱 이상적이지만, 신문에 이름석사, 세금공제등 현실적으로 해도 유익하고 뜻있는 일에 쓰게 되어 적어도 우리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재정곤란으로 문을 닫는 것보다 나으니 많이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If I am not for my self, who will be for me?

When I am only for myself what am I?

When I am only for myself what am I?

If not now when? (Mishnch Avot 1:14)

그리고 다가오는 동창회 행사를 안내해 드리면, 12월 21일 토요일에는 뉴저지의 Fort Lee 대원에서 우리 연말 송년모임을 가집니다. 맛있는 음식과 우리 정서에 맞는 한국밴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모두 나와 주셔서 반가운 얼굴들과 하루저녁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7월 2일~6일에는 메릴랜드 발티모아 교의 Thuf Valley Resort Hotel에서 SNUCMAA Summer Scientific Convention이 열립니다. 동부 중부 웬만한 곳에서 자동차로 올 수 있고 워싱턴 수도, 발티모아 수족관, 듀폰 맨션, 롱우드가든,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버지니아 루레이 동굴 등 볼거리도 많고 주위에는 한국식당, 체사피크만의 해산물과 독특한 양념의 blue crab의 계절이고 세계의 골프장도 새로 단장해서 샷견을 할 수 있으니 오래 기다리는 패턴이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선배 후배님 가정에 축복과 건강을 빌고 무겁고 영광스러운 짐을 진 저에게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재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 鄭正壽

감미로운 사랑의 Concert!

소프라노 이수정, 테너 김영석, 피아노 이소정 동문

미국내의 음악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 세 동문 음악도가 출연한 음악회가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2002년 6월 15일 토요일)가 끝난 후 열려 미주 각지에서 참석한 동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음악회는 소프라노 李修晶, 테너 金榮錫, 피아노 李昭廷 동문이 무거운 주제의 강연과 연설, 인사말 등으로 자칫 지루해 지려는 만찬장에 참석한 동문들을 이날의 피로를 말끔히 풀고 옛 학창시절의 낭만속으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 음악회는 저녁 9시에 시작되었는데 이날 피아노 반주를 맡은 이소정 동문이 사랑을 주제로 한 選曲에 대한 설명과 출연 동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 연주시작에 앞서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 동문들을 편안하게 하고 이 음악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소정 동문(음대 84년 입)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소프라노 이수정 동문(음대 88년 입)이 가곡 "그대 있음에"(김순애 곡) 1절을 무대 앞쪽에서 선창하고 이어 맞은편 테이블에서 테너 김영석(음대 74년 입)동문이 일어나 2절을 화답하여 열창하였다. 특히 이 곡은 시인 김남조 동문(사대 51년 졸)이母校 미대 교수인 부군 김세중 동문(예대 50년 졸)을 생각하며 작사한 것이라 동문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수정 동문이 Aria from Manon (Massenet 곡) 독창, Merry Widow (Franz Lehar)의 사랑의 듀엣 "I Love you so"를 두 동문이 열손가락으로 전하는 애절한 사랑을 노래하고, 독일에서 애창되는 Das Land des Laechelns (Franz Lehar)의 아리아 "Dein ist mein ganzes Herz"를 김영석동문이 "당신이 없는 나는 햇빛이 없이 시든 꽃과 같고..." 사랑을 호소하는 독창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페라 La Boheme(Puccini)의 사랑의 이중창 "O Soave Fanciulla"로 만찬장에 모인 남녀노소의 모든 동문들을 20대의 감정으로 몰아넣었다. 끝으로 동문들의 열렬한 박수와 앵콜신청으로 새타령(조두남 곡)을 이수정/김영석 동문이 듀엣으로 선사하였다. 두 동문들은 각 곡을 연주할 때마다 자연스러운 무대 바꿈과 오페라 동작으로 장내의 모든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음악회가 끝난 후 뉴욕의 오인석(총동창회 명예회장) 동문은 두 출연자에게 오페라 La Boheme을 여러 차례 보았으나 그 장면에 키스신은 없었는데, 어찌된 것이냐며 두 출연자에게 연유를 물어 웃음바다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날 공연된 곡들은 이수정 동문과 김영석 동문이 지난 봄 Virginia Norfolk State University에서 Bill Gates가 설립한 Minority를 위한 장학재단이 개최한 "소수민족을 위한 음악회"에서 초청 연주하였던 곡 중 그 일부이기도 하였다. 이날 출연자 소프라노 이수정(음대 88년 입학) 동문은 모교 음대 졸업 후 渡美하여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Merkin Hall, Lincoln Center, Carnegie Hall 등지에서 協演 및 독주회 등을 가졌으며 전문성악인들의 앙상블인 "Manhattan Singers"



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일리노이 음악대학의 박사과정에 입학, 모차르트의 Magic Flute, 하이든의 La Cante-rina, 레하르의 the Merry Widow 등 다수의 오페라主演과,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수차례의 연주회를 가졌으며 올 가을 졸업업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01년 가을부터 University of North Alabama의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후진양성에 힘쓰면서 Alabama, Virginia 등지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테너 김영석(음대 74년 입)동문은 University of Miami에서 음악박사 학위 (DMA, Doctor of Musical Arts)를 취득하였고, 1988년부터 현재까지 Pennsylvania에 위치한 Mansfield University에서 성악 교수 겸 오페라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다. Mikado, The Music Man, The Telephone, Forever Plaid 등을 포함한 15개 작품의 제작을 감독하였으며, 다수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에 출연하였고 Carnegie Hall, Kennedy Center를 비롯한 미국 주요 무대에서 독주회 및 이태리, 프랑스, 체코, 한국 등지에서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끝으로 피아노 반주를 맡은 이소정 동문(음대 84년 입)은 모교 음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리노이 음대에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호암 아트홀 등지에서, 미국 일리노이, 미시간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에서 솔로 및 실내악 리사이틀, 협연등을 가진 바 있다. 현재 시카고 교외 Elgin의 Judson College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이 동문은 시카고지역 음대 동창회 총무를 맡아 활동하면서 작년도에도 이 행사에 후배들과 함께 참석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였으며 8월 16일에 개최될 모교 음대 순회연주단의 시카고 공연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

제23대 鄭雲燦총장 인터뷰

“자신에겐 엄격, 타인에겐 관대한 모습 보여야”

대담 : 본보 南仲九(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논설위원

지난 7월 20일 모교 제23대 총장에 임명된 鄭雲燦(70년 商大卒)박사를 본보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논설위원과 李世震(73년 法大卒)편집주간이 만나 대학운영의 역점사항, 당면과제와 해결책 등을 들어보았다.

-제23대 총장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서울대 동문들에게 한마디 인사말씀부터.

『선거기간 중에는 정신없이 운동만 하다가 당선되니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웠습니다. 한 달 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떨쳐 겁이났습니다. 아무튼 미력하나마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약하신 대로 총장공관에 들어가지 않기로 하셨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아주 신선하게 비춰집니다마는 공관입주를 사양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선거 캠페인 중에 각 캠퍼스를 돌아다녔는데 비교적 여유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던 공대 교수들조차 무주택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총장공관 재개발이었습니다. 우선 총장공관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또 교수아파트를 다시 재개발하면 30평짜리 2백 가구 이상이 들어서리라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총장공관에서 각종 연회를 개최하고 해외 손님에게 숙식을 제공해왔는데, 건너편 호암생활관에 연회장과 게스트 룸이 많이 생겨나 과거와 같은 공관의 연회장 및 객실 유용성은 줄어든 것 같아서 결심했습니다.』

-현정권 출범직후 한국은행 총재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학자의 길을 가겠다』며 고사를 했고, 개각 때마다 금융감독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모두 거절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총장님은 개혁적 성향의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5명의 후보 가운데 최연소로 개혁적 성향을 지닌선생님이 최다득표를 하신 것도 학교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는



『서울대 위기론』에 따른 「변화요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4년의 임기 중 대학운영의 역점은 어디에 두실 생각이십니까. 기본구상을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우리 사회가 서울대에 요구하는 秀越性(excellence)은 과거보다 못하면서,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과거에 누리던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서울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연구, 교육, 봉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수월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연구측면에서 과거에는 외국

봉사면으로 보자면 서울대 출신들이 사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전수한다는 점에서 봉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건전한 사회비판 기능을 하느냐는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제철학자 중에 빌헬름 뢰프케(Wilhelm Röpkke)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휴머니즘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사회가 아무리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학자, 법관, 언론인만 확보하고 있으면 미래는 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자들이 나라가 어두울 때 좋은 건설적 비판을 함으로써 나라를

우리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학교 밖의 사람들로 부터 「서울대가 사회를 망친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교수님들이 이 과제를 젊은 사람이 맡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표를 찍어준 것 같습니다.』

-사회 일각에는 「反서울대」 정서가 없지 않습니다. 서울대 출신을 두고 「역시 우수하다」 「독불장군들이다」 「부러먹기 좋은 타입」이라는 비아냥도 없



지요. 총장님은 현행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재검토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책,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캠퍼스에서는 학생을 어떻게 뽑느냐, 모집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과별 모집, 계열 모집도 했지요. 지금은 광역화 모집이라고 해서 대학단위, 학부단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소단위들이 원하는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보다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능을 잘 봐서 들어오고, 어떤 학생은 내신이 좋아서 들어오고, 또 어떤 학생은 수능과 내신이 골고루 좋아서 들어오는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뽑았으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4천명 정도의 신입생을 뽑을 경우, 수백명 정도는 전국의 시·군 등에 안배를 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뽑으면 이 학생들이 서로의 생활배경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학업에 열중하여 다양한 사고와 연행을 하는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대나 프린스턴대의 예를 들면 각 주에서 적어도 몇명은 들어오게 합니다.』

-지난해 모교의 SCI 등재 논문 수 순위가 세계 40위에 오르

무주택 교수 위해 총장공관 이주 사양 연구·교육·봉사의 秀越性은 기대 이하

에서 개발되거나 축적된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충분했고 또 그것이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가 크게 성장하여 활발한 지식창출이 필요하나 지식창출이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측면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수들에 대한 평가를 연구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 예전에는 테크니컬한 지식은 덜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인성교육은 많이 했다고 본다면, 지금은 테크니컬한 지식은 많이 가르치는데 지성인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막스 웨버(Max Weber)가 예기한 「비지성적인 전문인」만 길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구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언뜻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또 서울대는 아주 심각한 불균형 속에 봉착해 있다는 것도 위기의 한 일면입니다. 큰 대학과 작은 대학, 잘 나가는 대학과 덜 잘 나가는 대학, 응용학문 분야와 기초학문 분야, 연건·수원캠퍼스와 관악캠퍼스간 등 여러 가지 의미의 불균형 상태 지속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서로 불만과 다툼대로의 충돌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서울대가 화합도 하나 못하는 대학이구나」 해서 과거보다 서울대를 덜 쳐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좋아진 것은 틀림없지만 다른 대학들도 좋아져서 사실 상대적인 위치에서는 과거에 서울대가 누리던 지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 않습니다. 모교가, 모교출신이 사회적으로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대가 과거에 비해서 절대적인 면에서는 좋아졌는데, 다른 대학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면에서는 과거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기에겐 엄격하고 타인에겐은 관대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감싸서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3대 요소가 학생, 교수, 재정입니다. 우수한 학생과 실력 있는 교수들이 다투어 모여들어 공부하고 연구하며, 거기에 충분한 재정이 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일류대학이 안될 수 없

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행정지원 등 연구여건이 세계 유수대학에 비해 아직 열악한 상황입니다. 총장께서는 『교수 복지기금을 만들어 연구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하셨는데 앞으로 연구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교수 연구여건 개선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어야 연구가 되는 것이지, 생활이 어려워져야 연구가 되겠습니까? 헤겔(Hegel)도 얘기했지만 배고픈 사람은 학문을 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무주택 교수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등 생활개선을 해준다면 집 걱정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 교수 복지기금을 마련해서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를 보조해 준다면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수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려면 결국 돈입니다.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없이 세계일류대학이 되겠다는 헛구호일 뿐입니다. 재정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고 하셨습니까. 정부예산을 많이 따오되 대학의 자율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까. 재정확충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립대학이기에 먼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으로부터 유치해야 하겠죠. 우선 서울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정도의 수월성을 보여 주면 정부도 설득하고, 민간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플랜은 없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원칙과 명예를 지키고, 또 서울대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1천억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관악캠퍼스 정문 앞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세계 유수대학 가운데 학교정문 앞에 고속도로를 만든다며 녹지를 없애고 터널, 고가도로, IC를 만든 사례가 또 있습니까?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내 민주적 의사소통체계 확립할 터 「교수 복지기금」 조성...생활개선이 우선

『서울시는 IC는 몰라도 순환고속도로의 연장선상에서 고가도로를 만든답니다. 세계에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법무법인을 통해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서울대의 집단이기주의로 몰릴 우려가 있습니다. 교외로부터의 이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통해서라든지,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여러 방법으로 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 학생, 주민 그리고 다른 대학교수들이 도와 주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때 중책을 맡으셨습니까. 학내분규 끝에 전임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둔 일도 그렇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모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대 총장은 분열된 학내 분위기를 추스려 구성원들을 단합시켜야 하고, 일부 구성원들의 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부터 먼저 원칙과 명예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행동을 바로 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소위, 민주적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한다면 이전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대학의 규모가 공룡과 같이 너무 큼니다. 학생이 3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하도록 하면,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축적되어 생기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이번 제19대 서울대 총동창회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신임 회장과 임원들은 모임 때마다 모교 돕는 문제를 화제로 삼습니다. 모교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동창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동창회에서 정말 훌륭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거신 것 같습니다. 동창회와 관련해서 말씀드

리하면 아무래도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동창회에서 매년 10월 개교 기념식후 일요일에 흠키데이 겸 등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대학과 달리 주변을 의식해서 모임을 자제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단결해서 당당하게

모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구조가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법대 중심으로 생각하자면 과거에는 고시에서 30명 내지 50명, 또는 1백명을 뽑을 때에 거의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고려대 전체로는 서울법대보다 많이 뽑을 겁니다. 단지 서울대는 법대뿐만 아니라 사회대, 자연대, 공대까지 사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서울대 전체로서는 고려대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듯 1천명을 뽑을 때 서울대 출신이 다 합해서 3~4백명 정도이고, 나머지가 타교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법조계에서 권력구조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서울대 출신들이 명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단결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지만 내실이 있는 한 서울대 단결 모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20만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약 령>

- △70년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졸업
- △76년 애플린스탄대 경제학박사
- △78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98년 한국금융학회 회장
- △00년 금융발전심의위원장
- △02년 서울대 사회대 학장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지만 내실이 있는 한 서울대 단결 모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현재 동창회에서 매년 10월 개교 기념식후 일요일에 흠키데이 겸 등산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와 教育

金煉錫 (상대 58년 졸, 뉴저지 州立킨 大學校 經濟學 教授)

오늘의 경제사회 교육은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근본적인 지침과 규율을 가르친다. 한국인의 긍지와 우수성을 전세계에 떨치고 시월스럽게 전시했던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도 규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었다. 교육은 사회 그리고 경제행위의 규칙을 터득시키고, 어떠한 것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개인의 선호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교육의 기능은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마음의 틀을 짜는데 커다란 작동을 한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세계수준의 인적 자원을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재미 한국인의 앞날을 밝게 보는 것도 지금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성을 보이고 있는 한인들의 자녀 교육 때문이다. 한국학생들 그리고 재미 한인 2세들의 학업의 성취는 세계 여러 나라 사회 속에서 선망이 되고있는 것은 바로 한국인의 교육열에서 찾게 된다.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서는 각종 학문은 좁은 분야로 세분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은 그 내부에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의 전문분야로 나누어져 있어, 같은 학문에서도 다른 전문분야를 전공하면서도 연구영역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흔하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생산기술의 전문화로 인해 막대한 학문 발달이 이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좀더 종합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졌다. 지식과 정보는 바로 그것을 창조해 낸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正)의 외부성을 가진다. 즉, 창의적인 사람의 아이디어는 그 사람이 전부 소유해 그 사람만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 논문이나 혹은 상품의 디자인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이들이 만드는 제품의 혁신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현대산업기술의 대부분이 여러 학문분야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형성되고 있는 추세를 생각한다면 교육을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며, 이것은 경쟁국인 일본이나 미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교육영역에도 누적적으로 영입되고 있다.

한국학문 수준이 아직 미국, 유럽, 일본에 뒤져 있지만 학문들을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는 교육은 우수한 인력을 낳는데 있어서는 한국이 오히려 선두에 설 수 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시대의 필요에 맞는 교육철학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들은 외국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교육의 상징이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결집된 서울대학교의 중요성이 보다 심층 깊은 의의가 있다. 서울대학교는 일반 사립 대학교와 차별화된, 한국의 지성의 상징이라는 사실이 그 특수성이다. 교육에 귀감으로 서울대학교가 시행해 나가는 교육방식은 한국 여러 대학교 그리고 고등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 직접 그리고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한국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서 서울대학교는

지대한 공헌함을 인정 받고 있다. 여기에서, 서울대학교 총장은 단순히 서울대학교 행정수반이 아니라 한국교육을 상징하는 위치라는 사실이다. 근간 서울대학교 전 총장의 외화내빈(外華內賓) 문제로 불명예 퇴진은 도덕성의 추락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의 지성의 권위 회복은 단순히 서울대인 문제를 넘어 한국 교육과 문화를 개혁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교육제도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삶의 보람을 찾게 해준다. 이번 새로 취임한 정운찬 신임총장은 변화한 시대에 필요한 진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스럽다. 민주적인 원칙과 선비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정 신임총장은 교육에 개혁을 통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정보혁명, 자본과 상품시장 개방, 국토 통일 등과 같은 굵직한 일들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은 양질의 문화와 좋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실로 백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김일훈(의대 57 졸)



자연사: 최장수명(MLS)은 연장불가

20세기 초반의 미국인 평균수명은 47세였던 것이 현재 77세가 되어 30년이나 연장되었다. 학계의 추정에 의하면 인간의 평균수명은 과거 몇 천년간 20세 내지 30세 미만이었으나 19세기 중엽부터 문명사회에서는 생활개선으로 40세 전후로 향상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사람은 평균적으로 80세까지 장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면 "인생 70 고래희(古來稀)"는 옛 말이고 지금은 "인생 70 근래다(近來多)"시대가 되었다. 현재 질병의 80%는 지구상에서 제거된 셈이며, 정복되지 않은 나머지 20% 질병은 주로 노인병에 속하는 심장혈관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인간의 건강과 노인생활에 혁명을 가져다준 첨단과학은 인간이 자연사(自然死)하는 최장수명(MLS = Maximum Life Span)을 무한정 연장시킬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자연사에는 주어진 한도가 있고, 어떠한 초인적인 과학의 힘으로도 이것만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우주의 철칙이다. 이것은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것이며, 종교적으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좀더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생물세포의 homeostasis(항일성 恒一性) 유지기능에는 한도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50대 이후의 동맥경화증과 만성질환의 예방치료가 가능해진 현실에서도 인간은 MLS이전에 사망해야하니, 결국 인간의 자연사 원인은 질병이 아니라, 생체능력의 쇠퇴 즉 homeostasis를 유지하는 기능상실 때문에 죽는다. (Dr. Leonard Hayflick). 우주와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인간의 지능은 무한정 하다지만 MLS 연장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옛사람과 현대인은 평균수명이 다를 뿐이고, 최장수명은 동일하다는 말이다.

인간이 자연사 할 수 있는 최장 연령은 100세 전후가 한계이며, 올해(2002년)의 기네스 북에 기록된 세계 최고령자는 1889년 3월 태생인 113세의 일본남자(이름: 주간지 中願寺)이다. 그리고 세계최장수 기록은 1997년 122.5세에 사망한 프랑스여자 칼멘(Jeanne Calment)이고, 남자가 기록은 1986년 120.7세에 사망한 일

본인 이즈미(泉)이며 그는 105세까지 일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엔 100세 노인이 51,000명이나 된다.

여기서 특기할 일은 첨단과학으로 인간의 평균수명만이 급증했다는 것뿐이다.

병 없는 건강한 일생을 탈없이 살다가 100세라는 인간의 한계점까지의 장수가 30세 평균수명시대인 옛적에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고대역사상 명인가운데는 80-90대 인물들도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시대에도(B.C. 400년 경) 83세의 장수를 누렸다고 전한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역사인물 중에도 장수인이 여러 명 있다. 6백년 전 세종대왕시대 조선역사상 가장 오랜 영의정을 역임한 황희는 90세, 다음 송시열은 82세 그리고 정다산은 75세에 타계했다. 요즘 인기드라마의 주인공 대원군은 78세까지 살았다. 이처럼 의학 혜택이 없던 옛날에도 늙고 늙어서 예사로 80대에 가서 생애를 마친 노인들이 드물지 않았으며, 그들은 자기보호와 섭생을 잘한 노인이었던 것이다.

어떤 동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각 포유류(哺乳類)는 고유의 MLS이 정해져있으며, 그들 수명은 대체로 체중 및 뇌 무게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인간의 MLS가 100세 전후인데 비해 인간 무게의 원숭이는 30년 정도이다.

동물세계에서는 생식의무를 끝내면 후손을 위해 죽기로 숙명지어져있다고 하며, 늙은 동물은 있을 수가 없고 갱년기라는 것도 없다고 한다.

동물은 병이 들거나, 나이 먹어 눈이 잘 안보이거나, 다리가 약해 지거나 이가 빠지면 바로 굶어죽든지 다른 야수에게 잡혀먹기 마련이다. 이렇듯 동물들은 노쇠현상이 나타나는 즉시 수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생식활동이 끝나는 시기에 죽는 것이 후손을 도와주는 방도라고도 하겠

다. 즉 생물학적 견지에서 보면 늙은 동물은 존재할 근거를 잃은 무용지물이며, 물건으로 치자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잉여기간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동물세계에서 어린 새끼는 잘 보호하지만, 늙은 동물(노부모)을 보호하는 일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인간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현대인간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어도 과학과 의료발전이 힘입어 보증기간을 인간에게 주어진 MLS까지 되풀이 연장할 수가 있다는 점이 동물세계와 다르다.

원시시대에도 집과 난방과 자기 보호의 무기가 있어 한 집단인 남녀노소의 생명보호가 가능했다. 자연과 싸우면서 생명을 보존했던 것이 원시인간의 "자연생명"이라면, 현대인간은 과학과 의료기술이 만들어낸 "인공생명"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인류역사상 평균수명은 원시시대(30세 미만)부터 20세기 초반(50세 미만)까지 몇 천년사이에 겨우 20년간 연장된 셈인데, 인류역사의 짧은 기간인 지난 1세기동안 평균수명연장 30년이라는 기적을 성취한 셈이다.

인간과 노화현상

급성 질병정복으로 지난 세기부터 대다수인간은 노년기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간노화의 시작은 명확한 경계선이 없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과 발육(Growth and Development)과정을 거쳐서 성인으로서 활동을 하게되며, 사회적으로 40내지 50대 장년기가 가장 활발한 활동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사람의 노화는 생리적으로 어떤 일정한 시기적 특징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다가오고, 그 시기와 현상이 각 장기와 각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르다.

노화현상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시대와 지역, 각기 생활습성,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표현

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백인은 동양인에 비해 노화가 빠르다면, 한국본토인은 미국교포에 비해 더 노숙하게 보이는 것이 옳은 예라고 하겠다.

노화현상이 총괄적으로 어느 시기에 시작하는가하는 정설은 없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장년기(40-50세)가 노화방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기일 것이다.

그래서 40-50세 장년기부터 구체적인 노화예방책을 강구하면 MLS(평균 80-90세, 최고 100세 전후)까지 수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주변에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유럽과 미국인은 물론 동양인의 2001년도 평균수명은 표 1과 같이 80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인간수명의 최장한계선(MLS)이라 할 Centenarian(100세인. 다음 장에 논함)도 최근 급속도로 증가했다. (표 2).

평균수명이 천천히 늘어난 고령화사회

지난 100년 사이에 선진국의 평균수명은 30세가 증가하였다. 19세 말까지 인류역사 5천년간에 평균수명연장이 20년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숨에 30년 수명연장을 이룬 불가사의의 20세기에 태어난 우리는 참으로 복을 타고났다고 하겠다.

선진국가에서 20세기 초(1900년)의 사망원인은 거의 전적으로 전염병을 주로 한 급성질환이었고, 표1-1의 맨 위의 평균수명선(From Birth)에서 보듯, 이러한 질병이 퇴치됨으로서 1950년부터 선의 상승이 낮아져서 선의 "직선화"에 근접했다.

유아사망률 감소, 항생제와 면역학에 의한 전염병퇴치, 그리고 최신의료기술과 치료법 덕분에 20세기 전반(1900-1950)의 평균수명은 20세(47세부터 67세까지)나 연장했다가 다음 주춤했다(표 1-1 참조).

<표 1> 평균수명(WHO 2000년)

한국	75.4(남71.7-여79.2)
미국	76.8(73.8-79.7)
스웨덴	79.5(77.1-81.9)
일본	80.9(77.6-84.3)
오키나와일본인	81.2
중국	69.7(68.1-71.3)
홍콩중국인	79.1

<표 2> 2000년도 Centenarian(100세인)총수 (괄호안은 인구 10만명 당)

미국	51,000명(*19.0)
한국	2,221명(4.8)
일본	15,475명(12.4)
오키나와	427명(33.6)

* 100세인은 미국이 일본보다 많음(다음 장에 논함).

이 기간에 급성질환이 정복되고 다음 만성질환으로 대체되었으며, 미국의 3대 사망원인은 심장질환과 암과 뇌혈관질환이고 한국도 순서가 다를 뿐 마찬가지로 노년기 질환이다.

1990년대에 들어 주로 예방과 생활양식개량으로 만성질환이 감소됨에 따라 수명이 더 연장되었으니, 금연과 운동과 음식조절, 그리고 이상적 체중유지 등이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오늘날의 의학은 급성이 아닌 만성질환, 병의 치료보다 만성병 예방, 노인병의 완치보다는 연장, 병 없는 기간보다는 삶의 질(QOL)이 있는 기간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며 그렇게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평균수명증가가 주춤했다가 다시 10세(67세부터 77세까지)가 올랐다. (참조: 표1-1의 맨 위의 선-From Birth).

20세기 후반에 서서히 이론 평균수명 10년 연장은 생활습성 예방으로 성취한 결과라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75세까지 장수한 노인의 잔여수명은 100년 전(1900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표 1-1에서 보듯 맨 아래 From Age 75의 점선은 평탄한 직선이다. 이 직선이 뜻하는 바는 급성질환을 모면하고 섭생을 잘하여 노화현상이 적었던 옛날노인은 현대장수노인과 다를 바 없이 오래 살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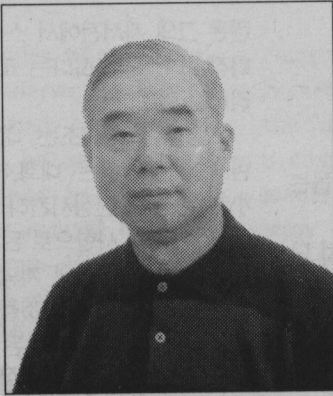
미국인수명의 연대별 통계표를 보면 80세까지 장수한 미국남자는 120년 전(1880년)에는 평균 6.8년 더 살수 있었는데(잔여수명이 6.8년), 107년 후(1987년)에는 80세 노인의 평균 잔여수명이 그때와 다를없다 할 7.0년이다. 다시 말하자면 섭생을 잘했던 극히 일부의 옛날 80세 노인들이나, 허다한 현대 80세 노인들도 죽는 시기는 비슷하다.

<15면에서 계속>

누구나가 한번은 늙는다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박경민(의대 53입)



얼마전 20여 년 가까이 필자의 지인이었던 이 고장 모교회 L장로님의 회갑연에 초대되어 간 자리에서 C목사님의 '가시로 막고 막대로 쳐도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는 설교말씀을 들으면서 '年年歲歲花相以 歲歲年年人不同(해마다 피는 꽃은 다 그 꽃인데 해마다 나이 먹는 사람은 같은 사람 아니네)'라는 어느 唐詩의 한 부분이 떠올랐다.

그날 회갑을 맞이한 L장로님은 미국에 이민 온 후 거의 30년을 열심히 뛰고 성실하게 일하여 아메리칸드림을 이룬 전형적인 이민 모델 케이스이다. 필자 또한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감개 무량하고 흐뭇한 마음을 감출 길 없었다. 그러나 L 장로님이 답사하는 동안 머리가 반백이 되고 이제는 손자손녀까지 둔 초로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며 만감이 교차했다. L 장로님도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으니, 諸行이 無

常함을 어찌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나 그 나이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겨 보며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나 자신도 70년 가까운 지난날들이 비록 무한 속에 잘나에 지나지 않는 세월이었지만 인간으로서는 그리 짧지 않은 여정을 걸어 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 세월 속에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애음과 즐거움, 영광과 고난이 점철되어 있으며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나 자신은 언제까지나 늙지 않고 젊게 살아 있을 것 같은 착각과 환상이 무너지며, 늙어감을 애 아 하며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새기는 다음의 글귀가 생각났다.

奇言全歲系孺子 應憐全死白頭翁
此翁白頭真可憐 伊昔紅顏美少年
(들어라, 한창 젊어 얼굴 고운 사람들에, 반 죽은 백발 노인 부디 가여워하라. 늙은이의 이 백발이 참으로 가련하나 옛날에는 얼굴

고운 미소년이었느니라)

60을 지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좁은 문'의 작가인 앙드레 지드는 사람은 아름답게 죽는 것 보다 아름답게 늙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다. 아름답게 황혼기를 보내는 이들은 바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며 은 사람 못지 않은 정열과 삶의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생의 연륜이 만들어 낸 원숙한 경지의 삶을 일궈감으로써 노년의 생활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60세까지 생존한 남성은 20년을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므로 이 20년의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각자

의 인생을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짧은 인생을 애닦아 하기 보다 이웃을 위해 또는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뜻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의 몇가지 사항들을 실천해야 노후를 더욱 보람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첫째는 건강하고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좋은 벗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생활을 지속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주위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찾아보는 것이다. 어떤 90가까운 노인은 자신의 거동도 불편하면서도 노인 보호시설에 가서 하루에 2-3시간씩 노인들의 휠체어를 밀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봉사과 사랑의 정신이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는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을 일상 생활에서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때 노년기를 받고 즐거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울하거나 슬픈 일 또는 고민에 빠질 때는 사무엘 울만의 다

음 글들을 상기하여 마음속에 다 시금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으면 한다.

青春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닌 마음에 존재하는 것,

때로는 스무살의 청년보다 예순의 노인에게 청년이 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을 때 비로서 늙기 시작한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정열을 잃으면 마음은 젊어진다.

사람에게서, 神에게서,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힘의 영감을 부여받고 있는 한 너는 젊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파도를 붙잡는 한 여든의 나이라도 青春은 시작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머리를 높이 들어 희망의 파도를 붙잡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노년의 우울증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황혼기의 인생을 더욱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다.

<14면에서 계속>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대과학의 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최장수명은 일정하다. 따라서 고령화시대의 노년기의료는 노화방지와 생활습성병 예방에 주안(主眼)을 둘 것이며, 노인들은 기동이 힘든 골방노인이 되지 말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속하며 보람있는 잔여인생을 살아가게끔 유도하는 것이라 하겠다.

고령화시대의 이상적인 죽음

위의 사실을 유의하고서 노년기 인생사에 최선을 다하다가 때가 오면, 즉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에 이르면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이상적인 인생종말일 것이다. 노력해서 성취한 "인공생명"을 끝까지 살다가, 마치 1년생 식물(植物)의 일생과 같이 시기(MLS, Maximum Life Span)가 오면 일제히 인생을 하직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의 이상적인 인간상일 것이다.

1백년 미만의 우리 인생은, 어느 시일에 이르면 갑자기 소멸하는 잔여인생임을 표1-2의 곡선커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보면 100년 전(1900년) 인간이 50세까지 살 수 있던 확률은 50%를 좀 넘었으나, 1980년 후는 근 100%가 되었다. 그리고 80세 까지 장수할 확률은 100년 전엔 10% 전후였고, 20년 전에는

35%에 불과했으나, 현재(Ideal)는 90%에 가깝다.

최근의 사망연령도 표1-3에서 보듯 전적으로 80세 안팎이다.

표1-2서 이전에는 연령별사망형태가 천천히 하강하는 경사곡선이었으나, 만성질환을 극복하고 자연사에 이르는 현재는 7자형의 급전직하하는 곡선(rectangular survival curve)을 이룬다. 장차 이 곡선형으로 죽는 것이 이상적이라 해서 이를 "Ideal곡선"이라고 부른다. 이상적 사회여건에서 자연사하는 연령은 이 곡선에서 보듯이 85세에서 멀지가 않다.

Ideal 곡선커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는 노년기만성질환을 극복하며 오래 살고 나서 "직각하락"하는 종말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이다.

최근 사망한 영국여왕 모후는 101세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마지막 순간(MLS) 잠자면서 숨을 거두었다. 사망할때 전에 먼저간 딸 마가렛 장례식에도 지팡이를 잡고 참가했던 그녀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연사라 하겠다.

20세기 후반부터 주로 섭생이라는 각자의 노력으로 연장된 노년기의 "인공인생"을 즐기다가, 때(MLS)가 오면 미련도 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라는 뜻이 담겨있다.

벚꽃과 같이 끝까지 피었다가

때가 오면 하루아침에 일제히 지는 듯 하라는 말이다.

활동을 장려하는 노년기

문제는 고령화사회가 아무리 길어도 MLS이라는 한계선이 있음으로, 노인들 수는 어느 정도 늘다가 멈추게된다. 만성질환과 노화현상을 막음으로서 활동하는 노인, 사회에 도움 주는 노인층이 증가함으로써 사망직전까지 사회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노령기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즉 어두운 고령화사회를 밝은 사회로 만드는 길은 노년기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있다.

과거에는 간호 받고, 음식도 먹여주고, 보호만 받던 삶이었으나, 앞으로는 여기서 벗어나 독립생활하며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고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다방면의 활동으로 자아성취도 달성하는 노령기 사회를 기대해본다.

현 미국노인은 법적으로 은퇴연금과 노인보험혜택 받는 65세부터 시작이나, 앞으로 10년 내에 67세로 연기될 전망이다.

일본은 의료보험법 개정에서 특별혜택 받는 노인연령을 종전의 70세 이상에서, 2003년부터 75세 이상으로 올렸다. 75세까지 건강한 노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물건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 듯이, 심장, 폐, 근육, 관절 등 인체장기도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화 즉

기능장애가 빨리 온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많이

사용함으로써 닳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최신의학의 개념이다.

그래서 심장전문의는 "앉아만 있지 말고 달려라", 그리고 관절전문가는 "쓰든지 읽든지 알아서 하라"는 경고를 한다.

암의 예방에 있어서도 2002년도 미국암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운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있다.

운동(활동)은 건강음식 및 이상적 체중유지와 더불어 동맥경화와 암을 예방하는 3대 요소로 오랫동안 지적돼왔으며, 특히 21세기부터는 3대 요소 중 첫 번 서열로 손꼽혀왔음을 알린다.

2002년도 AMA의 국민건강을 위한 결의문 내용에도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적 노년기는 옛날의 골방인생에서 뛰쳐나와, 야외의 활동적인 삶을 즐기므로서 건강수명 마지막까지 달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편집자주> 필자는 한국의사평론가며, 이 글은 한국의 의학신문(www.bosa.co.kr)에 연재중인 글<고령사회의 노인>의 서문임. 14면의 사진은 필자와 부인 윤병혜동문(약대 54년 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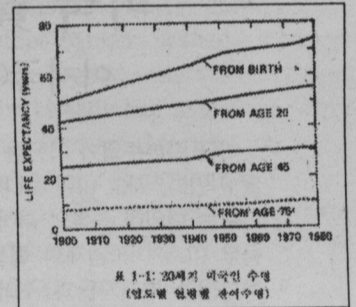


표 1-1: 20세기 미국인 수명 (연도별 연령별 잔여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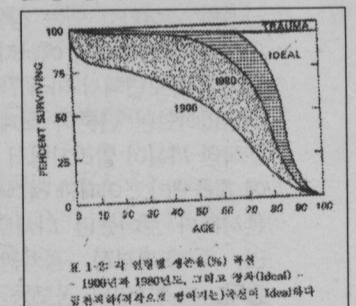


표 1-2: 각 연령별 생존율(%) 곡선 - 1900년과 1980년도, 그리고 정자(Ideal) - 임전직하(적각으로 떨어지는)곡선이 Ideal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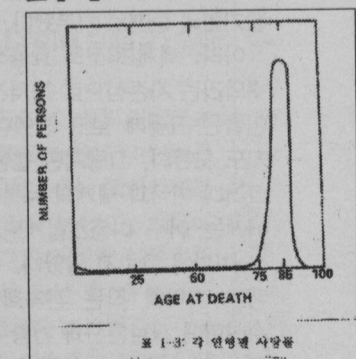


표 1-3: 각 연령별 사망률

<위의 도표 1-1, 1-2, 1-3은

NEJM, Vol 303 No 3 의 Dr. James Fries의 논문에서 인용한 것임.>

프랭클린의 생활신조

李泰相 (문리대 59년졸)

미 독립 기념일을 맞아 우리 재미한국 동포들도 미국건국의 국부 가운데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열세가지 생활 신조를 음미해봄이 어떨까.

1. 절제: 몸이 동하도록 먹지 않고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다.
2. 침묵: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덕담이 되지 못할 말은 아니라고 쓰잘데 없는 잡담은 하지 않는다.
3. 질서: 내 모든 것이 제 자리에 내 모든 일이 제 때를 찾도록 한다.
4. 결의: 내가 할 일 꼭 수행기로 결심하고 결심대로 이행한다.
5. 검약: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을 위한 일 말고는 비용을 쓰지 않기 곧, 아무 것도 낭비하지 않는다.
6. 근면: 시간을 아껴 언제나 유용한 일에 전념한다.
7. 성실: 남 속이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며 말은 정확히 한다.

8. 정의: 남을 해치지 않고 돕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9. 온건: 극단을 피하고 마치 당연하듯 더러 피해있는 일에 화내거나 반감을 갖지 않는다.
 10. 청결: 몸과 옷 그리고 집안을 늘 깨끗이 한다.
 11. 평정: 사소한 일이나 흔히 있는 또는 불가피한 사고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12. 순결: 건강한 삶과 생식을 위해서만 성욕을 채우고 결코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몸이 쇠약해지도록 색을 탐하지 않으며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녕과 명예를 손상치 않도록 한다.
 13.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도록 한다.
- 이상과 같은 고매한 신조를 갖고 산다고 우월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였을까 미국의 정치가, 과학자, 문필가로 미국의 첫번째 공공회원제 대출 문고와 소방서, 병원, 대학을 창설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자서전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겸손하다는 교만을 부러서는 안된다고.
- 프랭클린의 신조는 내가 거의 반세기 전에 읽은 '대화소고(對話小考)'란 글을 연상시킨다.
- 열 여덟 개 사항으로 된 이 경구들을 17세기 영국의 저명한 법률가 매튜헤일이 관한 것들인데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그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 이리라.
- 그 요점들만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1.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해친다
 2. 거짓말 비슷한 것도 하면 안 된다.
 3. 말은 적을수록 좋다.
 4. 높은 언성이 아닌 조용한 설득력으로 상대를 침묵시킬 일이다.
 5. 남의 말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야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의 말에 더 잘 대꾸할 수 있다.
 6. 말하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
 7. 사람마다 적어도 어느 한 가

8. 경거망동하는 사람 보거든 그를 거울삼아 네 언행을 조심하라.
9. 잘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말 하거든 그의 말을 믿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두고 볼 일이다.
10. 누가 제 앞에서 또는 내게 말 전할 사람에게 네 칭찬하거든 저 이솝우화에 나오는 까마귀 보고 노래 잘한다고 칭찬한 여우이 야기를 상기하라.
11. 자화자찬 제 자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널 칭찬해 줄 사람이 오죽이나 없으면 네 입으로 해야 할 지경이랴. 뿐만 아니라 남들기 지껄고 욕지기가 나는 일이다.
12. 기회 있을 때마다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좋게 얘기하지 나쁘게 말하지 않도록 하라. 다른 여러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거든.
13. 어떠한 경우에도 맹세도 과장도 하지 마라.
14. 남의 약점을 비웃지 마라.
15. 좋은 말은 벼를 만들고 나쁜 말은 적을 만든다. 벼는 말을 수록 적은 적을수록 좋다.

16. 미친 듯이 화내는 사람한테 너도 같이 화내지 말고 침묵이나 아주 부드러운 말로 대응하라. 이것이 나쁜 성질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인 동시에 가장 유효적절한 별로써 그로 하여금 후회하고 반성토록 해준다. 그리고 어떻게든 네 마음의 평정은 물론 네 인격과 명예를 지켜준다.
 17. 누가 네게 비상한 관심을 갖고 경의를 표하거든 너무 그를 믿지 마라. 그의 속뜻은 단 데 있을 지 모르니. 그의 속셈이 채워지지 않으면 너에 대한 그의 호의, 호감도 어느 틈에 사라질 것이다.
 18. 이 경구들을 자주 음미하고 따르노라면 네 판단력과 이해심이 늘어 네 삶이 날로 더욱 충만하리라.
- 이상의 여러 마디를 단 한 마디로 줄여서 동양적으로 표현한 것이 대도무문(大道無門)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에 담긴 뜻이 아닐까. 정말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 대도요 이런 큰 마음 海心을 갖고 출렁이는 바다에 무슨 문지체 문이 있으리오.

미국 資本主義의 몸살

이재국(자연대 94년 졸, 중앙일보 기자)

미국 자본주의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부정, 비리들로 인해 미국경제의 핵심인 금융시장의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현행 제도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몇 달전 세계최대의 에너지거래업체이며 규모면에서 미국 7위의 거대기업이었던 엔론이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순간에 침몰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엔론사태가 보여줬던 다채로운 비리, 즉 회계부정, 정치권력과의 결탁, 회계법인의 공모등은 언론과 아서 앤더슨이라는 단순한 개별기업의 문제로 치부됐다.

아니, 세계 최고의 효율적 자본주의라는 자존심으로 뭉쳐진 미국인들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일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그러나 미국과 세계의 보통사람들에게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사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작은 전자회사에서 수년만에 정보통신과 건강보험 부문까지 소유하는 엄청난 규모의 당초로 급성장한 타이코의 창업주인 데니스 카즐로스키가 탈세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창업 5년만에 통신업계의 총아로 부상한 글로벌 크로싱이 수십억달러를 차입해 시도한 투자

가 실패하면서 별안간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글로벌 크로싱이 회계장부상 매출기록을 높이기 위해 자산을 교환한 혐의를 조사중이다. 이렇게 주로 통신업체들을 중심으로 번지던 기업비리는 퀘스트 커뮤니케이션스를 거쳐 월드컴에서 절정을 이루며 투자자들이 그나마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신뢰의 거울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다.

얼마전 세계기업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며 파산을 신청, 결국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를 새로 쓴 월드컴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있지도 않은 이익을 38억달러나 부풀렸으며 창업자인 버니 이버스는 회사돈 3억8천만달러를 대출받아 자사 주식을 사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월드컴 이후로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다. 사무기업체 제록스가 5년동안 순이익을 14억달러 부풀렸다고 자백하더니 유니버설 영화사를 소유하고 있는 비엔디가 화염에 휩싸였다. 미국 6위의 케이블 TV 사업자인 아델피아 커뮤니케이션스의 창업주와 그의 아들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으며 회사는 파산을 신청했다. 통신업체의 불비랍은 제약업체에도 불어닥쳤다. 임클론이

개발한 암치료 신약의 승인이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기각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낸 창업자 샘 왓살이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전에 팔도록 해 내부자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또한 대형제약체인 머크와 브리스틀-마이어스 스킵, 일란이 회계부정과 불공정 거래 등으로 SE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합병을 통해 미국 최대의 미디어기업으로 올라선 AOL-타임워너가 SEC의 추궁을 당하고 있다.

市場이 돌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 기업비리의 썩은 호수 중심부에는 숭화가 자리한다. 인간의 파괴적 본성인 탐욕을 발전의 자극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자본주의는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개발한 회계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급속도로 썩어버린 것이다. 이에 비해 몇 개 기업에서 발견된 내부자거래(Inside trading)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보유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미리 감지한 창업자나 회사 중역들이 주식을 사전에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은 사후에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절한 대가(부당이익의 전부 혹은 그 이상의 벌금과 실형)를 지불하게 한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미국 회계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기업의 '공격적 회계'와 회계법인들의 '공범화'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사태는 극도로 심각하다. 지난 50여년동안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미국 회계제도의 원천은 그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곳곳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또 '회계감사'와 '경영자문(Consulting)'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회계법인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탐욕에 한번의 고민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앤더슨은 엔론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컨설팅 수입을 위해 물렁한 감사를 당연시했으며 나아가 어떻게 하면 법의 허점을 비집고 수익을 부풀릴 수 있는지, 이른바 '공격적 회계'를 '컨설팅'하면서 감사를 컨설팅 수입확보의 수단으로까지 삼았다. 회계와 함께 또 하나의 이율배반이 통용되던 곳이 투자은행이었다. 시티, 제이피 모건, 메릴 리치 등 이름까지 번쩍이는 듯한 은행 및 투자은행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구석을 내 보이고 있다.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해서 이익을 올리는 상업은행 업무와 기업들의 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과 인수합병(M&A)등을 대행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투자은행 업무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상충한다. 은행들은 수익 규모가 훨씬 큰 투자은행 업무를 위해 대출이자를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메릴 리치는 기업분석가(Analyst)들의 연

봉을 '얼마나 정확하냐'에 맞추지 않고 '회사가 투자은행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의 인기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연동시킴으로써 애널리스트의 타락과 거짓말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강요했다. 이러한 일련의 구조적 문제가 폭발하면서 야기된 시장의 신뢰상실이 가져오는 결과는 끔찍하다. 대중들이 현재의 복잡한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모든 신뢰를 거둬들일 경우 그 끝은 공황일 뿐이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시장과 의회, 정부는 앞다투어 온갖 조치를 개발하고 발표하며 신뢰의 벽이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최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권력이다. 부정혐의가 밝혀진 업체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통신과 제약, 에너지 기업들 가운데 특히 에너지 업체들은 계속해서 현 행정부와와의 관계가 거론되고 있다. 엔론 창업자등 책임자들이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과 구축했던 관계는 이미 유명하며 부시는 이사로 재직했던 하켄 에너지에서 내부자 거래를 통해 막대한 주식판매이익을 부당하게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체니는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석유회사 헬리버튼과 함께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소송까지 제기당했다.

<17면에 계속>

美國時論

Capitalism Depends on Character

When the late 19th-century counterparts of Enron, WorldCom and Global Crossing got into trouble, the investment banker J. Pierpont Morgan took over, allegedly growling at rogue managers, "Your company belongs to my clients."

The companies in question were railroads, which brought about productivity changes as revolutionary (and as lucrative) as those derived fro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100 years later. In the booming 1880's, 75,000 miles of new track were laid, more than in any previous decade anywhere in the world, and the capital invested in American railroads rose from \$2.5 billion in 1870 to \$10 billion by 1890. The size of private fortunes soared: railroad barons worth more than \$100 million in 1889 included Jay Gould, Leland Stanford and the heirs of Cornelius Vanderbilt.

The prospect of immense wealth led, as it does in all speculative bubbles, to overbuilding, fierce competition, widespread corruption and economic collapse. Wildcat

promoters sold worthless securities to eager investors with dollar signs in their eyes, or built shoddy roads parallel to existing tracks, hoping to force the older lines to buy them out. Buckle managers manipulated the securities of their own roads, plundered capital reserves, bribed politicians and formed bogus construction companies to charge exorbitant fees that they willingly paid - to themselves.

Often it was hard to tell good guys from bad guys: "Commodore" Vanderbilt and Jay Gould ran successful railroads using outlaw tactics. Government had neither the power nor the mandate to impose order on this chaotically growing industry. J. P. Morgan did - since he controlled its access to capital.

His firm raised funds for America's railroads by selling bonds and preferred stock abroad. The emerging United States economy did not have the resources to build enormously expensive roads, but foreign investors who had been rooked by profiteering pirates were not about to send more money 3,000 miles across the Atlantic without some guarantee that it would be safe. Morgan essentially provided that guarantee, choosing solid properties and taking what he called "moral responsibility"

for companies whose securities he underwrote. When a road he had backed went bankrupt, he and his partners stepped in, saying in effect "we control the company, or no bailout." The pattern of what came to be called "Morganization" involved scrutinizing every aspect of a railroad's operations, restructuring its finances, raising capital, settling lawsuits, firing managers, hiring new ones, appointing directors, and keeping vigilant watch over the company's finances, sometimes for decades, until solvency was restored.

Morgan had plenty of critics - he was a domineering plutocrat more concerned with building giant trusts and maintaining the international value of the dollar than with the struggles of American farmers and workers or the social costs of industrialization. Nonetheless, in a time of cowboy capitalism he was an honest broker representing thousands of widely dispersed stock- and bondholders who owned "new economy" railroads but had no effective control over the managers who ran them. In the course of his career he helped make American markets credible to foreign investors, kept the flow of capital moving east to west and transformed railroad securities from high-risk speculations into stable, long-term investments.

What the new new economy needs in the wake of recent scandals is a force

comparable to Morgan's. Someone has to stand behind the fundamental accuracy of a company's financial statements in a legally responsible way, but derelict auditors, executives and boards of directors have defaulted, either by design or inexcusable ignorance. A second tier of guardians - Wall Street analysts, rating agencie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failed to issue warnings of corporate deceit. As a result, foreign investors are no less spooked than they were in the 1890's, and American shareholders have flipped from euphoria to gloom. Excessive fear is choking off the market's access to capital, hurting sound companies as well as crooks - even

though the economy appears to be recovering and there are few attractive alternatives to American stocks. The evil-doers at WorldCom, Enron and company have done more

than Al Qaeda to undermine confidence in American capitalism. Not since the 1930's has there been such a shudder of revulsion against big business.

To some extent we're in the mop-up that inevitably follows market manias. (Referring to the boom-and-bust cycles of 19th-century America, John Kenneth Galbraith said that the intervals between panics corresponded roughly with the time it took people to forget the last disaster.) Potential chief executives are now doing rigor

onus due diligence before taking big jobs. Arthur Andersen is out of business, Enron is in court, WorldCom is toast. Punishing losses have made it clear that investing entails real risk. But the deposed miscreants made off with millions while company employees and ordinary investors were wiped out.

Treasury Secretary Paul O'Neill said recently that corporate executives who falsely certify company finances should go to jail - which sounds like a good idea, although white collar criminals can usually afford terrific defense lawyers. Capital markets do not work effectively unless people believe in their essential integrity. Investors will only take necessary risks if the game isn't rigged.

In today's vast, complex markets, no one can play J. P. Morgan, but a remark he made near the end of his life is worth recalling. Asked by the lawyer for a congressional investigating committee in 1912 whether bankers issued commercial credit only to people who already had money or property, Morgan said, "No sir; the first thing is character." The skeptical lawyer repeated his question and Morgan, in Victorian terminology, elaborated on his answer - "because a man I do not trust could not get money from me on all the bonds in Christendom."

<이글의 필자는 JEAN STROUSE 이며 2002년 7월7일 자에서 전재>

<16면 '미국자본주의의 몰살'에서 계속>

시장과 기업이 自淨기능을 상실할 경우 최후의 해결사로 나서야 할 정치권력의 최상층부가 부패한 기업 중역들과 다를 바 없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대중의 신뢰회복은 극히 힘들다.

이로써 미국은 그동안 한국등 아시아 국가의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즐겨 사용하던 '패거리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와 유럽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던 '평등주의(egalitarianism)'를 더 이상 거론하기 어렵게 됐다. 그 동안 안으로 燃燒하던 문제는 이제 밝은 햇살 아래 드러났고 그 결과 또한 있는 대로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제도로 자부하며 인류문명을 이끌었던 미국 자본주의가 이번 몰살을 어떻게 이길지, 또 새로운 모습은 어떤 것일지 대중들은 고통 속에 지켜 보고 있다.

訃告

李東燦 동문(미대 51년졸) 別世

1937년 10월 16일~2002년 7월26일

李東燦 동문(미대 응용미술과 61년 졸)이 지난 7월 26일 시카고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故 李동문은 1937년 10월 16일 부친 이학수씨와 모친 승기선씨의 9남매중 8번째로 평북 정주에서 출생하였고, 1961년 모교 미대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후 1965년 도미하여 Art Institute of Baltimore에서 Design을 공부하고 1968년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같은 해 부인 임효자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수영, 딸 진영, 은영을 두었다. 李동문은 1970년부터 Design Studio를 운영하여 Hammond Organ Co. RoyalCrown Cola Magazine, Dad's Root Beer, Home Juice Co. (Crain's magazine 소개) Art Designer로 활약하였고, 1978년 동아일보 시카고지사를 설립, 운영하였으며 1980년부터 Lee Graphic을 설립 운영하였다. 또한 李동문은 미술가로서 많은 수상경력이 있는데 1961년 이집트 상인의 풍경(Mosaic)으로 국제전에 입선하였으며 1969년 Design Award At Hammond Organ Graphic 그리고 1975년 Packaging Award At The Hewitt Association등을 수상하였다.

7월 28일 이동문의 영결식에는 林利涉 동문(미대 59년 졸)이 약력소개를 하였고, 한재은 시카고지역 동창회장이 보내 弔花와 함께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哀悼하였다. 재미 동창회는 유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訃告

이동진 동문(문리대 59년졸) 別世

- 59년 문리과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보스턴 근교 클라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오하이오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아태 제단을 창설 할 때 함류한 바 있는 이동진 박사가 최근 폐암으로 오하이오주의 한 병원에서 별세하였다 (이동진 동문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모교 직원으로도 근무한 바 있다). 연락처 937-208-1897

월드컵 축구와 대한민국

필승 축구의 집념을 민족사 변혁의 원동력으로!

육길원 (사대졸업, 시카고 언론인)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이야기다. 바스티유 감옥광장이 성난 군중에 의해 점령 당하자,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신하에게 물었다.

"밖에 무슨 변란이 일어났나?"
"변란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신하의 대답이었다.

"한민족은 축구가지고 왜 저렇게 난리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것은 축구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2천 2년 6월, 그 뜨겁던 여름, 한국은 거대한 군중이 광장에 모여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양시앙 레짐(구체제)을 장송했다. 붉은 바다로 변한 전체 거리는 한달 동안 「해방구」가 되었으며, 「양시앙레짐」의 분노와 눈물의 광장은 환희와 기쁨의 광장으로 탈바꿈했다.

우리 역사에 언제 이렇게 신나는 잔치를 한바탕 치른적이 있는가? 지는 싸움만 했지 언제 우리가 한번 이겨 보았는가?

3·1 운동때 보다도, 8·15 해방때 감격보다도, 4·19 의거때 보다도 6·29 항쟁때 보다도 더 많은 군중이 민주항쟁의 요람 광화문, 금남로, 달구벌을 비롯 세

계곳곳에서 「대-한국」을 합창했다.

혁명이념은 비록 축구라는 동공이였지만, 나라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견고하게 묶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번 월드컵은 대성공이다. 시작부터 목표가 뚜렷했다.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첫 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54년 헝가리한테 9대0으로 참패, 골키퍼의 가슴이 멍이 들었다는 치욕으로부터 한국은 지난 세기 대회에 5번 진출했으나 한번도 이기는 게임을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주최한 잔치마당에서 이 한을 풀어보자는 것이었다.

준비는 되어 있었다. 강인한 체력과 투지의 선수들 용병과 작전의 귀재 하딩크 감독, 「붉은 악마」 응원단, 무엇보다 혼연일체의 국민 열망은 "하면 된다"는 신화를 창조했다.

바라던 대로 한국팀은 승승장구했다.

평론가 이어령은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고 말했다.

한 달간 우리가 미치게 즐겼던 게임을 반추해 보자.

첫 대전은 폴란드와 가졌다. 전반 26분 이을용의 패스를 황선홍의 절묘한 너스름 왼발슛 첫 골은 다가올 4강을 예고하는 행운의 여신이였다. 이어서 유상철의 추가 골로 2대0승, 한국은 4무 10패의 상처를 씻고 48년 만에 감격의 첫 승을 올렸다.

두 번째 대전은 16강 진출의 최

대 고비인 미국과의 일전이었다. 한국은 전반 24분 미국에게 기습 선제 골을 내준 후 이을용의 페널트 킥마저 실축, 패색이 짙을 즈음 경기종료 12분을 남기고 안정환의 극적인 동점 해딩슛으로 1대1 무승부로 게임을 끝냈다. 비록 무승부였지만, 16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이다.

한미간의 경쟁에서 이민자인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은 반미감정인데, 다행히도 반미시위 같은 것은 없었다. 반미감정은 엉뚱한데서 표출됐다. 동점골을 넣은 안정환이 동계 올림픽서 금메달을 놓친 김동성의 불만을 「오노제스처」로 나타낸 것이다. 국내신문들은 분노의 앙금을 통쾌하게 표시했다고 두둔했으나 필자의 생각은 안선수의 「골세레머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하고 싶다.

스포츠 대회에서의 승부판정 불만을 국민감정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경기는 세계랭킹 5위인 막강한 포르투갈과의 대결전이다. 두 팀은 비기기만 해도 16강 티켓을 확보한다. 그런데 박지성이 후반 25분 귀중한 한 골을 넣어 한국은 2승 1무 0패 승점 7로 D조의 1위가 되어 16강에 진출한다. 한국팀은 목표에 도달했으며, 꿈을 이루었다. 미국도 16강에 함께 진출했다. 감동의 승승장구는 이어졌다.

세계랭킹 6위 「아주리 군단」이 이탈리아와의 8강싸움. 네 번째 경기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강인한 투혼으로 해서 기사회생한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후반전 43분, 게임이 다 끝나갈 무렵이었다. 설기현의 왼발 터닝슛이 끝인, 1대1 동점을 만들어 연장전 돌입, 전반 15분 무득점,

후반 15분도 끝나갈 무렵 이번엔 안정환의 해딩슛이 끝인, 1966년 북한이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 포르투갈에 5대 3으로 역전패했던 감동을 재현했다. 붉은 악마는 카드섹션으로 "AGAIN 1966"을 보여 줬으며 북한도 이 경기를 1시간 동안 녹화 중계했다고 한다.

월드컵 72년 사상 아시아 팀으로는 남한과 북한만이 8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했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긍지가 아닐 수 없다. 이탈리아 측은 언론을 통해 심판의 편파판정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이것은 별볼일 없는 팀으로 간주했던 아시아팀에게 유럽의 강호 3개팀이 연달아 뒷덜미를 잡히자 이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탈리아팀은 악명대로 치사한 반칙이 많았다.

다섯 번째 싸움. 또 하나의 유럽 강팀 스페인과의 4강전 역시 피를 말리는 경기였다. 전후반 90분, 연장 30분 합쳐 120분간의 혈전에도 0대0으로 끝이 안나왔다. 드디어 승부차기, 한국의 첫 번째 키커는 노련한 만형 황선홍. 입술은 타들어 가고 심장의 박동은 멈추는 듯했다. 황선홍의 첫 슛은 스페인 골키퍼의 손을 맞고 끝인, 시각이 좋았다. 이렇게 양측 세 번째 키커까지 3대 3 동점. 운명은 스페인의 네 번째 키커 호아킨의 슛에서 결판났다. 그의 오른발 슛을 이운재 골키퍼가 막아낸 것이다. 스코어 4대 3에서 한국 마지막 키커 홍명보의 슛이 오른쪽 골네트에 꽂혔다. 한국이 4강위업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내친김에 우승까지 가자는 소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독일과의 준결승전은 아쉽지만 후회없는 한판이었다. 한국선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지만 1대0으로 패배했다. 여섯 번의 치

열한 혈투를 벌인 역전의 용사들은 지쳐 있었다. 힘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기도 했다.

7차전인 터키와의 3-4위전에서 3대2로 패한것도 마찬가지로 마친 것이다.

한국은 잘 싸웠으며 축구역사를 다시 썼다. 이번이라고도 하는 기적이라고도 하고 하늘이 도왔다고도 한다. 그러나 냉엄한 승부의 세계에서 이번이란 있을 수 없다.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거두어 들이는 실력이 있을 뿐이다.

한국의 4강진출은 필승집념의 산물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과도 같은 국민연원을 하늘도 외면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신앙과 응집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 시킨다면 한국은 모든 면에서 달라질 것이다.

우선 총체적 「부패공화국」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국민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바로 월드컵 대회중에 대통령의 두 아들을 비리혐의로 감옥에 보낸 사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마침 6·25 52주년을 맞아 「통일독일」과 「분단한국」이 맞붙긴 했지만, 우리는 꿈에도 북녘땅 반쪽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기아와 탈북으로 배고파하는 북한의 우리 동포를 잊어서는 안된다.

6월의 붉은 바다, 대-한국! 짹 짹 짹 짹, 태극기 물결, 이 감동의 드라마를 7천만 한민족이 함께 즐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현재 우리에게 진정한 결승골은 바로 통일이다.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는 2천2년 혁명의 불길을 끄지 말자. 민족이 기록한 이 대서사시를 한낱 흥취를 들곤 한 여름밤의 꿈으로 돌지 말고 거듭날 때 민족역사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독자투고 요청

서울대학교 총장은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이번 전임 이기준 총장이 사퇴하고 신임 23대 정운찬 모교총장이 임명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총장의 역할과 교육행정가로서의 최선의 자격이 무엇인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母校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권위주의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남용의 문제와 모교총장이 지니는 사회적 명사로서의 지위때문에 서울대학교 총장직은 야망있는 정치지망생의 짐강다리기가 되어 임기중간에 기회가 오면 서슴

없이 政客으로 변신하는 과거의 사례를 보아왔다. 그리하여 고등교육 행정전문가인 총장을 教授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政治的" 행사가 되어, 잠재적인 選舉公約과 이의 실천과정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과연 서울대학교 총장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유능하고 경륜있는 고등교육 행정가 총장으로 영입하는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번 총장 선출 과정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지난 5월 28일(화)총장후보선정

위원회(위원장 박상대 교수, 생명과학)는 총장후보대상자 8인을 선정했으나 1명(권영민 교수)이 사퇴해 7인을 총장후보 대상으로 뽑았다. 김유성 교수(법학), 송상현 교수(법학), 우종천 교수(물리학), 이장무 교수(공대학장, 기계항공공학), 장호완 교수(지구환경과학), 정운찬 교수(사회대학장, 경제학), 조창섭 교수(사범대학장, 독어교육학)가 최종 선정됐다.

이날 총장후보 선정위원회(선정위)는 선정위원 49명 중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선정위원들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3명 이하를 무기명 추천한 후, 17명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위원들은 선정된 대상자 2인을 무기명으로 다시 추천해 3표 이상을 얻은 자를 최종적으로 총장후보대상자로 선정

했다. 선정위는 5월 29일 후보 대상자들에게 후보 수락의사를 묻고, 이력서, 소견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각 후보 대상자는 6월 1일 오후 10시까지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후보 대상으로 지명됐던 권영민 교수는 사퇴의사를 밝혔다. 권교수는 사퇴 이유에 대해 "총장선거가 지나치게 조직화돼 있는 상태에서 소신만 가지고 준비없이 선거에 나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6월 3일(월) 오후 2시에 선정위가 열렸으며, 각 후보들의 소견 발표를 들은뒤 2인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5인을 선정했다.

후보대상자들은 총장선거에 앞서 6월 17일(월) 오전 9시30분에

수원 농생대 8동 소강당에서, 18일 오전 10시 관악 문화관 중강당에서, 그리고 오후 3시30분 연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서 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소견발표를 했다. 6월 20일 전체 교수(1392명 가운데 1210명이 참가한 연기명 투표에서 정운찬(상대 70년졸) 교수가 667표를 얻고 차점자 송상현(법대 63년졸) 교수는 574표를 얻은 결과 이들을 교육 인적부 장관에게 추천하였으며 7월 16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鄭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전국적인 후보자 탐색과정을 거쳐 고등교육 행정 능력이 검증된 인물을 총장으로 선출하는데 정치적인 투표절차로 총장을 선출하는 서울대의 방법에 대한 비교 논의를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남가주 소식

동창가족의 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남가주 총동창회에서는 오는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Highland Camrose Picnic Area #15에서 동창가족의 밤을 개최한다. 이 날 연주곡은 Tchaikovsky Spectacular이며 입장료는 N석 \$20.00 S석 \$11.00 이다. 5시부터 시작되는 Picnic 장소는 Highland길로 북상하

다가 왼쪽으로 가장 끝 Main Parking Lot 바로 아래쪽이다. 준비물은 Binocular, Wine, Drink, 안주거리, 담요, 두터운 옷 등이며, 많은 동문 및 가족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란다. (연락처: 행사준비위원장 인 곡철 수석 부회장 및 이영혜 동문(714-809-4481))

모교 音大 연주단 LA 공연 개최

2002. 8. 29.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남가주 총동창회 및 음악대학 동창회가 주관하는 금년 모교 음대 연주단의 미주 순방 공연이 남가주에서 8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한국 종합 교육관(한미 교육재단)에서 개최된다.
 ▶일시: 2002. 8. 29.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한국 종합 교육관(한미 교육 재단)

□68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6-1940
 ▶입장료: \$15.00
 ▶주최: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주관: 남가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및 음악대학 동창회
 ▶후원: 한국일보, 중앙일보
 ▶연락처: 동창회 사무실(213) 999-5911, (213)365-9669

음대 동창회 야유회 소식

남가주 음대 동창회(회장 임선영)에서는 Buena Park의 Ralph Clark Regional Park Picnic Shelter #1에서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야유회를 가

졌다. 이를 위해 임낙균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은 협찬비를 출연하였다.
 연락처: 음대 회장 임선영 562-860-7672



남가주 총동창회웹사이트 개발

◆주소는 www. snula.org
 ◆남가주 총동창회 사무실 주소: www. adimin@snula.org 동 site에는 동문들이 교환하고자 하

는 정보와 행사의 소식과 사진들이 기재된다. 앞으로 동문들의 애용을 바라며 E-Mail 주소를 알려 주기 바란다. 그리고 web master 조무상(법대 70년 입)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818) 248-498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순방단 LA 방문

임 낙 균 남가주 동창회장 환영사

2002년 6월19일(수) 오후 6시30분
 J.J Grand Hotel(620 S. Harvard Blvd.)

존경하는 임광수 회장님, 그리고 총동창회 방문단 여러분,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번 찾으실 기회가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자랑스런 서울대 총동창회 순방단의 일원으로 남가주에 사는 동문들을 특별히 찾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히 신입 회장님을 모시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축구 선수들이 7천만 겨레를 한없이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창회도 젊은 동문들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 같이 해 보았습니다. 금년 저희 남가주 동창회는 청년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모교 캠퍼스가 관악산으로 이전한 후 졸업한 동문들을 위하여 관악연대 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남가주 동창회는 새로 참여하는 젊은 동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증진, 원로 동

문들의 경험을 조화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가주 동창회의 발전에 쌓으신 기여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신 이형광, 성주경, 김지영 동문(아래사진 좌로부터)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해왔던 봄, 가을 골프대회 그리고 신년 하례 및 정기총회 이외에도 등산, Hollywood Bowl 음악회, 조영남 초청음악회 등 동문과 가족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11차 평의 원회에 참석해서 동문회 Web Site 재개발 안건을 통과시켜 그동안 중단되었던 프로그램을 소생시키게 되어 가까운 장래에 미주 동창회에 큰 기여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창회는 여러 가지 훌륭한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모국의 동창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위하여 남가주 총동창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모임입니다. 동창회 임원, 동문 그리고 가족들이 자주 만나서 즐겁게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동창회가 해야 할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국에 계신 동창회 임원 여러분들께서 자주 찾아와 주시고, 또한 남가주 동창회에서도 서울에 가서 찾아 뵙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일이 동창회 여러 행사 중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에 많은 기념품과 맛있는 순회우승배를 보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남가주 동창회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총동창회 임원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면 직접 참석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꼭 짜진 일정으로 무척 피곤하시겠지만 LA에 오시면 받은 고향에 오신거나 다름없습니다. 남은 여정을 멋있게 마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임광수 회장님 취임사의 "서울대가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는 Catch Phrase를 우리 교포사회에도 적용하여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십시오.

임광수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유공동문 공로패를 수상하는 동문들



이형광 전회장(상대 68졸)



성주경 재무국장(상대 72졸)



김지영 총무국장(사대 73졸)

산악축제 성료

지난 7월 14일 산악 축제(Mt. Islip)에 35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여하여 상쾌한 하루로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등산을 하였다. 많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하트랜드 소식

母校 음대 연주단 캔자스 시티에서 공연
동문들의 참가와 성원바랍니다.
8월 17일 토요일 오후 7시에 개최
Kansas City의 미주리대학 음악대학 연주홀



사진 : 이상문 회장주재로 음악회 준비를 논의하는 확대 임원회의의 전경

음대 순회 연주단의 미주순방의 두 번째 공연이 Heartland 지역 동창회(회장 이상문, 상대 61년 졸)의 주관으로 Kansas City의 미주리대학 음악대학 연주홀 (The Performing Art)에서 8월 17일 토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된다. 장학금 모금 목적으로 책정

된 입장료는 일반 1인당 \$10, 상록회원 및 학생은 \$5이다.

음악회에 참석하는 6개주의 광활한 Heartland 지역동창회의 동문들은 Marriot Hotel, Overland Park (전화 913-338-8695)에 투숙시 SNU Heartland Association Group Reservation Rate로 예약할 수 있다.

이번 연주회를 위하여 김호원 명예회장 겸 이사장을 중심으로 배규태, 이준기, Dr. 함완균 동문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음악회 준비위원회는 Kansas City의 Barnes 시장, 한국입양아 가족협회, 한국전 참전용사 및 한인회 등에 초청장을 보내어 동문간의 친선뿐만 아니라 및 교민사회의 모교와 한국전통음악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락처: 김호원 913-897-5365, 배규태 816-686-4298, 이준기 402-770-0773, 함완균 913-897-6095)

모교 순회 음대 연주단 공연에 동문과 교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여름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동문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

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쁜 일과에 여념이 없으실 줄 알지만 동문 여러분에게 한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래와 같이 모교의 "서울대학교 순회음악단"의 Kansas City 공연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고의 재능을 가진 젊은 후배들이 최상의 repertorie를 공연하는 것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동문간의 단합도 다질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동문님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꼭 참석하

시어 이 음악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행사로 얻는 수익금은 동창회의 장학기금으로 뜻깊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랜드지부 회장 이상문 배상 <아 래>
 •일시: 2002년 8월 17일(토요일) 오후 7시
 •장소: The Performing Art Center White Hall The University of Missouri, Kansas City The Conservatory of Music 4949 Cherry Street Kansas City, MO 64110 (Tel) 816-235-2731
 •입장권: 일인당 10불 (Donation 환영합니다) 입장권 매입은 개인 또는 단체 구입 가능합니다.
 •Hotel: Marriot Hotel Overland Park (Tel) 913-338-8695 (Ms. Malinda Cook) 예약시 SNU Heartland Association Group Reservation 이라 해주세요.

뉴잉글랜드소식

서울대학교 찬양 선교단 보스턴 방문

7월 26일 금요일 서울대 음대생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 37명이 구종모 목사님 인솔로 보스턴 장로교회 (전덕영 목사 초청)에서 찬양 선교 음악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NE지구 박경민 초대 회장, 정정욱 부회장 변종원 총무, 홍지복 재무가 저녁 식사에 참여해 환담을 나누었고 20여명의 동문 가족을 포함 교회당을 가득 메운 교인과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음악회를 마쳤고

몇 차례의 앙코르 답례도 있었다. 뉴잉글랜드 서울대 동창회를 대표하여 정정욱 부회장이 지휘자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투고자: 변종원 동문)

필라지역 소식

모교 음대 순회 연주단 필라 공연
2002년 8월 22일(목) 오후 8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음악대학 순회 연주회가 아래와 같이 필라에서 열린다.

▶일시: 2002년 8월 22일(목) 오후 8시

▶장소: Korean United 聃

hurch of Philadelphia 12 street and Cheltenham, Philadelphia, PA

▶연락처: 강영배 전회장 (Tel. 201-970-3493)

미동부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창회 2001년도 활동보고

- ◆04-25-01 이우재 모교 동창회장 및 대한 수의사회장 필라 방문접대(우래관) 참석자 : 오연각, 강영배, 김현영, 민홍식, 전무식, 조정현, 주기목, 지흥민 * 골프접대에 수고하신 민홍식, 지흥민 동문께 감사합니다.
- ◆11-17-01 이우재 회장 2차 방문 환영회 Baltimore, MD 미락조 식당 참석자 : 김현영, 조정현, 주기목
- ◆07-08-01 모교 이흥식학장 동부 순방 안내 및 동문 간담회
- ◆07-14-01 (1) Boston - Tufts대 (김문소 안내) (2) Ithaca - Cornell대 (신쌍재 안내) (3) Philadelphia - U. Penn (김현영 안내) (4) Washington, D.C. (조길현 안내) * 안내 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필라 지역 간담회 참석자 : 강영배, 김진수, 김현영, 노병의, 민홍식, 오연각, 유동완, 이병인, 이성배, 전무식, 조정현, 주기목, 지흥민, 이정화 교수(부부동반)
- ◆07-30-01 조정현 회원을 모교 초빙교수로 추천하여 10월에 모교에서 특강
- ◆08-25-01 동창자녀들의 대학진학 축하금 및 격려사 전달 (1) Mary Chang(Haverford College - 장효 회원 자녀) (2) Joan Lee (U. Penn - 이병인 회원 자녀)
- ◆08-31-01 모교 학장 및 후배 학생 초청 연수비 보조를 서부 동창회에 전달
- ◆10-13-01 2001년 동창회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초대에 감사 편지 전달
- ◆10-15-01 본국 동창회원 명부 배포를 기해 장학 기금 모금 서신을 70여 회원께 발송

- ◆12-16-01 모금된 \$1,500을 모교 동창회 장학 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송금 * 모금에 참여한 동문들 명단 강영국, 김기택, 김문소, 김진수, 성흥환, 조두연 (이상 \$100-6명) 강영배, 곽영로, 김덕윤, 김영두, 김진선, 김학근, 김현영, 민홍식, 서우석, 서진국 신쌍재, 오연각, 유정식, 윤상래, 이기풍, 이병인, 이성배, 이영섭, 장 효, 전무식, 정진항, 조길현, 조정현, 주기목, 주한수, 지흥민, 한의생, 홍순호(이상 1인당 \$50씩 - 28명) 총 34명 동문이 참여하여 \$2,000을 모금하였고, 나머지는 경비와 동창회 기금으로 입금 되었음.
- ◆12-18-01 모교 동창회 달력을 회원께 발송
- ◆01-15-02 "동창회 소식" 11호 (7-01) 및 12호 소식 2회 발송. 금년도 동문들의 경조사에 축하와 조문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 ◆04-30-01 장효회원 부친상 조의금 전달 07-28-01 전무식 회원 회갑 축하 화환 전달 10-13-01 고 염수암 회원 차녀 Jenny양 결혼 축하금 전달 01-03-02 고 조길현 회원 고별예배 참석 및 조의금 전달(Washington, D.C. 근교). 참석자 : 유정식, 한의생, 김영(서부), 민홍식, 조정현, 주기목, 지흥민 02-01-02 김문소 회장 모친상 조의금 전달 03-23-02 민홍식 회원 회갑 축하 화환 전달 기타 재미서울대 총동창회보에 수의대 소식 기사작성 게재. (투고자 주기목 동문)

뉴욕지부 소식

서울대 音樂大 연주단

뉴욕서 무료 연주회

2002년 8월 19일 (월) 하오 8시

뉴저지 연합교회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뉴욕지구 동창회(한창섭 회장)가 주관하는 서울대음대 연주단의 음악회(SNU Concert)가 오는 8월 19일 8시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서울대 음대 재학생 콘서트(SNU Concert)를 무료로 연다.

국내외 저명 음악 경연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지닌 탁월한 국악 및 양악 연주자 10명으로 구성된 SNU콘서트 연주단(단장 김형배 교수)은 청성곡, 가야금 산조, 춘향가에서 오페라<춘희>, <라보엠>의 아리아, 그리고 슈만, 리스트, 멘델스존의 곡까지 전통 국악과 서양의 고전음악의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창섭 서울대 뉴욕지구 동창회장은 "이민 역사상 본국 음악대학 학생들이 교포들을 위한 미주 순회 연주공연을 갖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광복 57주년과 9·11 참사 1주년을 맞아 특별히 무료로 기획했으니 뉴욕 지구 교민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는 8개 도시에서 9번 개최되는 서울대 음대 미주순회 공연의 일환으로 8월 16일 시카고에서 시작, 캔사스(17일), 그리고 뉴욕(19일)을 거쳐 필라델피아(22일), 워싱턴(23일, 24일), 아틀란타(27일), 미네아 폴리스(28일), 로스앤젤레스(29일) 등 8개 도시에서 9차례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모교 음대 연주단 뉴욕공연

"USA Tour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Students"

서울대학교 뉴욕지구 동창회가 광복 57주년과 9·11참사 1주년을 맞이해 뉴욕 일원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을 무료로 초대합니다. (10세 미만 아동은 삼가 주십시오.)

■ 일시: 2002년 8월 19일 (월) 하오 8시

■ 장소: 뉴저지 연합교회 (Korean Community Church of New Jersey)

147 Tenafly Road, Engle

Wood, NJ. Tel. 201-816-1284

■ Direction: George Washington Bridge를 건너서 Rt.4로 1.5mile 가서 Grand Avenue(North)Exit으로 나와서 0.7mile 오면 Circle이 나오는데, Circle에서 우회전하여 (이길이 Tenafly Road임) 0.3 mile 가면 우측에 교회가 있음.

■ 주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 주관: 서울대학교 뉴욕지구 동창회(회장 한창섭, 이사장 주재욱)

■ 후원: 한국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라디오 서울 KTV.

金容學 동문(법대 75년졸) 法律法人 Feldman Weinstein LLP에 Partner로 활약



뉴욕지역에서 회사법(Corporate Law)과 국제교역(International Commerce) 관계 전문변호사로 활약중인 金容學 동문(법대 75년졸, 재미총동창회 제5대 사무총장역임)이 그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해오던 종합 법률법인

Feldman Weinstein LLP에 partner로 활약하게 되었다. 金 동문은 재미총동창회의 회칙을 미국 조세법과 합당하게 개정하여 동창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난 6월 제 11차 시카고에서 열린 재미총동창회 평의원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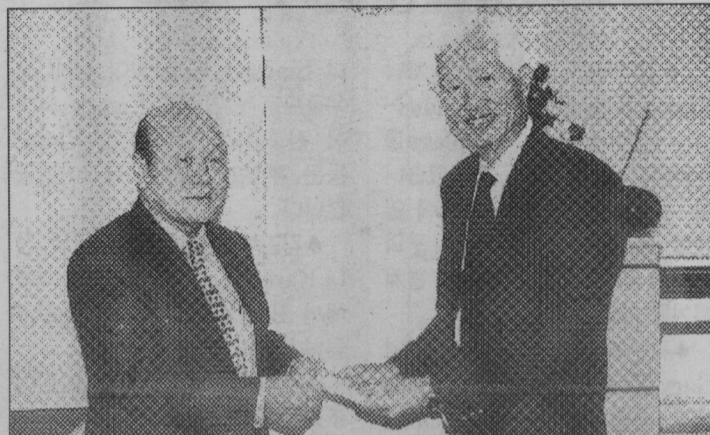
<연락처>

Yong Hak Kim
Feldman Winstein LLP
420 Lexington Avenue, Suite 2620
New York, NY 10170
법인전화 212-869-7000
Fax 212-997-4242
www.feldmanwinstein.com
<직통전화> 212-931-8702

藥大동창회 이사회,

Golf 大會 성료

약대 동창회 뉴욕지부는 지난 6월 29일 Flushing에 위치한 서울 Plaza 영빈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부동반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발전과 2002년도 사업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자리에서는 본 동창회 이사회 고문 윤정옥(54년졸) 동문으로부터 뉴욕 약대동창회서 每年 정구적으로 지원키로 한 장학금 \$2,000을 약대 총동창회장에게 지난 5월 17일 전달한 내용과 체육부장 최구진 동문(58년졸)으로부터 7월 4일 있을 예정인 친선 Golf 대회를 위한 상세한 진행 설명에 이어 본동창회 부회장 송재한 동문(65년졸)이 발표한 "행복한 가정"이란 주제의 세미나로 모두가 은혜를 받으며 이사회를 아름답게



모교 약대동창회에 뉴욕동문들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윤정옥 동문

끝마쳤다. 본 이사회는 2개월마다 (투고자 약대 뉴욕지부 회장 성 모임을 갖고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상부상조하는 "살아있는 동창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Soundclock 정기 음악 연주회 예정

9월11일(수) 오후8시, 뉴욕 머킨 연주홀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음악 Ensemble인 <Soundclock>의 정기연주회가 이번 9월11일(수) 오후8시 뉴욕 머킨 Concert Hall (120 West 67St. New York, N.Y. 10023. 212-501-3340)에서 열린다. 이 연주회는 9.11 기념 추모 음악회로 기획되어 뉴욕 거주 작곡가 9명과 타지역 거주 작곡가 11명등 모두 20여명의 젊은 작곡인 독주곡들이 연주될 예정인데 이번 연주곡들 중에는 4명의 동문 작곡가(강석희, 전상직 서울대 교수, 남가주의 조성완 및 뉴욕의 김은경)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연주회 입장료는 일반 15불, 학생과 노인들에게는 10불이다.

Soundclock은 새로운 창작품의 初演을 위주로 연주하는 현대 음악 Ensemble인데 이 가운데 4명의 음대 동문중 예술감독인 김은경 (작곡과 86년졸), Flute의 허난(88년입), 피아노 오유진(89년입)은 맨하탄 음대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Clarinet의 김하나(86년입)는 맨하탄 음대에서 Sonystonybrook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번 연주회에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라며 안내광고 게재 및 재정적인 후원자를 환영합니다. (연락처 김은경 동문 718-463-8997 ; E-mail : EKKComp@yahoo.com)

<사진설명>Soundclock



ensemble 사진 촬영. 뒷줄 좌로부터 Olive Fflucaire, 김하나, 앞줄 좌로부터 허난, 오유진, 김은경 동문

李惟性 동문(사대 57입) 한글 서예전 파리에서 개최

2002년 6월1일 부터 15일까지



이유성 동문(사대 57입, 전 충북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의 한글서예(또는 추상서예, 현대서) 개인전이 뉴욕 전시회('99)에 이어 파리 몽마르뜨에서 2002년 6월 1일 부터 15일까지 열렸다. 이유성 동문은 현재 Nyack College

생물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글 추상 서예 작가로 활동중이다. 이 동문의 작품세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718-275-6911이나 (email) LeeAram39@aol.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다.

조지아 소식

조지아 관악회보(2002, 06월)

자랑스런 同門 자녀들

◆김재철(공대 64) 회장 차남 Young Kim 군이 Colorado State University에서 Biology를 전공하고 지난 5월에 졸업했습니다. Young Kim 군은 육군에 입대할 예정입니다. Young 군의 장래가 항상 건강하고 밝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김준휘(의대 57)동문의 장남 Gary Kim 군이 Washington 의대를 졸업하고 Dayton, OH에 있는 공군 병원에서 Intern 과정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에 버금가는 훌륭한 의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김예순(문리대 58)동문의 장

녀 Lindsay Kim 양이 UNC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Emory 의대에 진학합니다. UNC는 김예순 동문 부부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김만복(문리대 72)동문의 장녀 Karen Kim양이 Emory 대학에서 Biochemistry를 전공하고 금년 5월에 졸업했습니다.

◆조덕성(공대 71)동문의 장녀 조명현 양이 Harvard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English를 전공한 명현양은 9월부터 San Francisco에 있는 Homeless Shelter에서 근무하면서 작품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동문동정

은철수 동문(상대 64졸, Georgia Tech. 교수) 중국과 서울서 특강

Georgia Tech에 석좌 교수로 있는 은철수(상대 64) 동문이 지난 5월에 중국의 양대 명문인 북경대학과 칭화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경 대학

에서 열린 국제 금융학술 대회에서 Key Note Speaker로 기조 연설을 하고 귀환하는 길에 한국의 KIST에 들러 강연을 했습니다.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회의소식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 \$60
동문여러분들의 회보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제 11차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회의가 6월 15, 16일 양일간에 걸쳐 Chicago에 있는 Oak Brook Hills Hotel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모국에서 임광수 총동창회장 이하 여러 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재미 총동창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논의되었고, 재정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 \$10 인상(인상후 \$60)이 인준이 되었습니다.

다. 또 전 지부는 매년 \$10,000을 재미 동창회에 지원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용락 미주 총동창회장의 만찬에 이어서, 16일에는 Willow Crest Golf Club에서 친선 Golf 대회를 가진 후에, Chicago 지부 주최의 만찬으로 평의원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2003년도 평의원회의는 5월 31일(토)에서 6월 2일(월)까지 Los Angeles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Georgia 동창회비납부 감사드립니다

동창회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자발적인 회비납부가 절실한 때입니다. 동문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곽민자, 김만복, 김무영, 김성태, 김수일, 김예순, 김용건, 김재철, 김재호, 김준휘, 문종현, 박종흠, 박천기, 박희창, 방창모, 백낙영, 은철수, 이관호, 이정희, 임수암, 임한응, 장병건, 조덕성, 주중광, 최재학, 황대현, 조종구** (준청생략, 가나다순)



4월 동창회 친선 골프모임 소식

지난 4월 21일 Berkley Hill Golf Club에서 금년도 첫 골프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김준휘 부부, 임한응 부부, 임수암 부부, 주중광 부부, 김수일, 박희창, 김재철,

주중광 부부의 주선으로 UGA Golf Club에서 6월 2일(일) 2시부터 Rounding을 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김용건 부부, 김준휘 부부, 임한응 부부, 임수암 부부, 주중광 부부, 박희창, 김재철, 백낙영 모두 열세분의 동문이

백낙영, 문종현 모두 열세분의 동문이었고, Rounding 후 다래정에서 푸짐한 저녁을 Berkely Member인 백낙영, 임한응, 임수암 동문이 흔쾌히 부담해 주셨습니다.

母校音大 연주단 공연에 초대합니다

8월 27일(화) 오후 8시

Korean Church of Atlanta
2197 Peeler Rd., Dunwoody, GA 30338
Tel. 770-579-5615

동문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더위 속에서 동문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World Cup의 기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한국 축구의 활약으로 여러분이 잠을 설치고 긴장과 열광 속에서 지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축구 선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9일 춘계 야유회에 여러 동문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여해 주신 동문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6월 15일 Chicago에서 개최된 11차 평의원회의에 박희창 전 회장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래 사진 좌로부터 김재철 평의원, 임광수 서울대 총동창회장,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 박희창 평의원 대행 이

평의원 회의장에서 기념촬영)

재미 총동창회의 곤란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돕자는 취지에서 회보 구독료를 인상하고 각지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보 구독료가 총 동창회 재정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동문이 구독료를 빨리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 음대 미주 연주단이 8월 25일과 8월 31일 사이에 미주 순회 연주를 할 계획인데, Atlanta 에는

8월 27일로 Schedule 이 확정되었습니다. GA지부에서는 처음 맞이하는 모교의 음악회인 만큼 이곳 동

문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야겠습니다.

이번 동문 음악회에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보람있고 성공적인 음악회가 되기를 빌며,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음악회의 준비를 위하여 임시 이사회를 7월 13일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이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02년 6월
조지아지역 동창회장



6월 동창회 친선 골프모임

있고, 94도의 더위 속에서 열심히 Play한 결과

남자부 Champion 김용건 박사 (+20)

여자부 Champion Mrs. 임한응(+28)이 차지하였습니다.

저녁은 주중광 부부의 Treat으로 Athens에 있는 Peking Restaurant에서 커다란 저녁 식사로 하루를 즐겁게 마감했습니다.

춘계 야유회 소식

지난 5월 19일 Gorgia 북쪽의 Red Top Mountain에서 개최되었습니다. 5월의 청명한 날에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며, 동문간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였습니다. 그날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재철 부부, 문종현, 조덕성

부부, 김재호 부부, 김용건 부부, 박희창 부부, 주중광 부부, 김성태 부부, 최재학 부부, 김만복 & 장인, 곽민자 부부, 임한응 부부. 동문회에서는 금년 가을에도 야유회를 할 예정인바, 동문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참석을 희망합니다.



시카고지역 소식

모교 音大연주단 첫공연 시카고서 개최 8월 16일(금) 7시 30분

Anderson Chapel, North Park University
3225 W. Foster Ave., Chicago, IL

재미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무더운 여름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시카고 지역 동창회 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서울음대 학생들의 미국순회 연주회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시카고 지역 연주회는 8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노스파크 대학의 앤더슨 홀(Anderson Chapel, North Park University 3225 W. Foster Ave., Chicago, IL) 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02년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

회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된 이 음악회는 모교 음악대학의 후배들을 초청, 미국 순회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모교 및 본국 동창회와의 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미국 전역에 걸친 8개 주요 도시에서 열리게 되며 장소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Chicago: 8/16 -- Kansas City: 8/17 -- New York: 8/19 -- Philadelphia: 8/22 -- Washington DC: 8/23,

24 -- Atlanta: 8/27 -- Minneapolis: 8/28 -- LA: 8/29

양악과 국악 등 각 분야에서 선발된 학생 10명이 순회 연주에 참가하게 되는데 모두 한국의 유명 콩쿠르 및 국제 콩쿠르 입상 경력을 지닌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대금, 가야금, 판소리 등의 국악 연주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오브에, 성악(솔로 및 듀엣), 피아노 트리오 등 양악 연주가 어우러진 보기 드물게 다양하고 화려한 음악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음악회장의 좌석 수가 450석임을 감안할 때 동문 여러분들의 참여는 물론 주위의 한인 및 미국인들에게 선전해 주시어 풍성한 음악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장권은 일인당 일반 15불, 학생 10불이며, 대관료와 리셉션 비용, 프로그램 인쇄비, 연주자 체제비 등을 입장

권 판매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 6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본부가 뉴욕에서 시카고로 이전한 이래 가지는 매우 귀중하고 큰 행사이면서 시카고 지역에서 그 첫 연주회를 열게 된 만큼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8월 16일 저녁이 조국 대한민국의 정서와 숨결을 표출하는 국악 연주와 우리 모두의 영혼을 감동시킬 클래식 연주, 그리고 모교와 후배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긍지로 가득한 아름다운 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재미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회장 한재은
서울대학교 미국순회 연주회 시카고 지역 Director 김인원
서울대학교 미국순회 연주회 시카고지역 Coordinator 이소정 (630-548-2689)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 2002년도 행사 계획

- ◇1월 12일(토) 제 1차 임원회 한재은 회장택
- ◇3월 23일(토) 제 1차 이사회 Raddison Hotel, Lincolnwood
- ◇5월 11일(토) 제 2차 임원회 김동희 부회장택
- ◇6월 14일 16일 미주 총동창회 평의원회
- ◇6월 16일(일) 춘계 Golf Outing
- ◇6월 22일(토) Picnic Busse Grove #12
- ◆8월 16일 모교 음대 연주단 시카고 공연
- ◆9월 7일(토) 학생 동문 환영회
- ◆9월 7일(토) 제 3차 임원회 장기남 수석 부회장택
- ◆9월 21일(토) 추계 Golf Outing
- ◇9월 일지미정 지역 사회 봉사활동
- ◇10월 5일(토) 제 2차 이사회
- ◇10월 20일 모교 음대 신수정 교수 초청 음악회(시카고 한인회 주최) 후원
- ◇11월 2일(토) 제 4차 임원회, 황치용 부회장택
- ◇11월 30일(토) 총회 및 연말 Party

동창회 2002년 하계 आय회 소식

6월 22일(토요일) Busse South Forest Preserve Grove 12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의 대 65년째는 지난 6월 22일(토요일) Busse South Forest Preserve Grove 12에서 90여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들이 모여 다소 무더운 날씨이긴 했으나 맑은 날씨에 즐거운 친목의 하루를 가졌다. 한재은 회장은 금년에 남은 시카고 지역 동창회 행사 일정(Box 참조)을 소개하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특히 모교 음대 미주 순회 연주단의 첫 공연이 시카고에 8월 16일 에 개최되는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आय회는 불고기 및 고등어 바베큐와 최순분 동문이 손수 재배한 싱싱한 상추와 숙갠맛있는 식사시간을 가졌고 참가 동문들이 한 덩어리 되고 온 수박으로 시원한 후식을 즐겼다.

이날 한재은 회장은 그간 시카고 지

역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재미총동창회 제 11차 정기 평의원회에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임광수, 공대 52년졸)가 수여한 해외 지부有功동문 공로패를 曹大鉉(공대 61년졸), 崔順分(간호대 60년졸), 李承子(사범대 64년졸), 및 金虎範(상대 73년졸)에게 전달하였다. (오른쪽 사진 좌로부터 조대현, 최순분, 이승자, 김호범 동문 부부)

한재은 회장, 황치용 부회장, 김호범 동문은 배구, 피구, Putting 등 동문들이 식사 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준비, 진행하여 참가한 동문들이 모두 함께 참가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운동 후에는 모두들 땀을 식히고, 시간과는 아랑곳없이 담소하며 저녁식사까지 하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아쉬움 속에 헤어졌다.

이날 학생 동문들과 교환교수로 방문 중인 새로운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김경일 (자연대 물리학과 91년), 윤명환(문리대 화학과 93년), 박철민(화학과 85년졸, Abbot 근무), 김제훈(화학과 86년졸 UC), 박진홍(수의대 74년입, 일리노이대, 샴페인 교수, 제주대 수의과대학), 김선웅(공대 76년졸,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경제학과 교수), 이정일(물리학과 88년졸, Argone Lab 연구원), 민병주(기계설계학과 88년졸, Argone Lab 자동차 연구원), 또 시카고에 거주하다 5년전에 은퇴한 김진구 동문(현 Rockville, MD)이 친정나들이 온 딸, 손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김진구 동문의 따님인 김진희씨가 메릴랜드 주 하원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한다. 간호학과 (79년입)를 졸업한 한 동문은 중학생인 아들, 딸의 교육을 위하여 미국에 와서 그녀와 절친한 친구인 김현숙 동문과 함께 참가하였다. <아래사진: 하계아유회에 참석한 동문들 기념촬영>

시카고 동창회 有功 동문들 서울대 총동창회장 공로패 수상



조대현 동문 부부



최순분 동문 부부



이승자 동문 부부



박종희 김호범 동문 부부



모교소식

제23대 총장 후보

鄭雲燦·宋相現교수 추천



鄭雲燦 교수

모교는 지난 6월 20일 전체 교수 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한 경제학부 鄭雲燦(70년 商大卒) 교수와 2위를 차지한 법학부 宋相現(63년 法大卒)교수를 제23대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

모교는 두 후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추천했으며 대



宋相現 교수

령이 그 중 한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한다.

鄭교수는 이날 전체 교수 1천 3백91명 가운데 1천2백10명이 참가한 연기명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6백67표를 얻어 최다득표자가 됐다. 宋교수는 5백74표를 얻었다.

자연과학대학

洪性大동문 첫 공로상 받아

교육상 李光雄·연구상 李洙宗교수

자연과학대학(학장 朴聖炫)은 지난 6월 12일 관악캠퍼스 상산수리과학관 1층 강당에서 제4회 교육·연구상 및 제1회 공로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교육상은 생명과학부 李光雄(63년 文理大卒)교수, 연구상은 물리학부 李洙宗(82년 師大卒)교수가 수상

했다. 또 자연과학대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공로상 제1회 수상자로 「고교 수학의 정석」 필자인 洪性大(63년 文理大卒·상산학원 이사장·本會 副會長)동문이 선정됐다. 교육상과 연구상은 자연과학 대학 교수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洪性大 동문



李光雄 교수



李洙宗 교수

요하네스 라우 獨대통령

명예 철학박사학위 받아

모교는 지난 6월 28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金大中 대통령,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 독일연방 공화국 대통령에게 인류평화와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철

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라우 대통령은 깨끗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독일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왔으며, 독일과 폴란드의 화해에 적극 나서는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제20대 법과대학 학장에

법학부 安京煥교수 취임

지난 6월 3일자로 법과대학 제20대 학장에 법학부 安京煥교수(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安학장은 70년 모교 법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실베



니아대에서 석사학위, 산타클라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87년 모교에 부임해 법학도서관장, 기획실장, 법학연구소 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모교 교수들

관악IC반대 서명운동

서울시의 강남순환고속도로 모교 관악캠퍼스와 인터체인지(IC) 설치 계획에 대해 모교 교수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환경운동단체와의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모교는 최근 서울시가 모교 정문앞 2백m지점에 관악IC를 설치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안건을 확정하자 비상대책위

치과진료 부원장에

張英一교수 임명



모교 병원은 지난 6월 10일자로 치과진료 부원장(치과병원장)에 교정학교실 張英一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張부원장은 70년 모교 치대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80년 모교에 부임하여 치과병원 진료지원실장, 교정과 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치과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모교 병원 기획조정실장에 임상병리과학교실 韓圭燮(78년 醫大卒)교수, 교육연구부장에 신경외과학교실 王圭彰(79년 醫大卒)교수, 홍보실장 겸 의학박물관장에 성형외과학교실 金石華(78년 醫大卒)교수, 임상의학연구소 연구기획 부장에 비뇨기과학교실 白幸昇(77년 醫大卒)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원회(위원장 鄭正佳대학원장)를 구성, 지난 6월 7일 전교수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모교는 『대학앞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미관상과 교통혼잡, 환경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母校 音樂大 연주단 워싱턴 공연

워싱턴 DC 소식

동문여러분을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8월 23일(금) Mt. Sinai Baptist Church, 24일(토) 오후 7시 30분 Ernst Community Cultural Center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공연 동문들의 성원요망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모교 음대 연주단의 공연이 워싱턴 DC에서는 2차에 걸쳐 워싱턴 지역 동창회(회장 진금섭)과 지역 사회의 자선단체인 평화나눔 공동체의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첫공연은 8월 23일(금)에 Afro-American들이 회중의 대다수를 접하는 Mt. Sinai Baptist Church(1615 3th st. NW, Washington DC 20001)에서 있고 두 번째 공연은 24일(토) 오후 7시 30분부터 Ernst Community Cultural Center(8333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 22003)에서 있게 된다. 이번 음악회 입장료는 20\$이며, 이는 워싱턴 지역 동창회가 지역의 자선사업단체를 지원하는데에 쓰여질 것이므로 다인종 사회의 갈등극복을 위하여 많은 동문들과 교민들의 성원을 바라고 있다. 이 연주회 프로그램은 한국전통음악(대금 연주, 가야금 연주, 판소리)

워싱턴 동문 주소록 9월 발간

지금까지 워싱턴 지역의 동문들의 새 주소록 제작을 위하여 노력해온 워싱

과 서양 고전음악(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성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음악회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워싱턴 DC 지역동창회와 평화나눔 공동체가 공동 주관한다. 공연 연락처:진금섭회장(703-205-8064) 평화나눔 공동체 (202-939-0754)

턴 지역 동창회(회장 진금섭, 주소록 편집 주관 김주희 부회장)는 새주소록을 8월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연락처 진금섭 회장 703-205-8050 김주희 부회장 703-416-4325)



동문여러분, 작년 8월 25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Soprano 조수미 동문 초청 음악회를 개최한지 1년만에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모교와 서울 총동창회의 재정으로 개최하며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의 주관으로 모교 음대 연주단의 워싱턴 공연에 동문과 음악 애호가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연주회 출연자는 국내의 경

연대에 우수한 입상 경력을 가진 모교 음대의 동문들이며 평소 연마한 기량으로 서양음악과 우리 전통음악을 연주하며 한국의 발전된 예술 문화를 워싱턴 DC지역에 알릴 것입니다.

이번 공연은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한인커뮤니티의 지원으로 貧民과 老宿者들을 도와 다인종간의 갈등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자선 단체인 평화나눔 공동체(대표 최상진 목사)를 돕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이번 공연에 동문 여러분과 음악 애호가들,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워싱턴지역 동창회장 진금섭배상

모교 치과병원

외래진료환경 개선공사 완공



모교 치과병원(원장 張英一)은 지난 6월 12일 병원 2층 로비에서 외래진료환경 개선공사의 완공식을 가졌다.

지난 1993년 5월 준공한 치과병원은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고, 장애인진료실 확대 필요성 등 진료환경의 변화, 협소한 로비를 확장하고 안락한 대기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동선의 효율화 등 환자편의 향상을 위해 전임 林成森치과병원장이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공사에서는 특히 지난해 1월에 문을 연 장애인진료실을 확장하여 진료후 마취회복까지 모든 진료과정이 진료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진료에 큰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치과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로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진료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의무기록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겼으며,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치과약국, 조흥은행 등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했다.

張英一치과병원장은 『라운드형 수납장구를 새로 선보이는 한편 넓은 대기공간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대대적으로 외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환자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 金光顯교수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서 특강

모교 의대 이비인후과 金光顯(72년 醫大卒)교수(사진)가 오는 9월 24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미국이비인후과학회에서 초청강사(Guest Lecturers)로 특별강연을 한다.

미국이비인후과학회에서 한국인 의학자가 초청강사로 특별강연을 하게 된 것은 두경부외과 분야(head and neck surgery)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에서 金



교수가 처음이다. 金교수의 강의 제목은 「두경부 영역의 경화요법」으로, 약물을 이용한 두경부질환의 치료법에 대한 것.

기록관 제2회 「대학역사전」

“대학 역사 자료를 수집합니다”

모교 기록관(관장 宋基豪)은 대학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모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학과 사회의 관계, 교육과 인간의 성장, 한국사회에서 모교의 위상과 역할을 폭넓게 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2회 대학역사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학역사전에는 동문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역사자료 발굴 및 기증 부문을 신설해 동문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대학역사와 관련한 기록을 한데 모아 대학역사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기록관 홈페이지 참조 : http://library.snu.ac.kr/archive/archives.htm)

대학역사전 작품현상 공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 대상: 모교 재학생, 동문, 교직원, 일반인

▲참가 방식: 주제는 자유주제이며, 제출형식은 논문, 역사자료 발굴 및 기증, 창작물(영상, 전시물, 멀티미디어)

▲제출기한: 2002년 9월 25일

▲접수처: 대학기록관(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6층) 전화: 880-8810

▲시상내역: 대상 1편(상금 2백만원, 상패), 최우수상 3편(상금 1백만원, 상패), 우수상 3편(상금 50만원, 상패), 가작 5편내외(상금 30만원, 상패)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동문 8명 시·도지사에 당선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 중 8곳에서 동문 시·도지사에 당선됐다.

부산광역시장에 安相英(63년 工大卒·前해운항만청장)동문, 대구광역시장에 曹海寧(65년 法大卒·前총무처 장관)동문, 인천광역시장에 安相洙(75년 師大卒·前데이콤 이사)동문, 경기도지사에 孫鶴圭(73년 文理大卒·前보건복지부 장관)동문, 충청남도지사에 沈大平(66년 商大卒·충남도지사)동문, 전라북도지사에 姜賢旭(61년 文理大卒·前환경부 장관)동문, 전라남도지사에 朴泰榮(66년 商大卒·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동문, 제주도지사에 禹璣敏(43기 AMP·前총무처 차관)동문이 당선됐다.

기초단체장에 41명

한편 전국 2백32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모교 동문 41명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새로 뽑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중구청장에 金東一(42기 ACAD), 광진구청장에 鄭永燮(68년 行大院卒), 성북구청장에 徐贊敦(40기 ACAD), 강북구청장에 金顯豐(66년 齒大卒), 도봉구청장에 崔仙吉(64년 師大卒), 강서구청장에 俞煥(70년 文理大卒), 서초구청장에 趙南浩(73년 行大院卒), 강남구청장에 權文勇(70년 行大院卒), 송파구청장에 李裕澤(63년 師大卒), 강동구청장에 金忠環(77년 社會大卒)동문 등 10명이 당선됐다.

또 대구시 동구청장에 林大潤(87년 大學院卒)동문, 인천시

동구청장에 李和容(70년 工大入), 남구청장에 朴祐燮(72년 文理大入·94년 自然大卒), 부평구청장에 朴允培(74년 文理大卒), 서구청장에 李鶴宰(88년 農大卒)동문, 광주시 서구청장에 金宗植(74년 文理大卒)동문, 대전시 동구청장에 林榮鎬(88년 環大院卒), 유성구청장에 李炳哈(75년 工大卒)동문, 울산시 울주군수에 嚴昌燮(63년 法大卒)동문이 승리를 거뒀다.

경기도 성남시장에 李大輝(16기 ACAD), 의정부시장에 金文元(65년 文理大卒), 안양시장에 愼重大(72년 法大卒), 부천시시장에 元惠榮(71년 師大入·96년 師大卒), 광명시장에 白在鉉(4기 APICP), 과천시시장에 余仁國(93년 行大院卒), 과주시시장에 李準源(75년 工大卒)동문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충청북도 충주시시장에 李始鍾(71년 文理大卒), 청원군수에 吳効鎭(71년 文理大卒)동문, 충청남도 아산시시장에 姜熙福(73년 行大院卒)동문, 전라북도 전주시장에 金完柱(70년 文理大卒), 정읍시장에 柳成葉(84년 社會大卒)동문, 전라남도 곡성군수에 高玄錫(66년 法大卒), 장흥군수에 金仁圭(77년 法大卒), 완도군수에 金鍾植(83년 行大院卒)동문, 경상북도 포항시장에 鄭章植(73년 商大卒), 경주시시장에 白相承(71년 行大院卒)동문, 청송군수에 裴大潤(90년 行大院卒)동문, 경상남도 고성군수에 李鶴烈(78년 工大卒), 남해군수에 河榮帝(78년 農大卒), 거창군수에 金台鎬(85년 農大卒)동문, 제주도 서귀포시장에 姜相周(78년 社會大卒)동문이 낙승했다.

광역의회 의원 17명

한편 광역의회 의원으로는 17명의 서울대인이 당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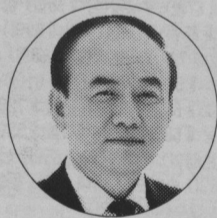
서울에서는 李聲九(67년 商大卒·서초구)·朴柱雄(1기 SGS·동대문구)·金基星(52기 ACAD·도봉구)·閔鍊植(2기 SGS·관악구)·黃乙秀(12기 AIP·강남구)·林東奎(26기 AMP·강동구)동문, 부산에서는 諸宗模(18기 AMP·중구)·金成吉(7기 AIP·영도구)동문, 인천에서는 黃仁成(51기 ACAD·동구)·朴承淑(52기 ACAD·남구)·申虎秀(87년 經大院卒·남구)·韓光元(99년 經大院卒·서구)동문이 당선 영광을 안았다.

경기도에서는 李元在(3기 SGS·파주시)동문, 전라남도에서는 李光來(50기 ACAD·목포시)동문, 경상북도에서는 禹成浩(82년 法大卒·영주시)·金柄軫(4기 SGS·문경시)동문, 경상남도에서는 金命柱(94년 法大卒·통영시)동문이 뽑혔다.

기초의회 의원 15명

또한 기초의회 의원으로는 15명의 동문이 당선됐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羅在岩(7기 AIP)동문, 성북구 朴德基(4기 SGS)·朴順基(3기 EPHPM)동문, 마포구 朴映吉(65년 藥大卒)동문, 구로구 申鉉燮(4기 AMP)동문, 금천구 鄭昇梓(5기 SGS)동문, 동작구 朴源圭(1기 SGS)·全瑠明(16기 AIP)동문, 관악구 鄭康喜(1기 SGS)동문, 강남구 李在彰(4기 SGS)·朴春湖(4기 SGS)·金明炫(65년 文理大卒)동문, 강동구 趙龍九(93년 大學院卒)·朱賢植(80년 獸醫大卒)동문이 선출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林孝圭(79년 師大入·94년 師大卒)동문이 당선됐다.



安相英 부산시장



曹海寧 대구시장



安相洙 인천시장



孫鶴圭 경기도지사



沈大平 충남도지사



姜賢旭 전북도지사



朴泰榮 전남도지사



禹璣敏 제주도지사

부천시부

신임 회장에 金聖又동문 추대

부천시부동창회(회장 白承權)는 지난 6월 24일 부천시내 중동숯불갈비 식당에서 정기총회

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金聖又(75년 齒大卒)동문을 선출했다.

신임 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등산대회, 골프, 바둑대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친목행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동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1	남가주	399 민대홍(상대 62입) 이해영(공대 56입) 성민경(공대 65입) 손수웅(수의대 62) 이성용(음대 58입)이호민(\$100 약대 47줄) 김 영(수의대 63입) 노재량(문리대 56입) 림원규(문리대 57입) 김희창(공대 57입) 정한규 나승욱(문리대 59입) 이 승(공대 59입) 이광재(공대 59입) 김근진(문리대 62입) 조종윤(의대 55입) 박홍섭(문리대 ?) 박재택(상대 52입) 김현홍(상대 59입) 박성욱(상대 58입) 김경태(법대 ?) 오동석(의대 72줄) 노재민(문리대 49입) 민영기(\$100 차대 61입) 김철민(공대 57입) 김동훈(수의대 55줄) 김혁현(공대 64입) 전호선(수의대 67입) 이웅선(상대 45입) 백옥자(음대 71입) 장상엽(상대 53입) 윤방현(사범대 53입) 홍성애(의대 60입) 박희규(수의대 55입) 김윤걸(자연대 77입) 손학식(공대 61입) 김영모(공대 84입) 김홍서(의대 63입) 박한영(차대 56입) 정민영(의대 51입) 강일성(상대 55입) 김성복(공대 59입) 김현희(농대 58입) 배호식(문리대 52입) 홍시일(농대 49입) 김근빈(법대 56입) 이영일(문리대 53입) 김학천(차대 71입) 최재현(수의대 66입) 조민연(상대 58입) 이승국(차대 66입) 신정현(미술대 59) 박진국(의대 67입) 김성욱(차대) 정인환(법대 60입) 조영서(미술대) 성정경(문리대 62입) 김경자(사범대 52입) 권영달(문리대 50입) 유의영(문리대 56입) 한원민(의대 59입) 문병권(상대 55입) 양윤집(사범대 49입) 김명자(\$ 100. 차대 57입) 현순일(문리대 58입) 최재윤(문리대 54입) 진선준(사범대 53입) 권이덕(음대 69입) 이창신(법대 57입) 김병목(의대 49입) 김광자(약대 62입) 신우천(차대 64입) 한홍택(공대 60입) 민희숙(간호대 74줄) 정규희(의대 72입) 김일선(약대 44줄) 전동희(공대 58입) 김광은(음대56입) 김원경(약대 59입) 정황(공대 64입) 최승규(간호대 65입) 김석구(공대 66입) 양은석(음대 70입) 이순희(음대) 김용선(의대 55줄) 고재천(공대 57입) 김달준(약대 50입) 임희식(차대 59입) 권기홍(의대 60입) 최경윤(사범대 51입) 양효준(차대 68입) 최병식(차대 56입) 신무수(차대 63입) 고석규(차대 65입) 지인수(상대 59입) 백남하(의대 59입) 육중훈(상대 67입) 김구자(미술대 61입) 이종희(공대 53입) 방윤지(문리대 59입) 한혜순(간호대 70입) 노병일(경성법학 41줄) 홍훈정(음대 70입) 송정자(의대 73줄) 윤순재(사범대 60입) 김재무(상대 58입) 임동호(의대 55입) 호기원(차대 70입) 조상문(보건대학원 71입) 강경수(법대 58입) 채구황(법대) 권영덕(공대 54입) 정진화(의대 54입) 문철수(농대 50입) 김덕영(의대 53입) 임윤택(의대 63줄) 이우근(음대 50입) 나도명(차대 63입) 최무식(약대 70입) 방연희(간호대 59입) 이병희(수의대 75입) 김상익(공대 46입) 김현주(음대 88입) 이상욱(차대 66입) 이봉수(수의대 66입) 강정훈(미술대 56입) 김선기(법대 59입) 김두희(문리대 58입) 김두희(문리대 58입) 임창희(공대 73입) 김영배(미술대 61입) 도영미(사범대 52입) 김종원(문리대 69입) 김상용(사범대 50입) 송경자(미술대 61입) 김현희(농대 58입) 황봉찬(문리대 48입) 정준성(공대 65입) 이주영(행정대학원 60입) 권순찬(공대 60입) 김태윤(법대 53입) 장진성(약대 66입) 황석우(의대 53입) 이명상(문리대 59입) 오재인(차대 33입) 박재호(차대) 안정희(미술대 62입) 김명수(차대) 강건호(사범대 58입) 조경시(공대 60입) 원광웅(공대 60입) 장인숙(간호대 74줄) 채수안(사범대 73입) 최수명(문리대 59입) 이진영(공대 68입) 이태준(음대 62입) 장기선(간호대 54입) 나정자(간호대 70입) 최희봉(상대 56입) 김희창(공대 64입) 조동현(공대 66입) 윤석철(상대 60입) 이수남(차대 65입) 김창호(상대 57입) 김성호(법대 64입) 백만일(공대 64입) 박해국(간호대 69입) 이창대(공대 60입) 김중현(공대 59입) 탁해숙(음대 67입) 서치원(공대 69입) 박상효(의대 65입) 김대우(차대 62입) 이상숙(차대 31입) 조성윤(법대 46입) 김원호(약대 63입) 서재섭(상대 53입) 김장신(사회대 79입) 추춘득(공대 69입) 한 일(의대 75줄) 권혁장(법대 57입) 유진형(상대 48입) 유동희(공대 77입) 장동호(공대 53입)최해명(미대 61입) 박경순(간호대 53입) 전희택(의대 60입) 김중자(사범대 61입) 김수백(차대 48입) 박범순(가정대 70입) 김상호(사범대 52입) 배윤범(차대 66입) 이병식(\$100. 공대 61입) 이소희(간호대 47입) 강배영(상대 54입) 최명룡(음대) 신우식(차대) 박진득(농대 67입) 김재에(간호대 69입) 김동훈(의대 71입) 김정희(미술대 63입) 이상구(상대 57입) 윤용길(공대 55입) 한태호(문리대 75입) 김태웅(의대 63줄) 김동석(음대 64입) 전낙관(사범대 60입)이정열(간호대 68입) 김상엽(공대 57입) 김명식(의대 61입) 이동희(공대 63입) 탁의용(상대 58입) 이상학(공대 59입) 박재인(약대 60입) 원영배(미술대 74입) 정동규(공대 57입) 이재선(농대 58입) 이범모(차대 74입) 이동일(의대 68입) 이완규(공대 54입) 박남수(문리대 74입) 오인근(약대 59입) 서정빈(법대) 이정근(사범대 60입) 박부강(사범대 64입) 이재우(음대 60입) 양은혁(상대 56입) 이해린(미술대 72입) 하영희(간호대 54입) 문일영(음대 66입) 김숙영(문리대 53입) 양용오(의대 57입) 신광재(공대 73입) 김준일(공대 62입) 이광연(상대 59입) 윤경민(법대 55입) 김동희(법대 57입) 김성태(음대 71입) 이호표(의대 60입) 윤한돈(차대 69입) 김진호(의대 60입) 이정규(농대 69입) 김영기(의대 54입) 추기훈(농대 63입) 김신호(사범대 49입) 신진숙(간호대 68입) 주현(음대) 김익창(의대 56줄) 정전걸(의대 49줄) 김선명(공대 75입) 조용명(차대 54입) 최준호(차대 58입) 김동산(법대 59입) 차민영(의대 78입) 권치균(공대 51입) 배재호(공대 58입) 정동주(가정대 72입) 이계식(공대 78입) 김용재(문리대 61입) 남정우(차대 48입) 나병철(자연대 84입) 이대영(의대 68입) 김세담(법대 55입) 김장섭(약대 44입) 김순덕(법대) 김지익(의대 44입) 고윤규(의대 67입) 박해린(음대 73입) 이기봉(상대 54입) 김석기(상대 56입) 박영순(음대 44입) 김경협(차대 59입) 윤병인(의대 64입) 심영춘(수의대 64입) 김성철(법대) 오양숙(의대 60입) 공성식(경영대 89입) 김재영(농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김종표(법대 58입) 이효경(차대 63입) 이상휘(농대 66입) 신한경(약대 56입) 심상운(상대 54입) 정동규(공대 61입) 이승우(농대 67입) 구자란(농대 72입) 박계영(공대 57입) 강정진(문리대 60입) 구철희(의대 78입) 박태호(차대 66입) 김성환(의대 71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호준(공대 55입) 정현진(간호대 72입) 김인영(공대 58입) 안승호(공대 71입) 민경탁(의대 61입) 신대식(상대 60입) 정원훈(상대 38입) 이형세(법대 68입) 이실홍(의대 42입) 박명근(상대 63입) 우원섭(차대 65입) 이간섭(차대 54입) 홍진(간호대 55입) 한종철(차대 62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이상호(의대 72입) 이기준(법대 54입) 하기환(공대 66입) 이종묘(간호대 73입) 정기정(상대 69입) 박선희(가정대 81입) 이종도(공대 66입, \$100) 신정식(상대 64입) 노명호(공대 61입) 김옥자(음대 56입) 이기재(사범대 52입) 김영선(미대 57입) 이영송(차대 63입) 전병희(약대 55입) 장진성(약대 66입) 권중건(차대 65입) 김철희(공대 71입) 박영근(상대 56입) 최종권(문리대 59입) 김기은(음대 66입) 이환진(상대 68입) 임재영(공대 59입) 김용일(보건대학원 65입) 허영석(미대 67입) 김현경(차대 56입) 최승룡(상대 53입) 장대욱(음대 57입) 이영식(농대 59입) 김승철(사범대 56입) 김해인(가정대 69입) 박인희(간호대 67입) 서중용(공대 57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복근(사범대 69입, \$100) 한영옥(차대 56입) 김동호(차대) 이병국(수의대) 신인자(문리대 59입) 곽철(법대 64입) 김원택(공대 65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대평(문리대 63입) 권대일(대학원 59입) 임낙근(약대 64입) 윤홍기(의대 64입) 문원철(사범대 59입) 이영주(차대 62입) 박입하(차대 56입) 장정용(미대 64입) 김은희(차대 50입) 최희순(간호대 59입) 이호일(의대 60입) 박호웅(약대 63입) 권봉성(문리대 64입) 오수남(의대 5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김태윤(법대 53입) 박일진(차대) 서동영(사범대 60입) 최혁수(간호대 59입) 권승철(차대) 신동국(수의대 76입) 원선영(음대 57입) 임민인(상대 58입) 김교복(농대 63입) 이동성(의대 53입) 이열재(법대 53입) 김성웅(농대 70입) 엄세욱(간호대 69입) 서관석(미대 67입) 허영진(문리대 62입) 양명교(의대 55입) 이수복(약대70입) 홍주안(공대66입) 김홍기(사범대58입) 문덕수(공대73입) 이근설(상대56입) 정광진(농대76입) 최예섭(차대45입) 김재신(음대60입) 박취서(약대60입) 강영민(문리대58입) 임택선(공대52입) 김광근(차대59입) 오길영(차대61입) 김진호(약대64입) 강형운(농대 52입) 이규호(문리대59입) 신정자(사범대63입) 권길상(음대 46입) 김용삼(음대 49입) 윤진수(의대 57입) 장동석(문리대66입)
02		1 김학자(약대 61입)
03	새프럼시스코	8 박세록(\$100, 의대 57입) 김양주(공대 48입) 김이호(상대 55입) 황동하(의대 65입) 정유석(의대 58입) 정지선(상대 58입) 정조웅(공대 60입) 김은중(상대 59입)
04	뉴욕 (NY, NJ, PA일부CT)	326 권운연(의대 65입) 이길태(농대 62입) 한우진(\$100-2년분, 경영대 82입) 손승덕(미술대 77입)조정현(보건대학원 64입) 박수성(\$150 문리대 60입) 김재민(약대 57입) 박성일(상대 58입) 김일평(문리대 50입) 이규용(경성제대 38입) 육순재(의대 69입) 강우정(음대 62입) 한영우(공대 63입) 라준국(공대 47입) 김성건(공대 56입) 김영일(의대 69입) 김은섭(의대 59입) 정기연(문리대 71입) 박용준(의대 63입) 이배용(상대 61입) 김창남(의대 65입) 김명승(\$100 상대 65입) 홍인준(문리대 58입) 권정택(\$100 의대 60입) 최병우(공대 67입) 이문수(자연대 73입) 임대목(의대 60입) 김운태(의대 52입) 김용학(법대 70입) 최석진(사범대 54입) 이수일(\$100 사범대 78입) 주선후(음대 54입) 권영대(공대 69입) 신영수(차대 64입) 이승호(상대 63입) 이준행(공대 47입) 홍명희(간호대 61입) 방준재(의대 63입) 정영숙(음대 73입) 한창섭(문리대 57입) 장미숙(차대 85입) 김미봉(문리대 69입) 이지현(문리대 73입) 김호걸(법대 61입) 이우성(사범대 57입) 허용웅(상대 63입) 김기택(수의대 81입) 최장현(상대 77입) 박상원(음대 69입) 고영수(미술대 57입) 황용규(의대 66입) 전영성(의대 67입) 우상영(상대 55입) 한영우(\$56.86 공대 63입)윤영자(미술대 60입) 이종대(약대 65입) 민병각(상대 57입) 배윤숙(미술대 65입) 김동필(음대 59입) 김선정(간호대 54입) 황진환(약대 62입) 조황환(차대 65입) 유희정(문리대 59입) 김연석(상대 54입) 오영식(법대 72입) 고재자(음대 57입) 이덕인(미술대 60입) 문미애(미술대 56입) 한용진(미술대 56입) 손광호(의대 59입) 윤성수(공대 71입) 박경숙(간호대 72입) 이현호(공대 58입) 김기훈(상대 52입) 추재욱(의대 63입) 고순정(간호대 69입) 김훈(의대 65입) 배상규(약대 61입) 이미령(미술대 83입) 조숙자(간호대 59입) 이선호(의대 75입) 용희식(법대 58입) 박고자(음대 61입) 이강홍(상대 60입) 우한호(문리대 61입) 김진승(문리대 53입) 최구진(약대 54입) 김현중(공대 63입) 이필영(사범대 54입) 김주은(공대 71입) 김형덕(상대 57입) 이정자(간호대 63입) 최용열(문리대 72입) 김기웅(차대 49입) 유정자(간호대 68입) 전민욱(간호대 66입) 김익성(상대 52입) 최철용(농대 61입) 허재순(사범대 54입) 배병에(간호대 45입) 김기훈(상대 52입) 최한선(공대 56입) 나연수(사범대 53입) 정순자(음대 63입) 성백문(공대 61입) 정기봉(사회과학대 79입) 전월일(의대 83입) 고학진(의대 66입) 장동만(문리대 61입)신종철(의대 57입) 김세중(공대 50입) 이종성(의대 64입) 이대연(약대 65입) 선우지민(약대 54입) 조문혜(약대 59입) 양문석(\$100, 상대 54입) 김용연(문리대 63입) 최수봉(간호대 66입) 진봉일(공대 50입) 이봉석(의대 63입) 김태호(약대 63입) 민현(의대 55입) 송영순(사범대 60입) 등현근(의대 51입) 이영일(의대 60입) 김학수(상대 65입) 송용길(신문대학원 69입) 신남철(인문대 81입) 전웅상(공대 46입) 연봉일(문리대 61입) 윤병남(\$100, 사범대 62입) 손갑수(약대 59입) 김양수(미술대 69입) 김한중(의대 56입) 김문경(약대 65입) 이상훈(법대 64입) 이강욱(공대 70입) 방정화(의대 61입) 김인형(미술대 59입) 김학자(간호대 59입) 최정애(간호대 66입) 이찬서(자연대82입) 박선섭(공대61입) 최수용(상대 55입) 김용재(의대 60입) 김영희(사범대 62입) 송재한(약대 61입) 전재우(공대 75입) 조창현(문리대 66입) 이봉상(약대 59입) 엄종열(미술대 65입) 김영만(상대 59입) 박대규(사범대 55입) 유재은(미대 71입) 차국만(상대 56입) 이영재(상대 58입) 윤영섭(의대 63입) 정태수(문리대 45입) 양승우(법대 71입) 김경진(약대 54입) 장태환(의대 61입)정연희(미대 64입) 유우영(\$100, 공대 66입) 서병선(음대 65입) 장기선(약대 61입) 홍선경(의대 58입) 임석태(법대 46입) 김정준(의대 52입) 이영숙(간호대 56입) 김정용(의대 67입) 송관호(의대 58입) 손영철(공대 68입) 양성훈(의대 71입) 이진수(의대 63입) 김호연(의대 46입) 강영선(공대 50입) 이유찬(의대 58입) 임공세(의대 63입) 조규웅(의대 66입) 김종원(사범대 62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찬명(약대 57입) 허병렬(사범대 42입) 권오근(상대 62입) 김용재(의대 60입) 최형무(법대 69입) 최종진(의대 58입) 김훈일(공대 60입) 조대영(공대 61입) 강호(음대 63입) 박소희(의대 49입) 고석원(문리대 60입) 이문자(간호대 70입) 조은래(법대) 이태석(공대 69입) 문길용(음대 45입) 이정은(의대 58입) 최원희(문리대 56입) 이상근(의대 60입) 김영철(의대 55입) 임진식(음대 54입) 정인식(상대 58입) 김원복(문리대 50입) 이재진(의대 59입) 양명자(사범대 63입) 윌도수(차대 68입) 김해암(의대 58입) 한홍호(법대 52입) 장병호(의대 56입) 이기덕(농대 56입) 이기영(농대 70입) 김경순(상대 57입) 서재숙(음대 65입) 전병삼(약대 54입) 김현기(공대 62입) 최창식(의대 61입) 김종윤(사범대 51입) 이국진(사대 51입) 윤순철(사범대 44입) 이종성(의대 58입) 변찬의(상대 63입) 유재섭(공대 69입) 박상원(음대 69입) 김영태(공대 53입) 김희국(약대 54입) 민만기(공대 62입) 정진우(의대 72입) 노용면(의대 55입) 이종호(의대 63입) 김재현(상대 70입) 이연찬(공대 52입) 선우문(의대 60입) 김세환(공대 65입) 최한용(농대 58입) 탁명양(약대 56입) 황동하(수의대 76입) 김충진(농대 68입) 김상각(상대 57입) 윤갑석(공대 53입) 김우영(상대 60입) 이광순(미대 60입) 김승관(의대 76입) 윤정욱(약대 50입) 김지익(의대 71입) 이정애(미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정소현(농대 80입) 윤인숙(간호대 63입) 변광복(간호대 63입) 백영복(간호대 69입) 김병술(약대 52입) 이재택(법대 60입) 조상근(법대 69입) 조달훈(사범대 66입) 노경희(간호대 66입) 강석권(법대 61입) 변영철(약대 64입, \$100) 박경원(미대 66입) 최영태(문리대 67입) 정사열(법대 55입) 이상길(차대 66입) 허선철(의대 58입) 임은진(농대 46입) 이준우(의대 55입) 임종오(문리대 63입) 김순자(약대 63입) 호민선(상대 59입) 이시진(문리대 58입) 김구희(상대 63입) 이정은(법대 53입) 송기인(의대 60입) 정일화(상대 55입) 박창익(농대 64입) 백유자(간호대 64입) 이상수(공대 60입) 신혜분(약대 55입) 홍준호(의대 67입) 조중수(공대 64입) 이재원(법대 60입) 서중용(약대 70입, \$100) 이경림(상대 64입) 손원배(농대 70입) 조경호(의대 66입) 성기호(의대 57입) 신규호(의대 68입) 이종우(의대 58입) 변영석(의대 65입) 이병희(의대 60입) 최일단(미대 55입) 박영태(상대 63입) 박순영(법대 56입) 조충열(의대 60입) 조성무(공대 56입) 김욱현(의대 59입) 서상철(의대 56입) 유호근(법대 71입) 김광호(의대 72입) 허병렬(사범대 42입) 한승일(미대 60입) 이종현(의대 60입) 서홍서(의대 65입) 김일하(차대 58입) 민박식(의대 66입) 최희웅(문리대 64입) 신정택(약대 52입) 이준우(음대 65입) 정현진(법대 63입) 백승원(의대 73입) 민준기(공대 59입) 석창호(의대 66입) 한영수(의대 61입) 유숙현(간호대 61입) 남일우(법대 57입) 윤현남(공대 63입) 장영자(간호대 68입) 전희근(의대 54입) 조희재(음대 58입) 박승규(의대 55입) 김창수(약대 64입) 남상태(간호대 65입) 차대웅(상대 54입) 최영혜(간호대64입) 박장생(의대54입) 이삼민(문리대58입) 홍정표(음대67입) 주성문(의대58입)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206 유효명(의대 58인) 박정호(공대 66인) 최승정(공대 60인) 김현주(문리대 61인) 원종수(의대 69인) 이연우(문리대 65인) 김사직(상대 65인) 김병운(문리대 65인) 김운경(치대 55인) 최희수(문리대 67인) 이순자(간호대 66인) 이종민(의대 63인) 배규태(상대 61인) 최인갑(\$110 공대 61인) 박종수(수의대 58인) 이영모(의대 59인) 최순분(간호대 56인) 최호승(사법대 58인) 김광재(문리대 69인) 김길중(의대 59인) 이순희(음대 57인) 최홍기(법대 57인) 최재근(의대 59인) 서승환(치대 61인) 고성서(경성사법 38인) 김용주(공대 77인) 박현영(의대 64인) 주선우(공대) 김희주(의대 68인) 장현순(의대 56인) 김중수(의대 65인) 노영일(의대 64인) 문조훈(의대 62인) 최길용(문리대 57인) 이지훈(의대 63인) 김갑조(간호대 51인) 정훈(문리대 61인) 구자원(법대 55인) 이소희(의대 61인) 노재욱(의대 64인) 진관보(의대 72인) 하용수(의대 61인) 임춘수(의대 57인) 배건재(공대 53인) 김연두(상대 50인) 이화영(공대 62인) 이승자(사법대 60인) 임이남(\$100, 미술대 54인) 손기용(의대 68인) 윤덕상(치대 68인) 김윤하(공대 70인) 최애욱(간호대 47인) 이소정(음대 84인) 정호(공대 62인) 장철(의대 71인) 정호(의대 71인) 김유식(의대 64인) 이상태(의대 59인) 박준환(의대 57인) 송용덕(의대 57인) 유석훈(상대 61인) 이재홍(의대 58인) 구형서(공대 69인) 김기태(의대 52인) 정태(\$100, 의대 57인) 임정혁(사법대 54인) 김우영(의대 70인) 이범구(공대 59인) 이수인(\$200, 의대 56인) 김영호(의대 77인) 조철원(문리대 66인) 송원희(미술대 60인) 문광재(의대 62인) 이재철(사대 67인) 유준석(의대 53인) 민영기(공대 65인) 김정근(의대 61인) 박일성(의대 60인) 이경자(미술대 65인) 신석근(문리대 54인) 김현규(의대 47인) 서영일(의대 68인) 조철(공대 49인) 장재천(\$100, 의대 59인) 강태수(의대 65인) 문경우(의대 67인) 홍해태(사법대 72인) 김정수(문리대 69인) 김현주(문리대 64인) 신영규(의대 57인) 주병순(간호대 64인) 설상수(문리대 56인) 정우철(의대 55인) 문병훈(사법대 46인) 하정윤(치대 81인) 양홍미(의대 67인) 서문석(의대 62인) 김원정(의대 69인) 이완중(의대 61인) 마동일(의대 57인) 김이순(공대 56인) 진순금(간호대 64인) 송용재(의대 63인) 한성수(의대 56인) 박정일(의대 61인) 황규정(의대 65인) 박영준(문리대 67인) 이윤모(농대 57인) 박숙(의대 64인) 김현석(문리대 69인) 이원호(의대 59인) 윤석환(치대 62인) 임영신(의대 52인) 임동숙(간호대) 이기억(문리대 47인) 이광선(의대 65인) 이종일(의대 71인) 엄우광(문리대 61인) 지병식(사대 65인) 백준철(공대 66인) 최순강(음대 65인) 한의일(공대 62인) 한동하(의대 58인) 이상일(의대 54인) 김윤태(의대 63인) 윤봉수(간호대 73인) 황현상(의대 55인) 권순희(간호대 78인) 김동수(공대 48인) 계병수(의대 69인) 정훈(문리대 61인) 이백기(의대 58인) 김형수(농대 68인) 김태기(의대 68인) 안창현(의대 55인) 이진주(문리대 55인) 진보리(의대 56인) 이진경(공대 73인) 김용우(공대 58인) 이수인(의대 56인) 장시경(의대 58인) 정영숙(사법대 63인) 안은식(문리대 55인) 장세근(의대 57인) 장세근(의대 57인) 허서룡(의대 60인) 김건(문리대 63인) 한재은(의대 59인) 김봉원(법대 51인) 이민우(의대 67인) 원종수(의대 69인) 배영남(의대 54인) 이명자(간호대 60인) 한경희(간호대 67인) 이기춘(의대 42인) 정길희(의대 65인) 김창규(의대 65인) 이태안(의대 67인) 최혜숙(의대 53인) 김일훈(의대 51인) 이규달(의대 68인) 임근식(문리대 56인) 위정호(의대 67인) 한성학(의대 57인) 박봉수(공대 59인) 표양순(간호대 71인) 장병호(의대 66인) 조철영(의대 75인) 김인수(상대 60인) 이인선(미대 72인) 최홍순(공대 60인) 임현재(의대 59인) 강영규(수의대 67인) 소진문(치대 58인) 유태일(교육대 67인) 김용성(상대 54인) 고병철(법대 55인) 정승규(공대 60인) 장윤일(공대 60인) 강창만(의대 58인) 구경희(의대 59인) 계훈택(의대 55인) 송재현(의대 48인) 배건재(공대 53인) 이덕수(문리대 62인) 이철주(치대 77인) 전영자(미대 58인) 남상용(공대 52인) 고영철(의대 45인) 이영웅(의대 62인) 김택수(의대 63인) 조형원(의대 54인) 박정훈(공대 66인) 장남재(사법대 56인) 이범석(의대 57인) 임재일(농대 64인) 이정일(농대 57인) 장기남(문리대 62인) 김정일(의대 57인) 서상원(\$100, 의대 71인) 조중영(의대 63인) 조영재(상대 68인) 김봉주(사대 72인) 차광순(사대 70인) 최동규(법대 79인) 이윤락(공대 48인)
06	워싱턴 DC (MD, VA)	116 윤성희(사법대 ?) 한종환(문리대 55인) 박상진(문리대 53인) 강경구(사법대 49인) 박철(공대 57인) 조희유(문리대 61인) 이완승(의대 59인) 김정남(음대 65인) 이태영(법대 60인) 이재필(의대 51인) 김기봉(공대 63인) 김부근(의대 54인) 배병권(상대 55인) 윤만중(의대 53인) 유덕영(공대 57인) 김복순(사법대 55인) 박찬호(의대 67인) 김태연(상대 56인) 한일영(농대 53인) 김주희(공대 71인) 최호택(문리대 60인) 한인섭(문리대 55인) 안용구(음대 46인) 박수용(\$100, 의대 69인) 한의정(수의대 60인) 김순일(사법대 64인) 서희원(의대 55인) 전희순(간호대 80인) 안승진(문리대 55인) 남광순(음대 64인) 박홍(의대 45인) 김신자(음대 54인) 맹옥철(간호대 68인) 이선구(\$100, 문리대 65인) 이규남(상대 68인) 임나중(의대 55인) 박양희(음대 58인) 최규식(상대 64인) 신영철(의대 53인) 김병오(의대 63인) 박준영(의대) 김정현(문리대 60인) 김재동(인문대 70인) 박홍우(문리대 65인) 박윤수(\$100, 문리대 48인) 백순(법대 58인) 김경기(법대 50인) 한해경(간호대 43인) 김명자(법대 52인) 유남(의대 61인) 민갑우(문리대 61인) 오인환(문리대 63인) 이영복(공대) 박병일(농대 69인) 이재승(의대 55인) 도상철(의대 63인) 오해현(의대 59인) 방은호(의대 42인) 조근실(사법대 40인) 조병선(의대 71인) 마기일(치대) 한해경(간호대 43인) 심준보(상대 55인) 문성길(의대 63인) 이정규(미술대 77인) 이항열(법대 57인) 주일(의대 46인) 문세희(법대 57인) 엄승용(농대 57인) 오기창(법대 50인) 김석호(공대 78인) 고우현(법대 57인) 김창호(법대 56인) 이정섭(의대 48인) 박병영(의대 66인) 조남현(의대 64인) 김충규(의대 60인) 이진규(\$100, 공대 63인) 김창중(법대 60인) 김진홍(의대 68인) 장병규(사회과학대 76인) 이나원(사법대 58인) 박형순(의대 60인) 김근(농대 75인) 박태조(음대 64인) 박영호(공대 64인) 홍영석(공대) 김택경(의대 54인) 신상규(의대 52인) 조인욱(간호대 71인) 최동현(문리대 50인) 장효강(공대 66인) 김수용(문리대) 이근순(간호대 73인) 강준희(의대 71인) 윤기일(의대 60인) 김재구(의대 56인) 전경철(공대 55인) 소숙영(간호대 64인) 이홍석(공대 49인) 변민식(사법대 49인) 정재성(의대 68인) 임필순(의대 54인) 김기현(공대 67인) 박성태(문리대 71인) 신영철(의대 53인) 전금실(의대 57인) 김효성(공대 51인) 이항모(의대 45인) 유영준(의대 68인) 정두현, 석근법(문리대 61인) 박인영(의대 69인) 정영훈(의대 49인) 이정희(의대 59인) 오광동(공대 52인)
07	워싱턴주 (WA)	29 최두환(공대 83인) 민병남(문리대 49인) 김동호(농대 58인) 조준범(행정대학 69인) 고희선(법대 64인) 이재수(공대 65인) 권영길(의대 64인) 한민섭(공대 49인) 이철(사법대 48인) 최준현(농대 58인) 허윤환(사법대 57인) 안승희(농대 59인) 최경수(사법대 52인) 전병택(상대 60인) 이나원(사법대 58인) 이혜숙(문리대 64인) 김영일(공대 53인) 양용관(수의대 62인) 채태용(법대 55인) 윤재명(의대 65인) 김봉우(법대 74인) 전계상(공대 40인) 김재호(상대 54인) 유성렬(공대 72인) 맹병규(문리대 70인) 이순우(공대 56인) 이동림(의대 52인) 황수택(의대 65인)
08	휴스턴 (HOUSTON)	36 김동섭(공대 75인) 명인성(공대 50인) 루승국(의대 64인) 조시호(문리대 59인) 이민연(\$100 법대 61인) 김기수(사법대 70인) 김진영(공대 58인) 이재동(공대 83인) 김영일(공대 60인) 최동주(문리대 64인) 문해련(미술대 73인) 박태우(공대 64인) 이길영(입법국(문리대 64인) 신용선(공대 55인) 김정훈(공대 46인) 박민자(사법대 58인) 김충열(의대 56인) 노승국(의대 64인) 활호자(음대 62인) 박승규(의대 59인) 김태훈(공대 57인) 유금영(법대 50인) 허천(공대 60인) 김성철(의대 61인) 김학재(공대 60인) 이숙배(문리대 62인) 이진주(공대 63인) 김영창(공대 64인) 박진수(의대 58인) 이은실(문리대 53인) 현인실(공대 57인) 최광욱(문리대 73인) 최관일(공대 54인) 이진현(의대 67인) 이규진(의대 60인)
09	달라스 (DOLLAS)	7 서태근(문리대 55인) 권혁초(사법대 52인) 신철영(강성호(수의대 81인) 전중희(공대 56인) 김인호(공대 47인) 임성민(사법대 56인)
10	미네소타 (MN)	19 강선명(상대 48인) 권학주(치대 59인) 김관식(공대 61인) 주영돈(농대 54인) 송창원(문리대 53인) 김영남(사법대 53인) 권승림(공대 52인) 남세현(공대 67인) 변우진(인문대 81인) 왕규현(의대 56인) 주원수(농대 62인) 박상민(공대 71인) 남세현(공대 67인) 김태환(의대 58인) 최정용(공대 58인) 신학철(공대 75인) 김관식(공대 61인) 문일지(공대 61인) 조영준(문리대 62인)
11	조지아 (GA)	24 문충현(사회대 84인) 임수암(공대 62인) 최진(문리대 60인) 김용건(문리대 48인) 김용자(사법대 64인) 김애순(문리대 68인) 김재철(공대 69인) 임희용(공대 60인) 이철남(의대 50인) 사정주(\$100, 사법대 70인) 윤민자(음대 65인) 주중광(의대 60인) 유우영(의대 68인) 장병근(대학원 64인) 김민복(문리대 72인) 한영수(의대 54인) 이관호(공대 45인) 은철수(상대) 백낙영(상대 61인) 조덕성(공대 71인) 박찬기(법대 56인) 이준남(의대 59인) 계광무(공대 63인) 오경호(농대 60인)
12	아리조나(AZ)	10 신경호(의대 63인) 오막걸(의대 58인) 오성숙(간호대 59인) 유기석(문리대 60인) 서기권(공대 70인) 최준태(공대 69인) 최상호(공대 53인) 박양재(의대 48인) 이은수(경영대학원 73인) 진병규(공대 70인)
13	유타(UT)	5 김인기(문리대 58인) 이경태(사법대 47인) 한성양(문리대 62인) 김성완(문리대 59인) 손홍용(공대 58인)
14	하와이(HI)	15 김승태(의대) 신동인(공대 58인) 최치덕(법대 59인) 정태우(사법대 44인) 김동림(사법대 55인) 김성열(의대 68인) 백영기(의대 50인) 유재호(\$100, 문리대 50인) 구해근(문리대 60인) 오갑열(행정대학원 75인) 박성재(상대 49인) 남궁중(공대 52인) 황재만(농대 71인) 김창원(공대 49인) 김용진(공대 50인)
15	오레곤(OR)	13 최영자(간호대 56인) 한영준(사법대) 이철민(공대 50인) 조형원(수의대 55인) 최태인(사법대 59인) 김선호(사법대 59인) 박창성(사법대 72인) 박희진(문리대 57인) 김상순(상대 67인) 김상만(음대 46인) 성성모(사법대 67인) 최동근(문리대 50인) 이태호(문리대 61인)
16	기타(서부)	9 신경일(공대 58인) 이순환(의대 53인) 박준(사법대 87인) 최원일(상대 56인) 서민길(의대 63인) 이학은(의대 57인) 홍지호(공대 53인) 박용호(의대 59인) 김현철(의대 57인)
17	기타(중부)	4 오새환(의대 67인) 김호규(의대 62인) 이희백(의대 55인) 유태준(의대 59인)
18	기타(동부 & 캐나다)	19 이희운(\$100, 문리대 54인) 정일환(의대 63인) 윤영옥(의대 57인) 박태진(의대 62인) 김정관(의대 55인) 오석일(의대 70인) 김수신(의대 52인) 한경성(공대 52인) 장영규(농대 65인) 한광수(의대 57인) 오신중(의대 60인) 정양수(의대 60인) 정우영(의대 50인) 박종선(공대 60인) 오인석(법대 59인) 박준홍(법대 59인) 조동림(의대 56인) 이준진(공대 55인) 윤경숙(문리대 59인) 정홍택(상대 61인) 이혜일(\$100 의대 57인) 김순경(공대 41인) 할남수 오연자(수의대 53인) 이정필(의대 58인) 이승욱(사법대 64인) 유영걸(의대 72인) 김영선(의대 52인) 양운택(\$100, 의대 58인) 이신상(농대 63인) 홍종현(문리대 75인) 송영락(의대 66인) 김시영(의대 56인) 성정호(의대 59인) 강영배(수의대 59인) 김태영(의대 55인) 이병인(수의대 69인) 윤원길(의대 65인) 이재희(상대 88인) 원종민(의대 61인) 강준철(사법대 59인) 최중우(상대 63인) 진병학(의대 57인) 이윤성(수의대 81인) 이승환(공대 56인) 이민택(의대 58인) 김세경(미술대 62인) 이상봉(\$100, 문리대 65인) 이규호(공대 56인) 열극용(의대 60인) 윤정나(음대 57인) 정덕준(상대 63인) 정희광(의대 56인) 서준민(공대 64인) 김현영(수의대 58인) 남신우(공대 61인) 김용국(의대 58인) 임광상(공대 57인) 심원섭(의대 73인) 이광연(공대) 윤석희(치대 68인) 주기복(수의대 68인) 안지영(문리대 71인) 구정윤(의대 55인) 오진석(치대 56인) 김영우(공대 55인) 신성식(공대 56인) 문상규(의대 62인) 서진석(의대 62인) 최현(공대 68인) 양운택(의대 58인, \$100) 이기범(의대 56인) 전병남(상대 73인)
20	뉴잉글랜드 (MA, RI)	44 이은주(음대 73인) 이은희(의대 54인) 장용복(공대 58인) 조준호(공대) 박경민(의대 53인) 이의인(공대 68인) 채용석(공대 72인) 정태진(의대 53인) 정태숙(간호대 66인) 윤희경(문리대 61인) 정정욱(의대 60인) 이재홍(공대 67인) 안광원(의대 53인) 김동희(간호대 62인) 이희규(공대 69인) 김인수(사법대 55인) 김충성(경영대 76인) 김영호(치대 45인) 변종원(공대 70인) 김성민(문리대 59인) 김은환(의대 60인) 최인성(의대 72인) 김재호(상대 56인) 김주영(의대 52인) 김교안(의대 59인) 박현자(음대 62인) 채두경(의대 59인) 김길원(의대 59인) 강경식(문리대 55인) 윤상재(수의대 62인) 박병준(공대 52인) 김양일(경영대) 이재신(공대 57인) 김문수(농대 61인) 변희경(음대 66인) 문대욱(의대 73인) 문형성(의대 65인) 정용국(공대) 박기순(간호대 70인) 김경석, 배성호(의대 65인) 노인규(의대 52인) 김순규(문리 53인) 김장태(문리대 53인) *지역동창회에서 내 구독료 보조금(\$5000)은 자연동창회 관아후원금으로 기재되었음
21	하트랜드	26 김계운(의대 57인) 민홍식(상대 56인) 이정희(의대 88인) 지일성(의대 61인) 김주원(치대 52인) 박영자(사법대 54인) 차봉희(의대 57인) 김백년(의대 52인) 배규영(사법대 68인) 오명순(간호대 60인) 이경배(사법대 61인) 류광원(문리대 58인) 박옥동(상대 56인) 박우환(문리대 52인) 신두식(의대 58인) 오태우(의대 56인) 오계숙(미대 59인) 임하진(의대 79인) 민경환(의대 56인) 유준혁(의대 70인) 박세희(의대 76인) 이상강(의대 70인) 김경숙(간호대 70인) 최원준(의대 60인) 구명순(간호대 66인) 이상문(상대 57인) 권선수(공대 71인) 박영환(의대 72인) 장호(문리대 60인) 김태양(?) 박문희(의대 52인) 임옥인(공대 75 인) 홍수용(의대 59 인) 심기원(상대 57인) 심재철(공대 78인)
22	펜실베이니아	9 권선수(공대 71인) 박영환(의대 72인) 장호(문리대 60인) 김태양(?) 박문희(의대 52인) 임옥인(공대 75 인) 홍수용(의대 59 인) 심기원(상대 57인) 심재철(공대 78인)
특별기부금		2 (고) 전시물 동문의 미망인 \$ 50, Mrs. 안광원 \$ 82
계		1,382 71,098.86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	임낙균(200) 김성복(200) 심영춘(200) 오재인(200) 김종표(200) 한홍택(\$3,000) 이명상(200) 이병준(3,000) 전희택(3,000) 이청광(1,500) 김동석(200) 김성희(200) 서동영(200) 조만연(300) 정인환(200) 오길필(200)	17	13,000
02		김향자(420) 박성민(200)	2	620
03	샌프란시스코			
04	뉴욕(NY, NJ, PA 일부 CT)	노용면(200) 이운순(\$200) 유정옥(\$3,000) 뉴욕악대동창회 \$1,000 김용재(200)최수용(500) 오태희(250)방준재(250)이준행(500) 한창섭(200) 이운순(200) 이기영(200)김상각(500) 이기철(200) 이명희(200) 이대영(200) 김영덕(200) 조대영(200) 최영태(200)김용환(200) 이문휘(200) 이재원(200) 이재덕(200)	23	11,0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시카고지역동문들 관악후원회 만찬 찬조금(520)이용락(10,200) 강수상(1,000) 이기억(500) 지명식(300) 노재욱(\$300) 강창만(\$500)조철원(250)김정주(200)김호범(200) 송재현(200) 문병훈(200) 성홍환(250) 최일주(500) 김기태(200) 임현채(1,000) 임근식(500) 소진문(350) 신석균(300) 최길용(300) 강영국(300) 김병윤(200) 최희수(200) 황치용(200) 조대현(200) 정승규(200) 임춘수(500) 장기남(500) 이정일(200) 최호승(200)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송순영(1,000) 한재은(1,000) 구경희(800) 조종행(500) 박영규(300) 전현일(200) 김현옥(200)	38	28,470
06	워싱턴 DC (MD, VA)	주일(\$200) 곽홍(\$250)변만식(200)문성길(200) 이영목(200)방은호(250)신상균(200) 장효강(200) 전신애(미연방정부 노동성장관실 여성국장 500) 진금섭(200) 권철수(500) 박윤수(1,000)	12	3,900
07	워싱턴주	김성열(200) 김성렬(200)	2	400
08	휴스턴	조시호(3,000) 김정훈(200) 탁순덕(250)	3	3,450
09	달라스	김옥균(200)	1	200
10	미네소타	김필주(\$200) 권승립(200) 김태환(500) 이창재(200)	4	1,100
11	조지아	김예순(\$200) 임수암(\$200) 김용건(200)	3	600
12	아리조나	오덕겸(300) 박성숙(300)	2	600
13	유타	김성완(500)	1	500
14	하와이			
15	오레곤	나재관(200) 김상순(200) 정태훈(200) 조충훈(200)	4	800
16	기타1(서부)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정구영(200)	1	200
19	필라델피아	김세경(250) 이정필(200) 김현영(200) 현재원(200) 이상봉(200) 정정수(200)	6	1,250
20	뉴잉글랜드	김순규(200) 이재신(200) 지역동창회(500)김재호(200) 김영호(\$1,000) 정태진(\$200) 김인수(200) 윤상래(200) 변화경(300)	9	3,000
21	하트랜드	김호원(\$300) 하트랜드 지역동창회(\$500) 류광현(200) 이상문(200) 지역동창회(500) 김용환(200)	6	1,900
22	중부펜실바니아			
	특별후원금	임광수 총동창회장 (\$5,000) 명태현(총동창회 관악회 이사,500) 총창회 순방단(\$2,000)		7,500
일반 이사 합계			129	\$56,970
종신 이사 합계			5	\$13,500
총 계			134명	\$78,49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2년 5월 28일~6월 30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전구, 정 태
이청광, 전희택, 윤정옥
한홍택, 조시호

300달러이상

300달러이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2년 1월 19일 ~ 6월 30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 방은호 (워싱턴 DC · 약 42입)
- 윤정옥 (뉴욕 · 약 50입)
- 김영덕 (뉴욕 · 공 53입)
- 이병준 (남가주 · 상 55입)
- 김병수 (뉴욕 · 상 55입)
- 최수용 (뉴욕 · 상 55입)
- 유창남 (뉴욕 · 의 58입)
- 오인석 (뉴욕 · 법 58입)
- 이전구 (뉴욕 · 농 60입)
- 임낙균 (남가주 · 약 64입)

3,000달러이상

방은호 (약42입) \$5,000

1,000달러이상

300달러이상

300달러이하

母校와 後進을 위한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基金을 출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한홍택(\$1,000)황석우(100) 정인환(200)권길상(100)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석우(100)	22	358,550
		이양숙(200) 박우선(200)	2	400
03	샌프란시스코	김양주(300)	1	300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김기훈(\$250)최수용(5,000)김석식(100)진성호(19,400) 추재욱(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환(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림(300) 방준재(300) 주의돈(300) 남상래(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김연석(200)동형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영(100) 허병렬(100) 심기련(100) 유진형(50)	39	91,6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소진문(100) 임훈수(200) 이윤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종수(200) 구자원(200) 이기춘(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15	4,700
06	워싱턴 DC(MD, VA)	방은호(5,000)지역총창회(3,990:조수미 CD 266장 판매대금) 이규섭(150) 방은호(5,000) 박윤수(1,000) 박용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규(50) 이선병(50)	9	15,590
07	워싱턴주(WA)			
08	휴스턴(HOUSTON, TX)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4	7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인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송정원(100)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6	800
11	조지아(GA)	장병근(100)	1	100
12	아리조나(AZ)	박양세(100) 박양세(200)	1	3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김영빈(500) 이회백(1,000)	2	1,50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0	4,100
20	뉴잉글랜드(MA)	도은희(200)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제호(100)	5	3,6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총 계	당회계년도 모금액 총액 \$24,190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분 \$ 1,000 방은호 동문 기여금 \$ 5,000은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	129	506,083.33

약정하신 동문들

*2001년 7월1일부터 2002년 4월 25일까지 납입하신 분. 21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10,0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10,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김영빈(기타 중부 /\$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7명 납입)	\$260,500 (\$41,5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총 합 계		136명	725,083.33

조수미 CD 주문서

조수미 CD "Love from Washington" 주문서 (8-25-01 Washington DC 공연 실황 녹음)

구입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구입 수량 및 금액: CD _____ 개 총액 \$ _____ (우송료 포함)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 *가격: 1장 당 \$15.00 (우송료 별도)
 우송료는 1장 당 \$3.00, 복수 구입시 추가 1장 당 \$1.00 추가

*주문서를 기입하여 CD대금과 우송료를 합계하여 재미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SNUAAUSA
 790 BUSSE ROA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 판매대금 전액은 재미 동동창회를 위한 관악후원금과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에 적립됩니다.

접취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Ⅱ)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데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 1)
- 2)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 ()시간 정도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시해도 됩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애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만족한다()
 - 2)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 1) 예()
- 2) 아니오()

X)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알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동문>

성명 : _____
 주소 : _____
 전화: _____
 e-mail: _____
 Fax : _____

기타 의견란

동문이 운영하는 우편주문 가능한 Gift Shop

지명식 동문(사대 65입)부부는 시카고 근교 Northbrook의 White Plains Shopping Center내에서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한국인 피부에 적합한 Shiseido, 참존, 아모레 화장품과 지성피부, 여드름 전용화장품 Dr. Eslee를 취급하고 있다.

그 밖에 각종 선물용품, 가정용품, 부엌용품, 속옷류, 전기제품, 약세사리, 영양제, 비타민 등을 구비하고 있고, 전자과를 방지하여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Sheild Life 제품도 갖추고 있다. 귀국 선물로 인기있는 로얄제리, 커피 및 꿀가루등도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전화주문이나 우편주문은 UPS로 즉시 발송하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10:00AM-8:00PM, 일요일 1:30PM-5:00PM 이다.

많은 동문들의 이용을 기다리겠습니다.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 동문 (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김종율 B:914-714-0587 F:914-686-0186
남가주	임낙균 B:213-999-1600 H:310-530-4353	백옥자 B:213-365-9449 C:818-620-8316
샌프란시스코	정조용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패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한재은 B:841-741-7990 H:847-428-4929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태환 B:612-863-4060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진금섭 B:703-205-8064 H:703-631-0631	김 국 B:703-304-2129 H:703-830-7979
워싱턴주	허윤행 B:360-683-4195 H:360-683-4197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휴스턴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변종무 B:713-743-9301 H:713-783-3178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윤성수 H:480-283-9806 yunss@cox.net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리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필라델피아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주기목 B:215-745-9030 F:215-745-3055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장명우 F:402-472-5290
중부펜실베이니아	송재훈 B:814-865-6998 H:814-466-0542	이 욱 B:814-862-0494
캐롤라이나	김기현 B:919-560-6451 H:919-560-5012	Fax : 919-560-5012
캐나다/온타리오	유희자 B:416-960-0074	노정희 B:905-886-4152
캐나다/밴쿠버	황태구 B:604-433-8539	박병우 B:604-570-0803 H:604-420-7034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동문 사업제 안내

강관

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

골프용품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총 60입)
(212)564-2255
New York, NY

중인회계사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

이법선(상 48입)

이경림(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

Young Tail Choi EA

최영태(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

Deloitte & Touche LLP

김낙구(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

Wesley Y Chung

정일화(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

이규섭(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

공직상담

IBECONS INT L
김제철(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

교 회

진리교회
김태철목사(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

국제금융

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

PTC International

이태영(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

금 고

Alco Lock & Safe
정인식(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

금융/용자

부 역

Nina America Inc.
강석권(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

EAC Trading Inc.

윤정숙(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

Oregon Hide Co.

조형원(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

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

변호사

최형무 변호사
최형무(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

한국서적 전문 서울서점

권혁진(문 60입) 창업
(773)463 7756

김용화 변호사

김용화(법대 69입)
(212)619-1770
New York, NY

병원 내과

Joon J Bang, MD
방준재(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

병실 수의과(동물병원)

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

병실 신경외과

Rim and Sul, MDPC
임춘수(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

병실 신경정신과

Kenneth Song
송관호(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

병실 위장내과

Chang Ho Suk
석창호(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

병실 치과

Sung Bo Hong, DMD
홍성보(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

보석

Gold Plus
서재숙(음 65입)
(212)354-8988
New York, NY

보험

KOI 종합보험
김성희(상 67입)
(213)387-5252
Los Angeles, CA

한미종합보험

박일순(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

한영종합보험

한영우(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

부동산

Cosmo Realty
이재덕(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

C-21 Infinity

이재원(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

REMAX(회망부동산)

최 호(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

Gateway Title Co.

박인수(총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

ERA Premier Properties

범민식(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

로알 부동산

임무광(문 65입)
(800)474-0200
SKOKIE, IL

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총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

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

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공대 71입)
(718)392-0111
L.I.C. NY

업 색

Care Tax Industries, Inc.
강봉창(약 50입)
(562)692-6567
South Gate, CA

운송통관

S. Y. Shipping
김종표(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

용자

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7입)
(213)368-9000
Los Angeles, CA

의료기구

MASH
심상은(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

의류

Jeffrey Allen Corp.
이기영(총 70입)
(201)863-5160
Secacus, NJ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

인터넷 사업

KS E biz
장세완(총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

신문점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

인터넷 서점

Aladdin USA
이형림(문 79입)
(323)692-9888
LA, CA

자동차 부품

Knox-Seeman Whse, Inc.
서동영(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

점자

Amkor Anam
정홍택(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

주류상

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현(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

학원

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

인의원

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보건대학원 71입)
(718)353-6207
Flushing, NY

브롱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

피장품

Revicci(레비치)
신정택(약대 52입·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

꽃집

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음 65입)
(800)252-5way
New York, NY

Seward Florist

김수향(간호 72입)
(626)287-6161
San Gabriel, CA

금년에도 재미총동창회와 동창회보 100호 간행을 후원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2. 7. 1 ~ 2003.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주소 : _____
5. 새 자택 주소 : _____
6. 새 자택 전화번호 _____ Fax _____
7. 직장주소 : _____
8. 직장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동문 자료 은행구축과 모교와 조국을 위한 지적 봉사단의 자료를 위하여 귀 동문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6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자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2. 7. 1 ~ 2003. 6. 30 구독료 \$6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No.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2.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지역동창회

1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 \$60(2002.7. 1. ~ 2003. 6. 30 회계년도)을 납부합니다.

2

미주 관악후원회 4차년도 후원 이사회비 出捐書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母校와 後進을 위한 기금 出捐書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 총액 (금액명기 \$)
- ①일시불 ()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AUSA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